

89신진학자 통일연구

國統調 89-12-158

南北韓 經濟交流 增大方案 研究

1989



研究責任者：金 容 煥 (慶熙大)
尹 基 官 (忠南大)

國 土 統 一 院

冊 을 내 면 서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統一 및 北韓問題 新進學者 育成事業」의 일환으로 추진된 研究結果 報告書입니다.

本 研究는 北韓의 對外經濟開放化 政策의 本質과 南北韓 經濟交流 現況 및 推進方案을 分析하였으며, 그리고 日本의 對北韓 무역거래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民間企業의 對北韓 貿易去來 促進方案을 考察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關聯研究 및 政策樹立時 참고자료로 적극 活用 되어 지기를 期待하면서, 아울러 여기에 收錄된 내용은 반드시 當院의 見解와 一致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89. 12.

調查 研究室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化에 따른 經濟交流 增大方案

金 容 煥 (慶熙大)

〈 要 約 〉

北韓經濟의 開放化 背景과 變化, 合營法 實施에 따른 對外經濟開放化의 內容과 推進實績, 對外貿易構造의 變化, 특히 輸出入構造와 최근 對外貿易動向을 文獻的 考察하고, 그에 따른 客觀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計量經濟的 分析모델을 이용한 北韓의 輸出入商品의 對外競爭力을 분석하였다.

특히 北韓의 對西方圈(日本)과 對共產圈(蘇聯, 中國)에 대한 輸出入商品을 중심으로 貿易特化指數를 구하여, 北韓의 輸出入商品 競爭力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北韓의 貿易相對國들의 對北韓輸出을 北韓의 輸入으로, 對北韓輸入을 北韓의 輸出로 계상한 다음 C.I.F, F.O.B 價格으로 환산하여 北韓의 貿易現況과 輸出入構造 및 商品을 把握하였다. 본 論文에서는 國際通貨基金(IMF)의 貿易統計資料集인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DOTS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따랐다.

위와 같은 開放化 추세가 南北韓經濟交流에 나타나는 최근의 변화와 品目別 交易可能性을 살펴보고, 南北韓 經濟交流 推進方向을 展望했다.

南北韓의 經濟交流는 短篇的, 一般的인 經濟的 實利를 떠나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相互經濟交流를 통해 民族間的 同質性 回復을 위한 最適의 方案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南北經濟交流를 民族의 念願인 平和統一의 첫단계로 삼아 종래 北韓과의 敵對的 關係를 拂拭시키고 民族共同體形成의 次元에서 南北韓 서로의 사정을 고려하면서 가능한한 全面的이고 包括적으로 協力해 나가야할 것이다. 아울러 南北韓 經濟交流를 短期的 利潤보다 相互 信賴回復과 民族情緒의 共感帶 確認에 두고, 民間交流, 商品交流, 資源開發, 借款 및 技術協力등 軍事的으로 민감한 部門을 除外한 全分野에서 積極적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南北韓 經濟交流의 첫단계로 韓國은 東北亞細亞 經濟圈 國家들과의 交流增大로 東北亞細亞 政治·經濟·社會環境에 보다 和解的인 雰圍氣를 造成하고, 內部的으로 南北韓交流를 制約하는 諸般 社會的 制度를 改正하고, 北韓側이 항상

제기하는 駐韓美軍問題와 매년 실시하는 팀스피리트훈련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解放 以後 一方的 視覺으로 고정된 對北韓研究를 보다 多元化 및 活性化시켜야 할 것이다.

對外的으로 北韓의 背後인 中國·蘇聯과의 和解무드를 우선적으로 造成한다는 것과 對內的으로는 南北韓 서로가 相互信賴할 수 있는 諸般措置의 實行으로 北韓으로 하여금 南北韓의 급속한 人的·物的 交流를 實現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할 수 있다. 그 具體的인 方案으로 특히 人道的인 面이 강조되는 南北離散家族의 故鄉訪問 및 省墓, 相互 書信交換, 產業技術情報 및 文獻物的 交流, 宗教團體行事, 南北韓 大學生 및 學者들의 學術交流 등을 통한 人的·物的交流의 增大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政治, 社會, 文化, 體育 등 非經濟分野의 關係進展에 상관없이 經濟交流를 持續의이고도 積極的으로 推進해야 한다. 따라서 經濟交流는 民間이 主導하도록 하고 政府는 이를 위한 雰圍氣 造成과 制度的 補完에 주력해야 한다. 즉 南北韓間의 政治·軍事的 의견차이, 體制의 相異성과 生소한 事業環境에 대한 지나친 우려나 企業의 過當競爭의 經濟交流 推進에 대해서는 南北韓 當局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支援策과 調整方案이 要求된다.

아울러 社會主義 國家와 南韓 사이의 經濟交流가 침체기에 있는 社會主義 國家의 經濟發展에 도움을 주는 事例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東北아시아 國家인 中國과 蘇聯과의 對南韓 經濟交流 增大로 해서 北韓도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南北韓 協力體制構築에 보다 積極的인 立場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長期的인 眼目에 입각한 南北韓 經濟交流를 위하여 서로 다른 體制에서 오는 問題를 忍耐力을 갖고 解決하여야 한다. 특히 短期的인 利潤보다 相互信賴를 回復하여 長期協力の 土臺를 構築하는데 主眼點을 두어야 하며, 南北韓 經濟交流가 促進되고 經濟協力이 원활히 되도록 그 環境造成에 주력해야 한다.

南北韓의 經濟協力은 統一을 위한 가장 現實的인 첫걸음이므로, 交流하는 人的·物的 要件에 대한 民族的·人道的·經濟的 便宜提供과 單一民族의 相互 共感帶를 造成해야 한다. 그 方案으로 南北韓 交易을 民族內部交易으로 規程 하여 서로 關稅를 매기지 않고, 港口利用 등의 諸般 交通·運送上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 예로 南北韓의 港口開港과 西海岸 共同漁撈事業 및 西海岸 섬들의 巡航醫療活動을 들 수 있다. 南韓側이 선박, 의료진 의약품과 일부 費用을 부담하고 北韓側은 선원과 일부 經費를 부담하는 형태이다. 醫療行爲 自體가 人道主義的 立場에서 행해지는 交流인만큼 南北韓 모두에게 거 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社會主義 貿易의 기본적 개념인 自主性原則과 平等·互惠의 貿易關係를 基礎로한 求償貿易形態로 1次產品은 1次產品끼리 (예를 들면 南韓의 쌀, 김과 北韓의 무연탄, 명태 등의 교역), 2次產品은 2次產品끼리 直交易함과 동시에, 제 3국을 통한 間接交易에 의해서 直接交流에서 얻지 못하는 比較優位論的 交易을 增大시켜야 할 것이다.

民間次元의 立場에서 香港, 日本, 中國, 蘇聯을 통한 間接交流나 제 3국을 통한 迂廻接近方式으로 交易을 活性化해야 한다. 中國과 蘇聯과의 公式的인 通商關係를 이루고 난 후 中國商社나 蘇聯商社, 초기에는 日本의 商社들을 통한 中繼貿易에 많이 의존해야 할 것이다. 특히 中國과의 定期港路開設과 韓·中國 연안의 主要貿易港 開港, 中國貿易事務所의 서울 設置가 조만간에 이루어질 展望이고 보면 長期的으로 볼때 韓中合作會社의 北韓進出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北韓產 원자재 및 北韓의 勞動力을 利用하여 이를 臨加工하여 南韓으로 輸入하거나 他國家로 輸出하는 방식으로 發展시켜, 점차 輕工業 製品을 중심으로 한 南北韓 合作投資를 推進하여야 하겠다. 즉 韓中國合作會社를 통해 北韓으로 進出하여 借款, 플랜트輸出, 製品의 輸出入 등에 力點을 두어야 한다. 특히 初期에는 香港, 日本, 蘇聯地域에 설치

한 商店, 展示場을 최대한 이용하여 南北韓의 對外協力 및 交流를 活性化하여야 한다.

한편 南北韓이 현재 農産物의 상당한 物量을 外國에서 購入하고 있으므로 이를 克服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食糧의 供給에 相互協力할 뿐만 아니라 인삼, 송이버섯, 토종양봉, 한약제 등의 特産品의 交易에 역점을 둔다. 아울러 백두산, 금강산 觀光資源의 共同開發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이 問題는 정주영氏의 北韓訪問으로 상당히 可視化되었다.

따라서 이같은 對外協力 活性化가 최근 北韓經濟가 追求하는 交易의 多變化 그리고 1次産品 위주의 輸出入構造, 輸出入不均衡에 의한 貿易收支 惡化를 解消하고 輸出商品의 質的 提高와 多樣化를 이루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 相互의 部分的인 勞動, 資本, 技術協력이 長期的으로 共同調查研究의 實施와 貿易協定 및 技術協力 協定締結 및 北韓技術者의 教育訓練으로 發展하도록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韓半島의 政治, 經濟, 文化, 社會에 상당히 긍정적인 效果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물론 初期에는 北韓의 開放과 外債蕩減을 위하여 상당히 많은 商品을 사주는 形態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交易代金 決濟時 無關稅制度, 스윙 (swing) 制度, 長期無利子借款 (交易上의 赤字는 政府가 報償) 과 韓國産 機資材 搬入時 長期低利借款 그리고 양쪽간의 中央銀行의 事後決濟方式을 쓰는 것이다. 즉 南北韓의 輸出入時 직접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편의 中央銀行과 民間銀行을 상대로 代金決濟를 하도록 한 다음 追後에 두銀行이 이를 精算하는 方式이다. 交易商品에 관한 關聯資料의 交換擴大와 現金借款, 延拂輸出, 現物借款의 擴大 그리고 求償協定の 締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共產圈 貿易에 있어 代金決濟 方式에 대한 면밀한 研究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南韓政府는 民間의 南北交易 進담기구의 設립 조성과 關聯法規의 整備는 물론 海外協力基金이나 輸出保險의 活用 등과 같은 支援

體制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南北韓 經濟交流를 維持하기 위해 經濟交流를 위한 基金造成이 필요하다.

마지막 단계로 南北經濟交流를 통해 東北아시아 經濟圈에 대한 韓半島의 寄與度を 높일 뿐만 아니라 南北韓의 相互依存度を 擴大시킴으로써 單一의 經濟圈을 形成시키게 될 것이다. 民間中心의 技術協力協定에 의한 專門技術者의 相互交流 및 尖端技術의 相互交換과 南北韓 貿易協定締結로 一般經濟人의 相互交流 뿐만 아니라 나아가 一般人的 自由로운 相互訪問의 許容을 指向하여야 한다. 즉 서로의 資源을 利用하여 貿易特化를 통한 客觀的인 相互交易을 形成시킴과 동시에 一括的이고 包括的인 交流를 이룩하여 장기적으로 尖端型의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한 자유로운 플랜트合作投資가 推進되도록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輸出入 窓口的 統合을 達成하여 南北韓 모두 輸出入 物量的 增大로 規模의 利益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民間人, 民間企業이 중심이된 南北韓의 經濟統合은 곧 南北統一의 여건 성숙을 意味하고 韓半島의 平和的, 實踐的 統一方案으로 具體化 될 것이다.

目 次

| | |
|-------------------------------|----|
| I. 序 論 | 9 |
| 1. 問題의 提起 | 9 |
| 2. 研究의 接近方法 및 構成과 限界 | 12 |
| II.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化 | 15 |
| 1. 背 景 | 15 |
| 2. 北韓 對外經濟의 特徵 | 18 |
| III. 北韓對外經濟 開放化 推移 | 22 |
| 1. 合營法 內容 | 23 |
| 2. 合營推進 | 26 |
| IV. 北韓의 對外經濟構造와 變化 | 34 |
| 1. 北韓의 輸出入構造 | 34 |
| 2. 北韓의 對外貿易 動向 | 37 |
| V. 北韓의 對外競爭力 | 42 |
| 1. 北韓의 對日本 輸出入商品 競爭力 | 43 |
| 2. 北韓의 對蘇聯 輸出入商品 競爭力 | 48 |
| 3. 北韓의 對中國 輸出入商品 競爭力 | 52 |
| VI. 南北韓 經濟交流 現況 | 57 |
| 1. 經濟交流에 대한 南北韓 基本立場 比較 | 57 |
| 2. 最近의 南北韓 經濟交流 現況 | 60 |
| 3. 品目別 交易 可能性 | 65 |
| VII. 南北韓 經濟交流의 推進方向 | 69 |
| 1. 經濟交流을 위한 雰圍氣 造成 | 69 |
| 2. 推進方向과 展望 | 71 |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最近 社會主義 陣營은 큰 變化를 겪고 있다. 蘇聯에서는 1985年 3月 고르바초프가 登場한 이래 과감한 政治·經濟改革과 開放化를 추진하여 왔으며 中國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이나 經濟開革을 실시하여 왔다. 폴란드는 1989年 6月의 選舉에서 自由勞組와 政治的 妥協을 모색했던 共產黨이 엄청난 참패를 당했으며, 헝가리에서는 共產黨이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改革을 거부해 왔던 東獨은 自國民의 대거 國外脫出이라는 國際的 망신과 國內 體制不安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蘇聯, 東歐, 中國 등 대부분의 社會主義 國家들이 經濟改革과 對外開放을 내세워 新經濟政策을 통해 體制補強을 위한 자기수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¹⁾만이 독자적인 노선을 지켜왔다. 즉 自主(政治), 自立(經濟), 自衛(軍事)를 내세워 北韓은 市場經濟原理를 導入한 社會主義圈의 經濟改革에 별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對外經濟開放을 외면해 왔다. 그러나 解放以後 北韓은 經濟改革과 開放의 조짐을 보이는 듯하다가 다시 閉鎖社會로 되돌아 가는 과정을 되풀이 하여 왔는데, 최근의 開放化, 國際化의 세계조류를 계속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中國의 改革과 開放과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열풍을 더 이상 도외시 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84年 1月 最高人民會議 第7期 3次會議에서 對外經濟協力이 對內發展과 人民生活 向上을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資本主義 國家 중에서 未修交國과도 相互利益原則 하에 經濟協力を 強化할 것을 피력하였고, 1984年 9月에는 合營法을 制定하여, 外資 및 技術導入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觀光事業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평양축전을 끝낸 北韓은 향후 經濟全般에 活

1) 以後 모두 北韓으로 記述함.

力을 불어 넣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와 아울러 對外經濟 開放化도 加速化시킬 것이다. 즉 北韓이 經濟開放化를 위해 政策變更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根本的 背景에는 對外經濟 開放化를 통해서만이 閉鎖的인 社會主義 經濟 體制에서 야기된 景氣沈滯의 克服과 產業構造의 高度化, 人民들의 豊饒로운 生活水準을 提供할 수 있다고 認識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對外開放을 擴大하게 되면 資本主義的 思潮는 물론 蘇聯, 東歐, 中國의 最近 改革과 變化 등이 流入되어 體制不安의 要因이 야기될 수 있다는 北韓 指導層의 우려도 對外經濟改革의 制約要因으로 作用되어 왔다. 특히 金正日의 權力承繼라는 政治的 負擔을 안고 있는 狀況에서 體制不安 要素가 될 수 있는 資本主義, 修正 資本主義的 思潮의 流入은 北韓이 警戒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²⁾

최근 들어 北韓은 經濟主力方向을 既存의 基幹產業分野 中心에서 尖端產業分野로 급진회하면서, 對外指向的 業務를 관장하는 部署들을 新設하고 있다. 그와 아울러 비철금속 5배 및 마그네샤크링커 2배 수출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鑛產物 輸出과 公작기계, 中형차와 전기기계 등 기계설비의 수출증대 극대화와 수출상품의 다양화에 주력하고 있다. 즉 外債克服과 產業構造 高度化, 人民들의 生活水準向上 및 現金日成-金正日體制의 확고한 構築과 對南韓 優越性을 達成하기 위하여 輸出主力商品의 輸出極大화와 輸出商品의 多樣化로 對外競爭力을 높여 外貨稼得額을 極大化 하고 있다.³⁾ 開放化에 대해서 保守的인 立場을 취해 온 北韓이지만, 올해 開催한 世界學生青年祝典으로 더이상 開

2) 이호, 「北韓의 經濟開放化 展望과 南北經濟交流의 評價」, 무역협회, 1988. 12, pp. 224-287.

3) 現時期 우리나라(北韓) 經濟發展에서 가장 중요한 問題의 하나로서 對外貿易을 빨리 發展시키는 것이다. 人民經濟의 規模가 비할 바 없이 커지고 經濟部門들이 매우 多樣化된 現實에서 對外貿易을 더욱 擴大 發展시키는 것이 要求되고 있다. 「金日成 著作集」, 第 35 卷, p. 335.

放化의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러나 開放化의 速度는 여타 社會主義諸國보다 느리게 나타날 것이지만, 그것이 주는 영향은 北韓의 政治, 社會, 文化, 經濟 등 모든 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北韓經濟는 對外開放化에 따라 상당히 많은 變化를 孕胎할 것임은 자명하다. 그 결과 向後 東北아시아에서의 北韓의 役割을 豫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北韓의 對外經濟開放化의 涵수적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할 것이며 특히 對外輸出入 構造의 명료한 分析이 절실히 요청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즉 內部矛盾의 克服을 위하여, 또한 國際的 地位向上을 위하여 北韓이 對外貿易에 주력함과 동시에, 무슨 商品들을 外國에 輸出할 것인가를 分析하는 것은 매우 意味가 있고, 時期適切한 研究인 것이다.⁴⁾

韓半島의 平和와 統一을 위한 民族經濟 回復은 무엇보다 시급한 問題이므로, 南北韓의 經濟交流가 하루 빨리 열려야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⁵⁾ 특히 現在의 新데탕트 國際秩序와 韓半島의 周邊政勢는 南北韓의 關係를 어떤 식으로든 變化시키려고 하고 있는 趨勢이다.

따라서 南北韓 關係는 크게 세 方向에서 接觸이 進行 중인데 첫째, 南北國會會談 둘째, 南北頂上會談(혹은 高位政治 軍事會談) 셋째, 南北韓의 經濟交流 등이다. 그 중에서 가장 現實的인 分野인 南北韓 經濟交流가 北韓의 開放化에 어떠한 變化를 나타낼 것이며, 또한 平和統一과 民族化합을 위한 手段으로서 向後 經濟交流를 어떻게 推進해야할 것인가를 展望해 보고자 한다.

4) 1989年 3월에 韓國 應用統計 研究所에서 調査한 資料에 의하면, 現在 거론되고 있는 南北交流 중 가장 관심있는 分野는 南北貿易 즉 南北經濟交流라고 分析되었다. “南北交流에 대한 調査”, 北韓, 1989.5, pp.80-86.

5) 南과 北이 現存하는 두개의 經濟體制가 지니고 있는 問題點들을 克服하고 變化發展을 통해서 統一民族經濟가 새로운 經濟體制로 된다는 것은 自然的 必要性을 가진 것이다.

김낙중, “民族統一과 民族經濟”, 統一, 1989年 1月號, pp.22-33.

2. 研究의 接近方法 및 範圍, 限界

1) 研究 接近方法과 範圍

현재 세계 각국에서 급속히 나타나고 있는 社會主義 諸國들의 對外經濟開放이란 社會主義 國家間뿐만 아니라 資本主義世界에 대한 開放을 필수적인 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에 본 研究에서 말하는 經濟開放化도 社會主義國家들과 資本主義國家들에 대한 貿易과 자본협력의 증대를 뜻하는 것으로 규정한다.⁶⁾

최근 社會主義國家들에서 일어나는 政治, 經濟, 文化, 社會의 開放化 물결이 北韓經濟 특히 對外經濟部門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있다. 특히 韓半島에 인접한 東北亞 諸國間的 和解霧圍氣가 각국의 사정에 따라 더욱 가속화 할 전망에 따라 北韓의 對外 經濟開放化는 더욱 가속화 할 예정이다.

따라서 開放化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체제내부의 제도적 변화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국내적으로 1988년말 合營工業部(1988.11.26), 전자자동차위원회(1988.12.18)를 신설한데 이어 1989년 들어 도시경영부를 신설함으로써 당초 北韓의 8기내각이 구성될 당시(1986.12.27) 14개 위원회 15개 위원회 20개부 1개원으로 개편되었다. 즉 주로 經濟部處들에 대한 조정에 주력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北韓經濟의 開放化 背景과 變化, 合營法 實施에 따른 對外 經濟開放化의 內容과 推進實績, 對外貿易構造의 變化, 특히 輸出入構造와 최근 對外貿易動向을 文獻研究를 통해 考察하고, 그에 따른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計量經濟的 分析모델을 이용한 北韓의 輸出入商品의 對外競爭力을 분석하고자 한다.

6) 이태욱(서강대) 교수의 “北韓의 經濟開放 政策과 그 展望”과 정창영(연세대) 교수의 “北韓의 經濟開放 與件과 展望” 참조, 이 論文들은 國土統一院 주최 「南北韓 經濟協力에 관한 國際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것임.

특히 北韓의 對西方圈(日本)과 對共產圈(蘇聯, 中國)에 대한 輸出入商品을 중심으로 貿易特化指數를 구하여, 北韓의 輸出入商品 競爭力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北韓의 貿易相對國들의 對北韓輸出을 北韓의 輸入으로, 對北韓輸入을 北韓의 輸出로 계상한 다음 C.I.F, F.O.B 價格으로 환산하여 北韓의 貿易現況과 輸出入構造 및 商品을 파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國際通貨基金(IMF)의 貿易統計資料集인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DOTS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따랐다. 이 방법은 C.I.F 價格과 F.O.B 價格간의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貿易對象國의 對北韓 輸出入과 등 輸出入額에 각각 1.1을 곱해 北韓의 輸出額과 輸入額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北韓의 貿易相對國이 발표한 輸出額(f.o.b)에 1.1을 곱한 것이 北韓의 輸入額이 되며, 貿易相對國 발표 輸入額(c.i.f)을 1.1로 나눈것이 北韓의 輸出額이 된다.

또한 日本을 제외한 蘇聯과 中國지역의 통계는 自國 화폐단위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1987년 年평균환율을 적용하여 달러로 환산하였다.(1달러 : 0.627 루블 : 3.7221元) 특히 蘇聯의 경우 SITC가 아닌 '統一商品分類'로 통계가 작성되어 있어 이를 SITC별로 조정하였다.

자료출처로는 國土統一院의 자료, IMF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88), OECD Statistics of Foreign Trade, 日本貿易振興會의 北朝鮮 經濟 貿易 展望 中國海關統計, Veneshnaya Torgovlya USSR, Hong Kong Trade Statistics, Singapore Trade Statistics, UN의 國際貿易統計年鑑 등이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北韓의 開放化 趨勢가 南北韓 經濟交流에 나타나는 최근의 變化와 品目別 交易可能性을 살펴보고, 南北韓 經濟交流 推進方向을 展望해 보겠다.

2) 研究의 限界

北韓은 다른 經濟統計와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貿易統計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北韓의 貿易現況과 輸出入構造 및 商品에 대한 모든 자료들은 北韓의 貿易相對國이 발표한 貿易統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놓여 있다.

計量分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統計數値이나, 北韓이 발표한 종래의 통계수치는 작성의 절차나 근거 등이 일체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現實의 實體를 어느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豫測, 比較하는 데는 많은 限界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北韓의 對外貿易은 國內計劃經濟의 從屬部門으로 되어 있고, 對外貿易은 엄격한 輸出入計劃 하에 輸入優先主義, 輸出入 均衡主義, 바터貿易主義를 기본운영원칙으로 하는 등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對外競爭力을 평가하기 힘들다는 限界點을 갖고 있다.

아울러 經濟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經濟原理에 입각한 比較生産費理論으로서 對外貿易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日本, 蘇聯, 中國의 輸出入商品 분류가 서로 상이함으로 해서 완벽하게 같은 商品分類를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輸出入統計를 구했다. 즉 北韓의 貿易相對國이 발표한 輸出額(F.O.B)에 1.1을 곱한것이 北韓의 輸入額이 되며, 貿易相對國 발표 輸入額(C.I.F)을 1.1로 나눈것이 北韓의 輸出額으로 보았다. 또한 서로의 相關關係를 높이기 위해 상대방 국가가 발표한 輸出入額을 갖고서 보다 客觀的인 Data를 抽出하였다.

위 자료에 의한 貿易特化指數를 토대로 한 南北韓 經濟交流의 구체적 商品分野 선정과 南北韓 經濟交流增大方案은 北韓의 政治·經濟·社會·文化的要素를 모두 내포하지 못하는 限界點이 있다.

II. 北韓 對外經濟의 開放化

1. 背景

1948년 이후 北韓政府는 資本主義 諸害惡要因들을 재거하고 北韓社會에 소련의 스탈린 모형에 가까운 강력한 主體的 權威主義的 政府를 세워 인민대중의 복지를 증대시키는데 주력해 왔다. 北韓의 對外貿易政策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社會主義 國家經濟의 기본목표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擴大 再生産理論에 기초한 自力更生을 구현하는, 自立的 民族經濟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¹⁾

특히 北韓은 主體라는 독특한 노선으로 政治, 社會, 經濟를 이끌어 왔다.²⁾ 즉 北韓經濟는 출발부터 자급자족을 위주로 한 대내산업 주도형이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輸出 및 貿易은 中央執權的인 經濟建設을 반영하여 전형적인 국가독점의 형태를 취하였다. 일반적으로 천연자원이 北韓에 비교적 많이 부존되어 있었으므로, 상대적으로 南韓보다 적게 外國貿易에 甚 依存하여 왔다. 그로 인한 北韓의 經濟的 疎外性은 세계시장에 대한 北韓經濟의 競爭力을 매우 약하게 하였다.³⁾ 그러나 이는 經濟의 主體性, 獨立性, 自力更生이라는 側

1) 自立的 經濟를 건설하는 것은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人民生活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重工業 및 輕工業 製品과 農產物을 기본적으로 國內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經濟를 다방면으로 발전시키고, 近代의 技術로 장비된 自國의 강고한 原料기지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經濟體系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제에 대하여>

2) Donald Stone Macdonald, The Koreans, (U.S.A:Wesview Press, 1988), pp.179-222.

3) Ibid, pp.210-222.

面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따라서 해방 이후 北韓은 資本主義진영과는 단절상태인 동-서냉전 구조하의 社會主義圈에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中·蘇 兩國을 중심으로 하는 社會主義圈과의 부분적인 貿易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970 년대에 들어서 北韓은 資本主義諸國인 西方側에 貿易의 눈을 돌리는 정책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北韓은 南韓에 비해 뒤떨어진 工業生産을 發展시키고자 서방측으로부터 플랜트수입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1960 년대에 北韓의 무역상대는 80 % 이상이 社會主義圈이었으나, 1970 년대에는 50 %의 貿易을 서방측에 돌리기도 했다. 北韓은 서방측으로부터 플랜트 도입에 확대하고 있을때 오일쇼크를 맞이했다.

그리하여 北韓은 수입설비와 원자재가격의 앙등을 겪게된 반면 北韓의 主要輸出品目인 연, 아연을 비롯한 비철금속의 가격이 서방권의 불황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4) 예정된 外貨를 획득할 수 없게 되자 지불지연을 초래 5), 그결과 對外債務를 누적시키게 되었다. 6)

이러한 상황에서 北韓이 계속적인 經濟不振을 가져오게 되자, 金日成은 1980 년 신년사에서 「人民經濟의 전부문에서 輸出源泉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對外貿易을 다양화하고 그폭을 새롭게 넓혀야 한다」고 하는 貿易不況의 타개책을 표명했다. 즉 이러한 金日成의 언사는 對外貿易의 必要性을 호소한 것이다. 그와같은 맥락에서 84 년에 발표된 합영법을 이해해야 한다. 즉 北韓經

4) 비철금속의 國際市勢 低調 등으로 北韓의 外化調達이 어려워졌다. 조일신문, 83.2.19.

5) 서방은행에 채무이행을 하지 못한 첫 공산국가는 北韓이었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82.12.3.

6) 산더미같은 미상환 외채와 비생산적 經濟는 北韓을 파국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기사를 캐나다 Citizen지는 게재했다. Citizen, 82.10.23.

濟는 1984년에 들어와서 對外經濟관계에 중대한 정책전환을 시도하여, 1984년 1월 25~27일간에 개최된 제 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남협조와 對外經濟 사업을 강화하며, 貿易事業을 더욱 발전시킬때 대하여」를 채택하여 對外經濟 開放政策의 추구방침을 밝힌 바 있다.7)

그러므로 對外經濟關係를 발전시키는 것은 해방 이후 김일성 지도하에 이룩한 自立的 民族經濟의 커다란 잠재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人民經濟의 기술장비를 세계선진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40주년 경축보고대회에서 김일성은 강조하였다.8) 특히 對外經濟部門에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貿易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합영, 합작을 비롯한 여러가지 形態의 經濟 技術的 協助와 交流를 널리 발전시키고자 독려하였다. 또한 같은해 9월 8일에는 전문 5장 26조로 된 合營法을 制定, 公布하여 世界 各國과의 經濟, 技術交流와 協助를 擴大, 發展시킨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후 北韓은 1987-1993년에 걸쳐 第3次 7個年 計劃을 推進하고 있는데 이 計劃에서는 기본과업으로 人民經濟의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社會主義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物質 및 技術的 土臺를 造成하여 自立的 民族主義 建設을 주장하고 있다.9) 즉, 北韓은 開放化에 의한 科學技術의 發展과 技術革新 運動에 의한 人民經濟의 技術改造를 통하여 勞動生産性を 增加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7) 동 결의서의 내용을 보면 自力更生の 原則과 自立的 民族經濟의 基礎에서 對外經濟協力を 추진해왔다고 전제한 다음, 다른 나라들과의 經濟技術協력과 協助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남남협력, 사회주의제국과의 협력 및 자본주의 국가와의 經濟協力を강조하였다.

8) 로동신문, 1988.9.9.

9) 리두길, “경공업 발전에 큰힘을 넣어 생활 필수품 생산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 근로자 1989년 2월호, pp.56-60.

하여간 北韓은 經濟開放化만이 社會主義 經濟體制에서 야기되는 經濟沈滯狀態 克服과 產業構造 高度化, 人民들의 豊요로운 生活水準을 提供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특히 開放化하지 않고는 先進國들의 資本과 技術을 導入할 수 없으며, 자본과 기술의 도입없이 經濟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北韓 對外經濟의 特徵

北韓의 貿易政策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社會主義 國家經濟의 기본목표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擴大再生産 理論에 基礎한 自力更生을 具現하는, 自立的 民族經濟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對外貿易을 발전시키는 것이 社會主義 經濟建設面에서 北韓이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중요한 방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⁰⁾ 따라서 北韓 對外經濟의 主要特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自力更生의 原則이다.¹¹⁾ 北韓은 輸出入政策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 대량의 필요한 것은 자력으로 생산하고, 自國에서 생산할 수 없는 극히 필요한 소량의 상품만을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다. 北韓에 있어 貿易의 主趣旨는 經濟計劃의 현실화에 필요한 財貨 및 技術의 輸入에 있으며, 輸出은 輸入을 가능케 하는 부차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즉 輸入優先主義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輸入을 위한 輸出의 原則을 따르기 때문에 輸出構造는 國內 產業構造 그 자체를 반영하지 않는 점이 상당부분 있다. 이것은 기존 자급체제의 추구라는 목표에 비추어 당연한 결론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무역의 장기적인 목적은 역설적으로 대외의존, 즉 무역의 필요를 최대한 감소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10) 리두길, 前揭書, pp.56-60.

南韓經濟의 貿易과 비교하여 北韓의 경우 무역의 역할은 전혀 相異한 趣旨를 갖고 있다. 우선 貿易은 社會 全體의 行爲로서 經濟計劃의 一部로서 포함되어 國家의 主權아래 수행된다. 따라서 무역은 國家 獨占下에 있으며 經濟計劃에 의하여 설정된 諸目標를 實現하기 위한 한 手段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北韓은 對外經濟 貿易政策을 政治的 目的 추구의 手段으로 이용되고 있다.

둘째, 平等, 互惠의 原則이다. 北韓의 對外貿易은 平等, 互惠의 原則을 내걸어 2국간의 바터무역을 원칙으로 한다. 즉 北韓은 自主性의 原則과 프롤레타리아트 國際主義를 엄수하고 平等, 互惠의 貿易關係, 相互主義의 입장을 취

11) 마르크스주의 經濟理論에 의하면, 國際貿易理論의 기초가 되는 比較生産費說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착취도구인 自由貿易을 正當化 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즉 마르크스주의자가 주장하는 不均等交換 (non-equivalent exchange) 假設 論理인데, 이는 이 가설에 의하면 勞動生産性이 높은 先進國家들이 노동 집약도가 높은 후진국가들을 지배하게 되므로 국제무역에서 균등한 교환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논리이다. 소련의 프룸킨 (A. Frumkin)은 이와같은 논리에 의해 비교 우위론적 무역이론이 서방의 선진국가들로 하여금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지배를 영구화하는 이론적 정당성을 제공해 주는 도구라고 비난하고, 선진 자본주의자들에 의해 확립된 무역이론은 사이비과학적 반동학설 (pseudo-scientific reactionary doctrine)라고 규정했다. 특히 룩셈부르크 (Rosa Luxemburg)는 이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Capitalist Imperialism)이므로 사회주의국가는 이 논리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무역 무용론을 주장하였다. 나아가서 비교우위론적 국제무역은 제 3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서방 선진국가들에 대한 의존관계를 영구화시키는 도구로 이용된다는 소위 종속이론 (Dependency Theories) 을 1960년대 초반에 바란 (Paul Baran)과 프랑크 (A.G. Frank) 등이 주장하였다.

Karl Marx, Capital, Vol. 1.

J. Wiliczyński,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East-West trade 1969. P. 72.

Rosa Luxemburg, The Accumulation of Capital,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66)

한다는 것이다.¹²⁾ 이러한 원칙에 따른 무역형태로서는 다각적 결제방식이 아니고, 쌍무협정에 의한 2국간 바터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北韓은 대외무역 운영원칙으로서 1) 輸出入 均衡主義 2) 바터무역주의 3) 輸入優先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北韓이 대외무역에 있어서 쌍무협정무역과 바터무역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수출품의 부족, 외화부족때문에 무역수지를 事前的으로 均衡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對外貿易 去來마다 교환가능통화를 이용하는 현금수수를 피하고 수출액을 협정된 계약통화 단위로 하여 상호간에 스윙(Swing)폭을 설정하여 일정기간 후에 잔고만을 결제하는 청산결제형태를 취하여 금 및 외환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고 무역을 하려는 것이다. 北韓은 최근에 서방측에 대해서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역상대국에 北韓의 商品購入을 의무화 하는 對應貿易(Counter Trader)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을 비롯한 서방선진국에 이러한 원칙을 강력히 요구하지 못해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셋째, 政·經不可分の 原則이란 점을 들 수 있다. 이 원칙은 다시 세가지 원칙으로 나누어지는데, 사회주의제국과의 사이에는(정·경일치의 원칙), 개발도상국과의 사이에는(정치우선의 원칙), 자본주의제국과의 사이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정·경분리의 원칙)을 각각 적용한다.

北韓의 이같은 무역수행시의 특징은 무역대상의 優先順位를 결정하게 된다. 즉 사회주의권내의 무역을 제 1위로 하고, 다음으로 開途國, 資本主義諸國의 순으로 되어 있으나, 1970年代 以後 對西方諸國과의 貿易이 對社會主義圈에

12) 「金日成 저작선집」(제 4권, p.315)에 의하면, 自力更生의 기치하에 자기의 역량과 國內의 源泉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自立的 民族經濟를 建設하는 路線을 계속 견지하면서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 원칙과 완전한 平等, 互惠의 原則으로 다른 나라와 經濟關係를 맺고 對外貿易을 發展시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비해 크게 급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北韓은 發展, 變化하는 現實的 要求에 맞게 對外貿易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自立的 民族經濟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 社會主義의 完全 승리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³⁾

그 결과 北韓의 현재 經濟發展段階가 「社會主義 中進國」 초기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¹⁴⁾

13) 리두길, 前掲書, pp.56-60.

14) 小牧輝夫, “北韓經濟의 現況과 展望”, 「기로에선 北韓經濟」,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p.6-7.

Ⅲ.北韓의 對外經濟 開放化推移

北韓은 解放以後 金日成의 指導下에 自立的 經濟를 建設하여 人民大衆의 福祉를 極大化하여 왔으며, 社會主義經濟論理에 의한 對外環境變化를 持續해 왔다. 특히 1970年 以後 西方先進國으로부터의 經濟協力導入을 加速化하기 始作하였다. 國際적으로는 石油波動으로 인해 蘇聯, 中國, 東歐諸國의 西方國家에 대한 貿易收支赤字가 擴大되어 社會主義圈으로부터 經濟協力を 提供받기 어렵게 되었고, 아울러 北韓의 輸入設備와 原資材 價格의 仰騰을 招來하였으며, 또한 北韓의 主要 輸出品目인 鈾, 아연을 비롯한 非鐵金屬의 價格이 西方圈의 不況으로 價格이 暴落하여 豫定된 外貨를 獲得하지 못함으로 해서 外債가 累積되기 始作하였다. 對外債務의 早速한 償還과 經濟活性化를 위하여 西方의 先進 先進技術과 資本의 導入으로, 보다 積極的인 輸出產業分野의 開發必要性이 절실하게 되었다. 內部的으로 北韓經濟는 閉鎖的, 自立的 經濟體制에 따른 資本 및 技術不足과 對外貿易의 限界, 軍事力 爲主의 重工業 優先政策에 따른 資源分配의 歪曲, 經濟運營管理의 比效率性 및 硬直性 등과 같은 構造的 問題들로 해서 全般的인 沈滯現象을 보여 經濟全般에 걸쳐서 새로운 轉機가 時 急했다. 특히 1980年代에 와서는 外資調達을 위한 對外輸出入의 重大性이 더욱 커졌다. 또한 北韓의 血盟國인 中國이 1979年 中外合作企業法을 制定하여 自由貿易地帶인 經濟特區를 設置하는 등 中央執權의 計劃經濟에 부분적인 市場 메카니즘의 도입 즉 社會主義 商品經濟를 導入하여 對外經濟開放化를 施行함으로써 最近 높은 經濟成長을 이룩했다는 사실은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化에 상당한 刺戟制가 되었다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이다.¹⁾ 물론 北韓은 「合營

1) 合營工業部 副部長 김성환은 이점에 대해 「우리의 經濟는 閉鎖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現在 開放化하고 있다는 말할 수 없다」고 主張하고 있다. The New York Times, 1989.7.9.

法은 既存의 自立的 民族經濟 路線에 反하지 않고 自立經濟를 強化 發展시키는 것으로, 一部 國家에서 이를 中國의 經濟特區와 結付시키는 것은 合營法을 잘못 理解하고 있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²⁾

하여간 合營法 公布 以後 특히 今年에는 世界青年學生祝典大會의 完遂와 第3次 7個年計劃 推進의 早期達成 및 輕工業製品生産의 促進을 위하여 對外競爭力을 強化하고 있다.

1. 合營法의 內容

北韓이 合營法을 만든 것은 1984年 9月이다. 당시 北韓은 2次7個年計劃(74-78)이 끝나는 해인데, 뚜렷한 經濟成長을 이루지 못했고 75年 以後 惡化된 外債事情으로 西方側으로부터 技術 및 借款을 導入할 수 없게 됨으로써 償還負擔이 없는 外國의 合作投資를 유치하여 技術 및 資本을 導入하고자 合營法을 마련했다.

北韓은 前述한 바와 같이 88년말에 總外債가 52억 1천만달러(西方側 28억달러, 共産圈 24억 1천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貿易收支面에서는 赤字幅이 87년보다 더 늘어나 11억 7천만달러의 赤字를 記錄하는 등 심각한 外換不足現象에 直面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外換不足을 外國의 直接 投資로 타개해 보고자 마련한 合營法의 內容을 살펴보면 <表 3-1>과 같다.

社會主義나 資本主義 어느 나라에게도 投資를 促求하는 이 合營法은 外國 資本에 상당히 유연하다. 合作線이 合作會社의 株式持分을 50% 以上 차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經營의 自律性을 많이 許容했다.³⁾

주로 朝總聯系와 中國·蘇聯과의 合作이 이뤄지고 있는데, 87년부터는 既存

2) 日朝貿易協會, 日朝貿易, No.297, 1984.10.15, p.12.

3) The Pyongyang Times, September.15.1984.

의 서비스 分野에서 벗어나 纖維·被服·機械製作 등에서 技術移轉을 포함하는 合營會社를 設立하는 등 점차 多樣化되고 있는 趨勢이다.

〈表 3-1〉 合營法の 主要內容과 問題點

| 區 分 | 內 容 | 問 題 點 |
|---|---|---|
| 第1章 合營의 基本 1條 合營 對象 2條 合營事業 範圍 2條 合營事業 範圍 3條 出資分과 所得 保護 4條 合法的 權利保 障과 法の遵守 5條 海外同胞의 出 資獎勵 | 合營對象에 法人體 및 個 人包含 觀光業까지 포함한 廣範圍 合營事業 範圍 北韓法에 따라 北韓法에 따라 在日朝總聯系 商工人 明示 | |
| 第2章 合營會社의 組織 6條 會社의 承認과 登錄 | 契約-承認-登錄 | 契約에서 承認을 얻기 까지 有效期間의 規定 없음 |
| 7條 出資範圍 및 比率 | 出資範圍에 라이선스, 노하 우 포함 | 出資比率의 上下限이 없음 화폐외의 出資에 대해 國際市場價格으로 한다고 하지만 土地, 發明 權, 技術文獻등의 客觀 的 評價가 어려움 |
| 8條 責任과 第3者 讓渡 | 有限責任會場 形態 出資分의 第3者 讓渡에는 | |

| 區 分 | 內 容 | 問 題 點 |
|----------------------|---|--|
| 9 條 減額 | 相對方의 同意 必要 등록된 資金은 줄일 수 없 음 | ‘등록된 자금’이 불 입된 금액인지 契約上 金額인지 불분명 |
| 第 3 章 理事會와 經營 活動 | | |
| 10 條 理事會 | 合營會社 形態를 私企業態 形態로 規定 | 理事長 選出方法의 불 분명 |
| 11 條 理事會의 役割 | 合營會社의 모든 중요한 問 題 討議 決定 | 표결방법 불분명 |
| 12 條 社長의 責任 | 理事會 앞에 責任 | |
| 13 條 銀行 口座 | 北韓銀行에 口座開設 合意 에 따라 第 3 國 銀行에도 開設 可能 | |
| 14 條 投資 調達 | 原資材의 國內調達時 國際 市價 適用, 資材輸入時免稅 | |
| 15 條 製品 輸出 | 生産製品은 輸出原則 (施行 細則 33 條) | 國內販價도 貿易機關을 통해 (施行細則 第 33 條) |
| 16 條 從業員 採用解 雇 | 北韓法과 契約에 따라 | 사실상 會社의 從業員 任免權 制限 |
| 17 條 所得稅 納付와 國外送金 | 外國人의 경우 勞賃에 대 해 所得稅 納付, 一部送金 可能 | 사실상 會社의 國外送 金 制限 |
| 第 4 章 決算과 分配 | | |
| 18 條 決 算 | 출자몹에 따른 分配 | |
| 19 條 豫備基金 造成 | 登錄資本의 25%가 될 때 까지 매년 純所得의 5% 積立 | |

| 區 分 | 內 容 | 問 題 點 |
|-----------------|---|-----------------------|
| 20條 監查 | 財政檢閱員과 理事會 批准 | |
| 21條 合營會社 所得稅 | 처음 3年間 免稅 단, 純所得이 적을 경우 免稅期間延長 可能. 所得稅率 25% | ‘純所得이 적을 경우’의 概念이 不分明 |
| 土地使用料 | 國家機關이 決定 (施行細則 第20條) | 具體的 決定基準 不分明 |
| 22條 果實의 國外送金 | 送金比率의 制限 없음 | |
| 第5章 解散과 紛爭 解決 | | |
| 23條 解散과 合營期間 延長 | 契約期間 滿了時 解散 | 期間延長에 대한 基準 不分明 |
| 24條 期間終了前解散 | 理事會의 決定에 따라 | |
| 25條 清算 | 출자몹에 따라 | |
| 26條 紛爭 解決 | 當事者 協議 原則 필요시 北韓內 또는 第3國 仲裁機關에 依賴 可能 | |

資料 : 국토통일원

2. 合營推進

北韓이 지난 5년간 外國으로부터 資本 및 技術을 導入하기 위해 交渉한 事案들을 對象圈域別로 綜合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對共產圈 國家

共產圈 國家들을 對象으로 한 北韓의 合作投資交渉은 대부분 相互經濟科學

技術協力委員會나 科學技術協助常設委員會를 통해 合作投資나 技術導入을 포함한 經濟分野에서의 協力方案으로 推進돼 오고 있다.

北韓은 共產圈 國家들 가운데 특히 蘇聯과의 合作投資나 技術導入에 主眼을 두고 있는데, 이는 北韓의 産業體制가 주로 蘇聯型으로 構築되어 있는데 따른 現象인 것으로 分析된다.

蘇聯과는 87년 3월 國際會社 合作機關 創設 協定, 雙方 護當 企業所 및 機關들 사이의 生産力 및 科學技術의 연계를 맺는 節次에 관한 協定을 각각 條認한 것을 계기로 合作企業이나 合營工場 設立이 활발히 推進되고 있다.

蘇聯과 合作이 推進된 對象은 다시마와 미역 등 淺海양식, 共同生産企業所 漁撈技術 및 機資材 交流 등 漁業共同企業所가 設立되었으며, 또한 희천 工作機械 工場과 고기리 工作機械 工場間的 合營工場 및 會社가 각각 設立됐다.

蘇聯연해주와 하바로프스크 등 원동지역과 北韓間 被服, 建設, 農業分野에서의 合作이 활발히 推進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最近에는 輕工業製品生産分野에서 北韓이 蘇聯으로부터 原料, 設備를 提供받고, 生産된 製品을 다시 蘇聯으로 納入하는 相計買入(Product buy-back) 방식의 經濟協력이 增大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中國과는 종래의 水力資源의 共同利用開發과 관련한 압록강 水力發電會社를 運營해오고 있는데, 87년 태평灣 水力發電所를 완공했으며, 現在는 위원 水力發電所 建設 마무리에 注力하고 있다.

또한 最近들어서는 合作規模는 작지만 서비스업 部門에서 合作이 推進되어 1987년 12월 中國과 合作經營方式으로 北京에 평양냉면관을 開業했고, 또한 中共 延길市와 함경북도間에 合作으로 <도문강 식당> (80만달러 投資規模) 設立을 合意, 北韓政權樹立日(9.9節)을 계기로 開業할 豫定으로 전해졌다.

北韓은 中共, 蘇聯 이외의 다른 共產圈 國家들과도 활발히 合作을 推進해 오고 있는데 지난 6월 김일성의 몽고 誘問을 계기로 이 나라와 炭鑛開發

과 酪農分野에서의 合作을 積極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東歐共產圈 國家들 가운데 폴란드와는 航空, 金屬, 機械工業 및 유리 生産 分野에서의 技術支援과 船舶修理工場 合作事業이, 체코와는 鈔造工場 合作 建設을, 불가리아와도 地質探査, 有色金屬工業 部門에서의 合作이 協議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 구체적 內容이나 推進與否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2) 對 第3世界 國家

北韓은 특히 아프리카 國家들과의 南南協助의 強化를 내세워 經濟協力이나 貿易增大에 注力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 나라와의 資源共同開發合作工場設立을 활발히 推進하고 있다.

北韓은 지난 85년 3월 부르키나파소와 金鑛開發을 위한 2백만달러 投資規模의 合作會社 設立協定을 締結한 것을 계기로 資源部門의 合作事業 進출을 두드러지고 있다.

現在 단자니아와 크롬, 니켈, 망간 등 鑛物資源 開發과 함께 農業合作 協定(87.3)條認으로 이 나라의 투피니 沿岸(5만ha), 빅토리아 湖水 周邊(20만ha) 開發合作事業이 推進되고 있다.

또한 北韓은 시에라레온과 플라스틱 製品生産 合作을 비롯해 英屬마통고필드地域 金鑛石 開發 合作, 農業分野 合作推進을 위해 적극적인 進출을 하고 있으며, 자이레와는 砂金採取 合作 海運會社 設立이 적극적으로 推進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 對 西方圈 國家

北韓 經濟는 技術水準의 급속한 向上, 產業構造의 高度化, 人民大衆 生活의 豊요를 위하여, 또한 國際的 地位向上을 위하여 對外開放을 加速化하고 있다. 특히 北韓은 西方 資本主義 國家들로부터의 資本 및 先進施設과 技術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와의 經濟關係 設定이나 이렇다할

合作實績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北韓의 對西方 合作實績이 이처럼 不振한 것은 內的, 外的 要因에 起因한다.4) 內的인 要因으로는 北韓 指導層에서 經濟的 開放으로 中國과 같이 대규모 政治的 改革을 요구하는 行위가 誘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함으로써 보다 開放的인 對外經濟開放政策을 留保하고 있는 것이다. 外的인 要因으로는 西方企業들이 投資 收益性 保障의 불확실성, 諸般法規 등 投資與件의 未備, 北韓 經濟管理體制의 硬直性 및 經營管理 能力問題, 그리고 對內市場 狹小 등의 理由를 들어 投資를 꺼린다. 즉 狹小한 國內市場, 延滯된 外債償還, 그리고 計劃經濟體制 등 私有資本과는 相 되는 環境與件을 갖고 있다. 그러나 最近에는 工作機械工業, 電子自動化工業 및 輕工業의 革新을 위한 北韓의 노력은 對外經濟交流面에서도 나타난다. 한 例로 北韓은 79년부터 最近까지 유엔開發計劃(UNDP)으로부터 여러 分野에 걸쳐 2천7백만 달러의 支援을 받았는데 그중 平域半導體試驗工場(집적회로 開發·生産 注力), 電力部門, 의류디자인, 통신기술부문 등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北韓은 지난 84년 合營法 공포 이후 이들 나라를 대상으로 활발히 合作 交渉을 벌였지만 그 실적은 프랑스의 콩페능 베르나르 건설회사와 48층 규모의 양각도 호텔 건립에 합의한 것 이외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지고 있다. 이 프랑스와의 양각도 호텔 合作建設도 87년 完工目標이었으나 現在 2層 정도의 工程에 머물러 不振한 進涉을 보여주고 있다.5) 이와같이 미비한 理由의 하나는 1985년 3월에 공포한 合營法 施行細則이 까다로와 合營會社 理事會의 決定이 재적이사진의 滿場一致를 要求했기 때문이다.6)

4) 김인준, “經濟交流, 實利次元이 아니다”, 月刊朝鮮, 1989.4, p.374.

5) 北韓 研究所, 「北韓總覽 1983년-1985년」, 1986. p.70.

6) Chin Kim, “North Korean Joint Venture Law”, California Western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19, No.2, 1988-1989. P.206.

그러나 北韓은 그간 日本, 홍콩, 泰國, 印度, 호주, 프랑스, 西獨,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과 1백여건에 달하는 合作投資 교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주요 교섭내용을 보면 프랑스와 양각도 호텔 건립을 비롯해 술·음료수 合作工場을, 泰國과는 캔공장 合作을, 홍콩과는 타이어공장 合作을 교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地理적으로 유리한 日本과는 무려 40여건에 달하는 合作對象을 교섭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⁷⁾

특히, 87년 北韓이 日本에 提議한 合作投資對外 內容을 보면 컬러TV브라운관 공장(년간 40만대 규모), 연, 아연등의 동제련 설비시설(년간 20만톤 규모), 토마토 주스 공장(년간 20만톤 규모), 어패류 가공 수출 공장, 원산과 금강산에 각각 수용능력 1천명 규모의 호텔 建設 등을 提案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 對象이나 規模面에서 볼때 日本과의 合作에 北韓이 主眼을 두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西方側과의 合營實績이 不振하자 北韓은 1986년 8월경 조총련과 공동으로 國際合營 總會社⁸⁾를 設立해 조총련계 商工人들과 合作하여 北韓에 필요한 產業에 投資하도록 되어 하였다. 國際合營總會社는 設立 후 1년동안은 적지않은 業績을 남겼다. 1987년 11월에 있는 理事會 報告에 의하면 運營 첫해 동안에 15개의 合營회사를 설립했고, 다음해인 1988년에는 36개를 더 세울

7) 日本은 아시아 地域의 安定을 增進하기 위해 中國 및 蘇聯과 함께 北韓에 經濟援助를 提供해야 한다는 主張이 1989년 6월 20일 東京에서 열리고 있는 포럼 日本會議에서 提起되었다. 中央日報, 1989.6.21.

8) 이 會社는 物件을 生産하는 企業이 아니라 朝總聯 同胞의 對北投資를 더욱 促進하기 위한 政府機關이다. 그러한 事業을 效率性있게 하기 위하여 北韓은 조총련을 국제합영총회사의 同伴者로써, 形式上 1백 20만달러인 會社 資本金의 半을 조총련이 出資했고 副會長 자리 둘중 하나를 조총련 간부가 맡았다.

이희상, 北韓의 經濟開放 努力과 展望, 國土統一院, 1989. pp.3-26.

계획으로 되어 있다.9) 그렇게 設立된 會社 중 成功한 事業은 1987년 4월에 세운 운산합영청년광산이다.10)

1988년 11월 26일 정무원 안에 합영공업부를 新設하여 既存의 對外經濟事業部에서 分離, 獨立시켜 本格的으로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北韓 - 朝總聯合營事業에서도 人民 消費品 生産增大를 위한 輕工業 部分과 電子自動化工業部分에 力點을 두고 있다. 88년 11월에 新設된 정무원 산하 합영공업부의 김성환 부부장이 최근 일본 취재진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1백여 합영사, 평양 포장제합영사, 그리고 北韓. 조총련의 대표적 합영사업, 모란봉 합영회사 등이 눈에 띈다.

1989년 2월에 설립된 신흥합영회사는 北韓에서 합영에 의한 최초의 電子製品 專門生産業體인데 조총련계의 신진회사가 投資參與, 東京 해바라기상사와 해서무역회사가 별도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이 會社는 자전거, 오토바이류 전자계산기, 컬러 TV, 녹음기, VTR, 통신기기, 축전기구등 家電製品을 生産할 豫定이다. 특히 이 會社는 조총련계 投資家들에게 合營業體의 100%所有를 許容하기 시작한 것이다.11)

명진합영회사는 電子醫療器具 專門生産業體로 北韓 保健部 산하의 醫療器具 聯合會社와 朝總關係의 풍영상사가 參與했다. 이 會社는 주로 심전계를 비롯 초음파진단기, 위내시경 뇌과기 등 現代의인 醫療器具 生産과 醫療情報處理를 위한 컴퓨터와 프로그램 開發事業을 推進할 豫定이다.12)

89년 4월에 操業을 시작한 함흥 화학합영공장은 조총련 商工人聯合會와 系

9) The People's Korea, December 5, 1987.

10) 金鑛山인데 1988년 5월까지 40톤의 金을 生産했다는 報道가 있다. 現時 價로 보면 1년에 약 3억 7천 6백만달러의 外貨獲得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North Korea Quarterly, NOS, 52-52, Spring-summer 1988. p.11.

11) North Korea News, No.465, March 6, 1989. p.3.

12) Vantage Point, Vol. 12, No.5, May 1989. p.23.

列商工人의 共同投資에 의한 것으로 各種 地下資源 開發과 金屬·化學·電子 自動化工業用 素材生産 業體이다. 평양실크합영회사는 北韓의 비단상사가 생사·견직물 등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건물, 설비 등에 투자하고 조총련계의 경도상공주식회사가 자동조사기 2세트, 직기 30세트, 전공정의 부속설비, 가공기계 등을 現物로 出資하는 形式으로 88년 9월 設立했다. 이 會社는 年間 수십만 미터의 실크 천과 수백톤의 실크사를 生産할 수 있는 광목 견직기와 자동조사기, 합사기, 연사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生産製品의 대부분을 輸出하기로 합의했다.

86년 12월에 設立된 모란봉합영회사는 北韓의 은하무역회사가 合營한 것으로 연간 20만벌의 남성 기성복을 生産하는 대동강 피복 공장과 최신 설비를 갖춰 現代의 美에 맞는 다양한 의류(신사복, 점퍼, 블라우스, 원피스) 생산에 주력하는 동대원 피복공장을 運營하고 있다. 이 두 工場은 연간 40만벌의 生産能力을 整備하고 있으며, 現在 原料를 日本에서 들여와 全製品을 試驗적으로 輸出하고 있다.

평양포장재합영회사는 กล้วย지 전문생산업체로 평양식료연합기업소와 조총련계의 서동경상사가 1989년 4월 設立했다. 종이합판 설비 및 가공설비를 갖추고 제·절단·인쇄·칠심봉재 등 포장 전과정을 처리하는 輸出用 包裝材生産 專門會社이다.

한편 美國 商務省은 최근 對北韓 輸出規制規程을 一部 改正內容, 基本的人道的 商品의 對北韓 商業輸出을 許容했다. 美商務省의 이번 關係規程改正內容을 살펴보면 작년 10월 美國務省이 對北韓 輸出에 許容된 人道的 品目は 醫療器機 醫藥品 建築資材 手工具 農產物 種子 衣類 教育機資材 등이며 輸出節次에 있어서는 一般的인 對共產圈國家와 같이 特別檢査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北韓에 대해 人道的 物資의 寄贈만을 許容해온 美國이 制限的이나마 商業베이스에 의한 交易을 許容, 美國과 北韓의 交易이 可視化되

는 길을 열어 놓았다.13)

최근 北韓當局은 在美僑胞와 高麗商業銀行, 金剛山 國際貿易開發會社, 金剛山 國際觀光會社 등 3개 合營會社의 設立을 認可했다고 發表했다. 이는 朝總聯系 在日僑胞에게 집중되었던 合作投資對象을 多樣化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14) 또한 世界青年學生祝典이 열렸던 능라도 경기장 외 10개 경기장과 평양 보통강가 市場 언덕에 세우고 있는 105층짜리 유경호텔의 建設 등으로 상당히 對外競爭力있는 建築技術을 갖고 있음을 對外에 과시하고 있다. 그 예로 인도양 위성망과 연결된 國際衛星通信地球局의 設置 등이 있다.

13) 商務省의 이번 措置로 美國의 對北韓 交流는 民間次元의 人的交流를 넘어 物資交流로까지 擴大되게 됐으나 美國과 北韓의 交易이 當장 大規模로 이뤄질것 같지는 않다. 또한 北韓으로부터의 輸出入 관해서는 美商務省이 아직 아무런 細部節次를 밝히고 있지 않아 北韓으로부터의 輸入이 가까운 將來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4) 서울經濟新聞, 1989.1.31.

IV. 北韓의 對外經濟 構造와 變化

國土統一院이 89년 9월 9일에 발표한 「88년도 北韓經濟 綜合評價」에 따르면 88년도 北韓의 貿易高는 87년도보다 19.4%가 增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北韓의 對外交易 偏重實態를 보면, 우선 對中蘇交易關係가 絶對的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社會主義國家들이 택하는 要因에서 起因된다. 즉 그것은 公正하고 均衡된 貿易을 보장하고, 節次나 方法이 간편함과 동시에 公信力있는 外換의 保有 없이도 去來가 可能할 뿐만 아니라 國際競爭力에 關係없이 輸出을 가능케 하기에 北韓은 이와같은 方法에 의한 交易을 할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中蘇가 北韓에 대해 地理的,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支配力을 크게 갖게 되었던 것이다.¹⁾

87년도 北韓貿易高를 통한 中蘇와의 交易比重度는 蘇聯이 總貿易高 35 달러 가운데 19억달러 상당으로 55%를, 中共이 5억달러 상당으로 15%를 占有, 이들 두나라가 全體交易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1. 北韓의 輸出入構造

北韓 總輸出額中 蘇聯, 中國, 日本과의 輸出이 차지하는 比重이 90%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 3개국에 대한 輸出依存도가 몹시 높아 輸出對象國의 脆弱性を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 특히 1987년 北韓의 主要輸出部門은 SITC 大分類로는 6(材料別: 34.3%), 2(非食用 原材料: 17.5%), 8(雜製品: 20.8%) 등으로 나타나고, SITC 中分類로는 67(철 및 동 20.8

1) Wiliczynski, op. cit., pp.204-205.

%), 84 (의류: 14.7%), 27 (비금속물: 13.6%), 68 (비철금속: 6.8%), 3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6.2%), 32 (석탄, 코크스 및 연탄: 5.6%), 77 (전기 기계장치: 5.3%), 66 (비금속 광물제품: 5.1%), 4 (곡식 및 곡식가공품: 4.6%) 등으로 나타난다. 主要輸出部門을 國家別로 보면, 철 및 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特定國家에 대한 依存도가 매우 높다. 예컨대 곡식 및 곡식가공품, 커피, 차, 코코아, 향신료 및 同製品, 전기기계장치 및 전기부속품 등의 부문은 對蘇依存도가 높고, 석탄, 코크스 및 연탄 등의 부문은 對中依存도가, 물고기, 갑각류 및 냉동식품과 비철금속 등의 부문은 對日依存도가 높다.

따라서 北韓의 對象國別 主要輸出商品을 보면, 蘇聯에 대한 主要輸出商品으로는 금, 마그네사 크링커, 외투 및 의복, 압연강재, 쌀 등이며, 中國에 대한 主要輸出商品으로는 금, 비금속광물, 석탄 및 연탄, 철광, 금속성광물, 수산물, 비철금속, 비료 등이며, 日本에 대한 主要輸出商品으로는 農產物(버섯, 야채 등) 마그네사 크링커, 금, 아연피, 철강코일 등이다.

北韓이 締結한 各國과의 交易議定書에 나타난 主要輸出商品은 연·아연·흑연·마그네사 크링커·금 등 광산물과 선철·강철 등 금속제품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으로는 農產物·水產物이 차지하고 있다.²⁾

輸出商品中 工產品으로는 공작기계류·공구류·전동기·시멘트 등이 있지만 이들 製品の 性能과 質이 낮나 주로 아프리카·中東·東南亞 後進國에 輸出하고 있는 정도이다.

2) 최근 北韓은 운산합영청년광산에서 채굴되는 金の 量이 상당한 水準으로 알려져 있다. 金鑛山인데 1988년 5월까지 40톤의 金を 生産했다는 報道가 있다. 現市價로 보면 1년에 약 3억7천6백만 달러의 外貨 獲得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7년 北韓의 輸出商品構造를 살펴보면 工產品이 62%이고 나머지는 鑛産物과 水産物을 비롯한 1次産品에 依存하고 있다. 예컨대 蘇聯과 日本에 대한 北韓의 主要輸出商品이 金屬 및 철강제품과 각종 원광석, 마그네샤크링카, 석탄, 시멘트, 금 등으로서 鑛物資源이 대중을 이루고 그의 農水産物, 纖維類가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對外經濟開放化에 힘입어, 88년도 北韓의 輸出은 87년도보다 무려 30.5%나 增加했다. 특히 輸出을 늘리는 基本方向으로 加工工業을 發展시켜 完製品, 加工品의 輸出比重을 높여 나가고 새로운 輸出源泉을 開發하기 위해 全力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輸出을 늘리기 위한 諸般事業으로 現代化한 輸出品生産基地와 輸送體系의 改善에 總力を 기울이고 있다.³⁾

北韓의 主要輸入部門은 SITC 大分類로는 3 (광물성 연료: 34.4%), 7 (기계 및 운수장비: 27.2%), 6 (재료별 제조제품: 15.6%) 등으로 나타나고, SITC 中分類로는 33 (석유 및 석유제품: 24.8%), 32 (석탄, 코크스 및 연탄: 12.7%), 65 (제사제품: 5.8%), 4 (곡식 및 곡식가공품: 5.3%), 72 (특수 기계 및 농업용기계: 5.1%), 26 (제사 및 그 부스러기: 4.8%) 등으로 나타난다. 主要輸入部門을 國家別로 보면 部門에 따라 特定國家에의 依存도가 높게 나타나는 現象은 輸出의 경우처럼 현저하지는 않다. 이는 他國家에 대한 依存도를 낮게 함으로써, 主體思想에 입각한 自立經濟의 路線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輸入商品構造는 석유 코크스 크롬 알미늄 핏치 생고무 면화 사탕 등 北韓에서는 전혀 生産되지 않거나 生産된다 해도 극히 적게 生産되는 原資材와 各種 機械類, 電氣 및 電子製品, 通信裝備, 各種 플랜트가 主種을 이루고 있다. 즉, 機械設備 등의 資本財와 그외에 전기제품

3) 김달현, 「對外貿易을 發展시키는 것은 社會主義 經濟建設을 위한 重要的 擔保」, 근로자 1989년 2월호, pp.61-65.

및 일용잡화 화학제품 금속제품 등의 完製品이 약 57%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農産物과 鑛産物은 각각 6.4%, 36.6%의 輸入構造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對象國別 主要輸入商品을 보면, 蘇聯에 대한 主要輸入商品으로는 原油 및 石油製品, 機械設備, 送送機械, 固體燃料, 小麥, 麵粉 등이며, 中國에 대한 主要輸入商品으로는 石油, 鑛物性 燃料, 農機械, 肥料, 化學藥, 산업용기계, 유기화학물질 등이며, 日本에 대한 主要輸入商品으로는 코우크스, 농약, 타이어 및 튜브, 섬유제품, 철광제품, 수송기계, TV수상기 등이다. 그결과 88년도 北韓의 輸入은 87년도보다 16.4%의 증가를 기록했다. 이와같은 輸出 輸入 構造에서 北韓은 對外貿易을 더욱 擴大發展시키는 方法으로 輸出增大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즉, 輸出을 늘려야 그만큼의 經濟建設과 人民生活에 필요한 原料와 資材, 設備들을 適時에 提供할 수 있고, 輸出을 늘리는 것이 輸入과 輸出의 均衡을 올바르게 보장하며 輸入源泉을 많이 造成하는데 매우 重要한 意義를 갖는다고 主張하고 있다.4)

2. 最近 北韓의 貿易動向

北韓의 貿易實績 및 收支面도 지난 77년 14억 5천만\$ 규모의 무역고가 2차 7개년 경제계획 기간중 10%가량의 신장률로 증가했지만 수출입불균형으로 인해 10억 9천만달러 가량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차 7개년 계획기간 종료 이후 85-86년 2년간의 보완기간중 85년 32억 7천만달러, 86년 36억달러를 기록, 무역고 신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기간중 무역수지적자는 7억 1천만달러로 단기간 적자폭이 가속화 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87년 무역실적도 40억 5천만달러 규모이지만 적자폭이 7억 3천만달러 규모에 이르러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결

4) 上揭書.

과 北韓은 88년도 무역고는 19.4% 증가한 51.5억달러를 기록하고, 무역수지 적자는 11.7억달러를 나타냈다.

이같이 최근 3년간 北韓의 무역실적이 지난 2차 7개년 계획기간에 비해 그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85년부터 소련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北韓과 소련과의 교역은 86년 2월의 장기무역협정체결과 소련의 시베리아개발과 관련한 보상무역의 범위 확대 등으로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중 소련과의 교역은 85년의 9억달러 규모에서 87년 중에는 수출 6억 83백만달러, 수입 12억 65백만달러로 총교역액이 약 20억달러로 크게 신장하고 있으며 이는 北韓의 대외 총교역액의 55%를 점하고 있다. 무역수지면에서도 경제건설에 따른 설비도입 증대로 5억달러 가량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그결과 88년도 北韓의 외채가 87년도보다 9% 증가한 52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현재 北韓이 교역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를 보면 北韓은 중소를 비롯한 1백여 국가와 무역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北韓이 일정기간 정부간 무역협정을 토대로 교역을 하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공산권 국가들인데 특히 이들 공산권 국가들과는 5년간의 무역협정을 체결해 장기적인 통상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北韓과 86-90, 87-91년간의 장기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 소련, 체코, 중공, 동독, 폴란드, 알바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쿠바, 몽고, 불가리아 등 13개국에 이르고 있고 공산권 국가중 유일하게 유고와는 상호경제 과학 기술위원회를 통해 北韓과 통상문제를 협력 오고 있다.

비공산권 국가로서 北韓과 정부간 통상협정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간다, 에디오피아, 이란, 방글라데시, 이집트, 태국, 가나, 남예멘 등 8개국이다.

정부간 통상협정에 의한 교역 이외에도 상호 공동위원회 또는 경제협력위를 통해서 교역 및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은 탄자니아, 파키스

탄, 세네갈, 앙골라, 짐바브웨이, 기니, 중앙아, 니카라과, 자이레, 시에라레온, 가이아나, 마다가스칼, 부르키나파소, 모잠비크, 카메룬 등 15개국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대외 경제협력 부문이 소련 등 공산권국가, 제 3세계국가들에 편중되어 있고 서방과의 교류관계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北韓은 그들의 실질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대서방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교역은 1963년 2월 「일, 조상품거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후 본격화 되었으나, 74년 北韓의 외채문제로 급격히 둔화되었다가 79년 대 일본 외채상환 연기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증가추이를 보여 87년 현재 양국간의 교역액은 北韓의 13%에 달하는 4억 54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현행 3차 7개년 경제계획기간동안(87-89) 중전에 비해 무역고를 3.2배 신장시킨다는 계획 아래 대외무역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北韓당국에 의하면 대외무역확대를 위해서 현재 가공제품, 공작기계, 중형화차, 선박, 전기기계, 농기계, 등 기계설비류, 비철금속 수출 5배 이상, 마그네사크링커 수출 2배 이상 등 광산물, 피복가공제품, 신발, 도자기류, 유리제품, 범랑칠기, 수지, 일용품 등 경공업제품, 농수산물 등의 수출 증대와 수출품 생산기지건설에 대한 세부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의 실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교역기반 강화를 위해서 외국과의 합작과 합영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北韓이 이미 형성해 놓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커다란 잠재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세계수준으로 높이는 데서 주요한 의의가 있다고 1988년 9.9절 행사에서 김일성은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외경제부문에서는 다른나라들과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가며 합영, 합작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널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北韓이 이와같이 대외경제개방을 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1988년 약

52억달러 상단에 이르는 외채압박 아래서 강행하고 있는 3차 7개년 경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과 기술도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北韓이 비철금속 5배 및 마그네사클링커 2배 수출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광산물 수출에 큰 비중을 두고 있고 또한 공작기계 중형차와 전기기계 등 기계설비의 수출증대를 극대화 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수출주력상품의 수출극대화와 수출상품의 다양화로 외화획득과 외화가득율을 높히려는 의도가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교역기반 강화를 위해 외국과 합작 및 합영 기술협력을 폭넓게 전개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도 교역증대를 통해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88년 北韓의 무역고가 87년에 비해 19.4%나 증가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주년 경축보고대회에서 김일성은 北韓의 自主權을 존중하는 資本主義 나라들과도 善隣友好關係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즉 공화국 정부는 국교관계가 없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平等과 相互尊重의 原則에서 經濟技術的 協助와 文化的 交流를 발전시키며 이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³⁾ 따라서 최근의 다보스 국제경제회의에서 北韓의 채희정 합영공업부장이 서방측 경제관계인사들에게 행한 北韓의 대외개방정책 설명에서 北韓은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와의 합영사업엔 문호를 개방하여 이들의 투자를 환영하고 제도적 지원장치도 마련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나 北韓에 비우호적인 국가인 미국과 일본은 합영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국과 경제교류하기에는 서로의 조건이 맞지않고 팀스피리트 등으로 분

3) 로동신문, 1988.9.9

위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⁴⁾ 그러나 최근 前 백악관 東아시아 태평양 擔當 次官補였던 시거의 北韓 방문에서 보면 北韓은 美國과의 交易增大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기서 北韓의 經營法은 南北韓의 間接交流時에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예를들면 미국국적을 갖고있는 한국인의 회사를 통해 남한의 상품이 北韓으로 유입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합작 공동개발사업에 남한의 자본이 투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4) 이는 대외경제개방을 확정했던 1987년부터 이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한 중국처럼 1989년 北韓의 다보스회의 참석은 北韓이 대외경제개방화로 경제정책의 노선을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한국과 교류에 문호를 개방할 정도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北韓의 대외경제개방은 이중적이고 양면성을 지닌 유동적인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임병준, “南北韓 經濟交流에 생각한다”, 전경련, 1989.2, pp.3-5.

V. 北韓의 對外競爭力

南北韓 直接交易의 可能性이 높아감에 따라 北韓의 輸出入 商品構造와 主力 輸出商品의 對外競爭力의 分析 把握이 시급히 要請되고 있다. 現在 北韓에서는 體系的인 貿易統計를 發表하지 않고 있으므로 北韓의 輸出入 商品構造와 對外競爭力을 알기 위해서는 北韓의 貿易相對國에서 發表하는 貿易統計를 통해 接近하는 間接的인 方法을 취할 수 밖에 없다. 本 論文에서는 資料의 制約으로 北韓과 交易比重度가 높은 日本, 蘇聯, 中國만을 對象으로 하여 北韓의 1987 年度 輸出의 商品構造 및 對外競爭力을 分析하였다.

分析方法으로는 一般的으로 對外競爭力을 評價하는 方法으로서 貿易特化指數를 使用했다.

$$\text{貿易特化指數} = \frac{X_{ij} - M_{ij}}{X_{ij} + M_{ij}} = \frac{X_i - M_i}{X_i + M_i}$$

X_{ij} = j 國에 대한 i 商品 輸出

M_{ij} = j 國으로 부터 i 商品 輸入

이 算式으로부터 算出된 指數가

1 ~ 0.9 이면 完全輸出特化이며,

0 以上이면 輸出特化,

0 以下이면 輸入特化,

-0.9 ~ -1 이면 完全輸入特化를 意味한다.

本 論文에서는 國際通貨基金(IMF)의 貿易統計資料集인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DOTS 에서 使用하고 있는 方法을 따랐다. 이 方法은 C.I.F

價格과 F.O.B價格間的 差異를 除去하기 위해 貿易對象國의 對北韓 輸出入과 同輸出額에 각각 1.1을 곱해 北韓의 輸出額과 輸入額을 把握하는 方法을 말한다. 즉 北韓의 貿易相對國이 發表한 輸出額(f.o.b)에 1.1을 곱한 것이 北韓의 輸入額이 되며, 貿易相對國 發表 輸入額(c.i.f)을 1.1로 나눈것이 北韓의 輸出額이 된다.

또한 日本을 除外한 蘇聯과 中國地域의 統計는 自國貨幣單位基準으로 되어 있으므로 1987년 年平均換率을 適用하여 달러로 換算하였다.(1달러 : 0.627 루블 : 3.7221元) 특히 蘇聯의 경우 SITC가 아닌 '統一商品分類'로 統計가 作成되어 있어 이를 SITC別로 調整하였다.

資料出處로는 國土統一院의 資料, IMF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1988), OECD Statistics of Foreign Trade, 日本貿易振興會의 北朝鮮 經濟貿易 展望, 中國海關統計, Veneshnaya Torgovlya USSR, Hong Kong Trade Statistics, Singapore Trade Statistics, UN의 國際貿易 統計年鑑 등이다.

1. 北韓의 對日本 輸出入商品의 競爭力

日本-北韓간의 貿易이 本格的으로 推進되기 시작한 것을 1963년 2月 日本의 日朝貿易協會와 北韓의 國際貿易促進委員會間에 '商品去來에 관한 協定'과 '一般條件'이 締結되면서부터 었다. 특히 1970년대初에 北韓이 對西方貿易을 크게 增大시키게 되면서 日本과 北韓間 貿易은 이와 같은 協定을 바탕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北韓이 外債問題가 發生하면서 日本-北韓間的 貿易規模는 급격히 떨어졌으며, 그후 3-4年間的 沈滯期를 거쳐 1979年에 對日本 外債償還延期 交渉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增大되어 1980年代에 4-5억달러 水準에서 머물렀다.

1980년대에는 外債問題 외에도 1983년의 버마랭군 폭탄테러사건, 1987년의 KAL기 폭파사건 등으로 日本과 北韓間的 交易環境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貿易規模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一定한 水準을 維持하고 있는 것은 日本-北韓間的 交易 대부분이 日本內 朝總聯系 商社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87년부터는 在日 朝總聯系 商社와 北韓과의 合營企業 設立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日本으로부터의 機械, 設備 導入과 合營企業生産品의 對日輸出이 增大하고 있다.

日本 貿易振興會의 貿易統計와 國土統一院이 發表한 北韓 貿易統計를 利用하여 SITC 2單位 基準으로 貿易特化指數를 구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表 5-1〉 北韓의 對日本 輸出入特化品目數

| SITC | 總品目數 | 完全輸出特化 | 輸出特化 | 輸入特化 | 完全輸入特化 |
|------|------|--------|------|------|--------|
| 0 | 9 | 2 | 1 | 1 | 5 |
| 1 | 2 | | | 1 | 1 |
| 2 | 7 | 2 | 2 | 1 | 2 |
| 3 | 2 | | 2 | | |
| 4 | 3 | | | | 3 |
| 5 | 8 | | 2 | 1 | 5 |
| 6 | 9 | | 2 | 1 | 6 |
| 7 | 9 | | | 1 | 9 |
| 8 | 8 | | | 2 | 6 |
| 9 | 1 | | 1 | | |
| 合計 | 58 | 4 | 10 | 7 | 35 |

總 58 個의 商品그룹中에서 輸出特化品目數는 10 개이고, 특히 完全 輸出特化品目數는 4 개에 불과해 北韓의 對外競爭力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對外競爭力이 있는 輸出商品으로는 식품 및 主要 食糧産 동물 (SITC 0),

연료를 제외한 비식용 원자재 (SITC 2)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 (SITC 3), 화학물 및 관련제품 (SITC 5), 재료별 제조제품 (SITC 6), 달리 분류되지 않은 雜製品 (SITC 9)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음료 및 담배 (SITC 1),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SITC 4), 기계 및 수송장비 (SITC 7) 잡제품 (SITC 8) 등에서는 對外競爭力이 취약한 것으로 分析되었다.

〈表 5 - 2〉 北韓의 對日本 輸出入特化商品

| SITC | 完全輸出特化品目 | 輸出特化品目 | 完全輸出特化品目 | 輸入特化品目 |
|------|----------|--------|----------------------------|--------|
| 0 | 03,05 | 08 | 01,02,04,06,07 | 09 |
| 1 | | | 12 | 11 |
| 2 | 27,29 | 24,26 | 23,25 | 28 |
| 3 | | 32,33 | 41 | |
| 4 | | | 41,42,43 | |
| 5 | | 55,56 | 51,52,53,58,59 | 54 |
| 6 | | 67,68 | 61,62,63,64,66,69 | 65 |
| 7 | | | 71,72,73,74,75,76,77,78,79 | |
| 8 | | | 81,82,84,85,87,88 | 83,89 |
| 9 | | | | |

北韓의 對日 輸出商品의 競爭力을 SITC 2 單位別로 分析해 본 結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貿易特化指數上으로 對外競爭力이 있는 商品그룹은 식품 및 주로 식용산 동물류에서 물고기, 갑각류 및 연체동물과 조제물 (SITC 03), 야채 및 과일 (SITC 05) 등이고, 비식용 원재료류 중에서 미가공광물 (SITC 2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가공 동식물성 물질 (SITC 29) 등이다.

輸出特化商品으로는 동물사료 (SITC 08), 콜크 및 나무 (SITC 24), 섬유

및 그 부스러기 (SITC 26), 석탄, 코크 및 연탄 (SITC 32), 정유 및 향료: 화장품, 광택제 및 세척제 (SITC 55), 제조비료 (SITC 56), 철 및 강 (SITC 67), 비철금속 (SITC 68) 등이 분석되었다.

따라서 本 分析에 의하면, 主要 對日本 輸出品目은 약 200여종에 달하는데, 鑛產物, 農水產物, 鐵鋼製品 등 1次產品이 많은 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87년의 경우 금, 아연피, 연피, 철강코일, 송이버섯, 게 등 6개 품목이 전체 輸出額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54.2%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在日 朝總聯과 北韓과의 合營事業에 의한 水產物 1次加工品, 纖維製品 등의 對日輸出이 늘어나는 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고로 北韓의 對日本 輸出商品面에서 보면, 全般的으로 輸出을 위한 商品이 매우 미천한 것으로 특히 천연자원류에 집중되고 있음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즉 分析上 對日 輸出商品構造의 脆弱性이 나타났으나, 最近 合營의 活性化에 따라 對日 輸出商品이 多樣化해 가고 있는 추세다.

SITC 2單位別로 對日 輸入商品을 分析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식품 및 주로 식용산 동물류에서 고기 및 고기조제품 (SITC 01), 낙농품 및 새알 (SITC 02), 곡식 및 곡식 가공품 (SITC 04), 설탕, 설탕조제품 및 벌꿀 (SITC 06), 커피, 차, 코코아, 향신료 및 동제품 (SITC 07) 등이며, 음료 및 담배에서도 담배 및 담배제품 (SITC 12) 등의 輸入에 크게 의존한다. 비식용 원재료류에서는 생고무 (합성 및 재생고무 포함) (SITC 23), 펄프 및 폐지 (SITC 25) 등이고,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류에서는 동물성 유지 (SITC 41), 불휘발성 식물성 유지 (SITC 42), 동식물성 유지 처리한 것 및 동식물성 왁스 (SITC 43) 등의 輸入 의존도가 매우 높다.

특히 화학물 및 연관제품류, 재료별 조제품목류, 기계 및 운수장비류와 잡제품류에 대한 對日 輸入依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分析되었다. 즉 輸入依存도가 높은 完全輸入特化品目으로 分析된 것은 다음과 같다.

유기화학물 (SITC 51), 무기화학물 (SITC 52), 염료, 유연제 및 착색제 (SITC 53), 인조수지 및 플라스틱 및 섬유소 에스테르, 에테르 (SITC 58),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학물질 및 제품 (SITC 59), 가죽,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죽제품 및 손질모피 (SITC 6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고무제품 (SITC 62), 코르크 및 나무제품 (가구제외) (SITC 63), 종이, 판지 및 펄프, 종이 또는 판지의 제품 (SITC 6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소, 직물, 직물제품 및 관련제품 (SITC 69), 원동기기 및 설비 (SITC 71), 특수 농업용 기계 (SITC 72), 금속 공작용 기계 (SITC 73),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SITC 74), 사무용 기계 및 자동 자료처리장치 (SITC 75), 통신, 녹음 및 재생기기 (SITC 7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장치 및 기기와 동전기 부속품 (SITC 77), 도로 주행 차량 (SITC 78), 기타 수송장비 (SITC 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위생, 연관, 난방 조명장치 및 부착물 (SITC 81), 가구 및 그 부분품 (SITC 82), 의복제품 및 의복 부속품 (SITC 84), 신발 (SITC 8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통제기구 및 일반장치 (SITC 8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진장치, 장비, 비품 및 광학제품 휴대시계 및 콘시계 (SITC 88) 등으로 分析되었다.

그 외의 輸入特化品目으로 기타 식용제품 및 조제품 (SITC 09), 음료 (SITC 11), 금속성 광석 및 그 부스러기 (SITC 28), 의약품 및 의약제품 (SITC 5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사, 직물, 직물제품 및 연관제품 (SITC 65), 여행용품, 핸드백 및 유사용기 (SITC 8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잡제품 (SITC 89) 등이 分析되어, 이들 품목들의 輸入依存度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本 分析에 의하면, 主要 對日 輸入商品은 기계류, 전기기기, 수송기기, 화학제품 등 2차산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具體的인 品目別로는 타이어, 튜브, 판지, 철강, 냉동기기, 광산, 토목용 기계, 라디오, TV, 무선통신기기, 전력, 통신케이블, 승용차, 화물자동차, 정밀광학, 계측기기 등의 輸入依存度가 매

우 높게 나타났다.)¹⁾

以下에서 본 結果, 北韓과 日本의 輸出入 商品構造는 北韓이 北韓經濟開發計劃에 필요한 産業用 機械 및 電氣, 電子, 信, 製造業 및 工業製品의 對日 輸出에 크게 依存하고 있음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朝總聯 商社와의 활발한 合營事業으로 製造加工品の 輸出比重이 높아가는 趨勢이다.

2. 北韓의 對蘇聯 輸出入商品 競爭力 分析

北韓과 蘇聯의 貿易은 解放後 1960년대까지는 北韓의 貿易總額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나, 1970년대에는 北韓의 對西方 交易이 增大되면서 한때 23-25%水準까지 減少하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 蘇聯의 고르바초프 執權以後 雙方의 觀係가 긴밀해지면서 다시 急増하기 시작했다. 1989년 9월 3일 모스크바放送이 報道한 內容에 의하면 北韓은 지난 48년 9월 9일 政權創立 直後부터 蘇聯과 各種 經濟部門에서 긴밀한 協力關係를 維持, 현재 北韓의 年間 貿易高中 北-蘇貿易額이 차지하는 比重이 40%에 이르고 있으며 蘇聯의 支援으로 건설된 70여개의 企業들이 北韓經濟의 25%나 擔當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兩國間의 交易量은 최근 急速度로 增加해 86년-90년간 중에는 최소한 2배이상 신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같은 北-蘇間의 긴밀한 交易에서 나타난 輸出入商品을 基礎 Data로 하여, 北韓의 對蘇聯 輸出入商品의 對外競爭力을 분석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表 5-3, 5-4 참조>

-
- 1) 貨物自動車는 1982년의 경우 全體 輸入額의 10.2%까지 차지했었으나, 이들중 一部가 軍用으로 轉用되고 있다는 美國側의 通告가 있어 大型트럭의 輸出은 중단되고 있다. 또 COCOM(Coordinating Committee, 對共產產圈 輸出統制委員會)의 規制가 強化되고 있어, 電子器機를 利用한 一部器機, 設備의 輸出商談이 결렬되는 예가 종종 있어 왔다.

〈表 5 - 3〉 北韓의 對蘇聯 輸出入特化商品數

| SITC | 總品目數 | 完全輸出特化 | 輸出特化 | 輸入特化 | 完全輸入特化 |
|------|------|--------|------|------|--------|
| 0 | 10 | 1 | 1 | | |
| 1 | 2 | 1 | 1 | | |
| 2 | 7 | 1 | | | 3 |
| 3 | 2 | | | | 2 |
| 4 | | | | | |
| 5 | 7 | 1 | 1 | 1 | 4 |
| 6 | 8 | 1 | 2 | 2 | 2 |
| 7 | 9 | 1 | 1 | 1 | 5 |
| 8 | 7 | 2 | | 1 | 3 |
| 9 | | | 1 | | |
| 合計 | 52 | 8 | 5 | 5 | 19 |

〈表 5 - 4〉 北韓의 對蘇聯 輸出入特化品目

| SITC | 完全輸出特化品目 | 輸出特化品目 | 完全輸入特化品目 | 輸入特化品目 |
|------|----------|--------|----------------|--------|
| 0 | 05 | 04 | | |
| 1 | 12 | | 12 | 11 |
| 2 | 27 | | 25,26,28 | |
| 3 | | | 32,33 | |
| 4 | | | | |
| 5 | 52 | 58 | 51,53,54,56 | 55 |
| 6 | 66 | 67,69 | 64,68 | 65 |
| 7 | 77 | 79 | 71,72,74,76,78 | 73 |
| 8 | 84,85 | | 83,87,88 | 89 |
| 9 | | | | |

SITC 2 단위 기준으로 貿易特化指數를 구한 결과, 총 52개 商品 그룹中에서 輸出特化品目數는 7개이고 完全 輸出特化品目數는 8개에 불과해 北韓의 對外競爭力이 全般的으로 脆弱한 것으로 나타났다. 對外競爭力이 있는 商品그룹은 식품 및 주로 食用산 동물(SITC 0), 음료 및 담배(SITC 1), 비식용 원재료(SITC 2) 일부, 화학물 및 연관제품(SITC 5) 일부, 잡제품(SITC 8), 달리 분류되지 않은 商品 및 취급물(SITC 9) 일부 등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對外競爭力이 취약한 商品그룹은 비식용 원재료(SITC 2),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SITC 3), 화학물 및 연관제품(SITC 5), 재료별 제조제품(SITC 6),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 잡제품(SITC 8) 일부 등으로 분석되었다.

北韓의 對蘇聯 輸出商品의 對外競爭力을 SITC 2 단위별로 분석해보면, 完全 輸出特化品目으로 야채 및 과일(SITC 5), 담배 및 담배제품(SITC 12), 미가공 비료 및 미가공 광물(SITC 27), 무기화학물(SITC 5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성 광물제품(SITC 6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장치 및 기계와 동전기 부속품(SITC 77), 의복제품 및 의복 부속품(SITC 84), 신발(SITC 85)와 달리 분류되지 않은 商品 및 취급물 일부 등으로 나타났다.

輸出特化品目으로는 곡식 및 곡식 가공품(SITC 04), 인조수지 및 플라스틱 물질 및 섬유소 에스테르, 에테르(SITC 58), 철 및 강(SITC 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SITC 69), 기타 수송장비(SITC 79)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本 分析에 의하면, 主要 對蘇聯 輸出品目은 금, 마그네슘크링카, 의류, 압연강재, 기계설비 및 수송수단, 축전지, 금속절삭기계 및 단조 프레스설비등이고, 특히 금과 마그네슘크링카의 비중이 매우 높다. 또한 기계, 설비, 프레

스설비, 축전지, 압연강재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蘇聯이 北韓에 공장설비와 기술 등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생산품을 도입해가는 相計買入 (PRODUCT BUY-BACK) 방식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SITC 2 단위 기준으로 北韓의 對蘇聯 完全輸入特化品目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비식용 원재료(연료 제외)면에서는 펄프 및 폐지(SITC 25), 섬유 및 그 부스러기(SITC 28), 금속성 광석 및 금속 부스러기(SITC 28) 등이며, 광물성 연료, 운활유 및 관련 물질면에서는 석탄, 코크스 및 연탄(SITC 32), 석유, 석유제품 및 연관물질(SITC 33) 등이며, 화학물 및 연관제품면에서는 유기화학물(SITC 51), 염료, 유연제 및 착색제(SITC 53), 의약품 및 제약제품(SITC 54), 제조비료(SITC 56), 재료별 제조제품면에서는 종이, 판지 및 펄프, 종이 또는 판지의 제품(SITC 64), 비철금속(SITC 68) 등이며, 기계 및 운송장비면에서는 원동기 및 설비(SITC 71), 특수농업용 기계(SITC 72),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SITC 74), 통신, 녹음 및 재생기계(SITC 76), 도로주행차량(SITC 78) 등이며, 잡제품면에서는 여행용품, 핸드백 및 유사용기(SITC 8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통제기구 및 장치(SITC 8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진장치, 장비, 비품 및 광학용품, 휴대시계 및 큰시계(SITC 88) 등이다.

輸入特化品目으로는 정유 및 향료(화장품, 광택제 및 세척제)(SITC 5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사, 직물, 직물제품 및 연관제품(SITC 65), 금속 공작용 기계(SITC 7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잡제품(SITC 89) 등이 분석되었다.

따라서 本 分析에 의하면, 主要 對蘇聯 輸入品目은 원유 석유제품, 기계설비 운수수단, 제철공장설비, 항공기술, 면화, 직물류 등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원유의 輸出依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北韓의 對蘇 輸出入構造를 살펴보면 重化學工業에 필수적인 원유, 석유제품, 산업용 기계 및 운송장비의 對蘇 輸入依存度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産業構造上的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北韓-蘇聯間 輕工業分野 共同生産에 참여하는 北韓의 工場企業數가 1988년말 100개가 넘었으며, 이중 18개 공장은 봉제관련 공장으로 매달 의류 500만점 정도를 蘇聯으로 輸出하고, 신발도 연간 25만 켤레가 臨加工되어 蘇聯으로 輸出되었다.

이밖에도 北韓과 蘇聯은 원산, 남포 등지에서 소련선박 수리등 기존의 협력체제도 合營生産方式으로 전환해 가고 있으며, 蘇聯의 시베리아 開發과 관련해서도 이 地域에 蘇聯이 기계설비를 제공하고, 현재 北韓 勞働者가 參與(1986年末 18,000여명)하여 개발하고 있는 원목 생산량도 지금까지 보다 100만^{m³} 增大시키기로 合意한 바가 있다.

이처럼 北韓과 蘇聯間 共同生産形態의 經濟協力이 活氣를 띠고 있는 것은 北韓側으로서의 輸出增大로 인한 外貨獲得과 技術·設備導入에 따른 外貨負擔을 줄이면서, 住民生活向上을 위한 日用消費品の 質的 水準을 提高시키는 效果를 거둘 수 있는 동시에 蘇聯側으로서도 極東地域開發과 관련, 이 地域에서 所要되는 勞働者들의 생활필수품 등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서로의 利害關係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經濟協力は 向後 점차 增大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3. 北韓의 對中國 輸出入商品 競爭力 分析

韓國戰 以後 血盟關係를 유지해오고 있는 北韓과 中國과의 독특한 관계에 비추어, 양국간의 貿易量은 상당한 수준을 기록하여 왔다. 물론 국제정치 변화에 크게 좌우되어 對中 貿易量은 상당한 기복이 있었다.

北韓의 對中國 輸出品의 對外競爭力을 分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SITC 2 단위 기준으로 貿易特化指數를 구한 결과 총 57개 商品그룹 중에서 輸出特化品目數는 6개이고, 完全 輸出特化는 6개에 불과해 北韓의 對外競爭力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輸入特化品目數는 10개이고 完全 輸入特化品目은 31개로 對中國 輸入依存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表 5 - 5〉 北韓의 對中國 輸出入特化品目數

| SITC | 總品目數 | 完全輸出特化 | 輸出特化 | 輸入特化 | 完全輸入特化 |
|------|------|--------|------|------|--------|
| 0 | 10 | 1 | | 2 | 6 |
| 1 | 2 | 1 | | | 1 |
| 2 | 7 | 1 | 2 | | 3 |
| 3 | 2 | | | 1 | 1 |
| 4 | 2 | | | | 2 |
| 5 | 9 | 1 | 1 | 3 | 4 |
| 6 | 8 | 2 | 2 | 1 | 3 |
| 7 | 9 | | | 1 | 7 |
| 8 | 7 | | | 2 | 4 |
| 9 | 1 | | 1 | | |
| 合 計 | 57 | 6 | 6 | 10 | 31 |

對外競爭力이 있는 商品그룹으로 식품 및 주로 식용산 동물(SITC 0), 음료 및 담배(SITC 1), 비식용 원재료(SITC 2), 화학물 및 연관제품(SITC 5), 재료별 제조제품(SITC 6), 달리 분류되지 않은 商品 및 취급물(SITC 9)의 일부 등으로 分析되었다.

반면에 對外競爭力이 취약한 즉 輸入依存도가 높은 商品그룹은 식품 및 주로 식용산 동물(SITC 0), 음료 및 담배(SITC 1), 비식용 원재료(SITC 2),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SITC 3),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SITC 4), 화학물 및 연관제품(SITC 5), 재료별 제조제품(SITC 6), 기

〈表 5 - 6〉 北韓의 對中國 輸出入特化品目

| SITC | 完全輸出特化品目 | 輸出特化品目 | 完全輸入特化品目 | 輸入特化品目 |
|------|----------|--------|----------------------|----------|
| 0 | 03 | | 00,01,06,07,08,09 | 04,05 |
| 1 | 12 | | 11 | |
| 2 | 21 | 28,29 | 22,26,27 | |
| 3 | | | 33 | 32 |
| 4 | | | 41,42 | |
| 5 | 56 | 58 | 53,55,57,59 | 51,52,54 |
| 6 | 66,67 | 61,68 | 62,64,69 | 65 |
| 7 | | | 72,74,75,76,77,78,79 | 71 |
| 8 | | | 82,84,85,87 | 88,89 |
| 9 | | 1 | | |

계 및 운수장비 (SITC 7), 잡제품 (SITC 8) 등이다.

北韓의 對中國 輸出商品의 對外競爭力을 SITC 2 단위별로 分析하면 完全輸出特化品目으로는 물고기, 갑각류 및 연체동물과 동조제품 (SITC 03), 담배 및 담배제품 (SITC 12), 제조비료 (SITC 5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성 광물제품 (SITC 66), 비철금속 (SITC 68)이며, 輸出特化品目으로는 금속성 광석 및 금속 부스러기 (SITC 28),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가공 동식물성 물질 (SITC 29), 인조수지 및 플라스틱 물질 및 섬유소 에스테르, 에테르 (SITC 58), 가죽,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죽제품 및 손질 모피 (SITC 61), 비철금속 (SITC 68) 등으로 分析되었다.

本 分析에 의하면, 對中國 主要 輸出品目으로는 철광, 비철금속광, 석탄 등 광산품이 대부분으로, 1987년의 경우 각각 總輸出額의 24.7%, 19%, 24.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SITC 2 단위 기준으로北韓의 對中國 輸入商品들을 完全輸入特化品

目과 輸入特化로 나누어 分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完全 輸入特化品目으로 식품 및 주요 식용산 동물면에서는 주로 식용산 동물(SITC 00), 고기 및 고기 조제품(SITC 01), 설탕, 설탕조제품 및 벌꿀(SITC 06), 커피, 차, 코코아, 향신료 및 동제품(SITC 07), 동물사료(SITC 08), 기타 식료품 및 조제품(SITC 09) 등이며, 음료 및 담배면에서는 음료(SITC 11) 등이다. 비식용 원재료면에서는 기름용 씨 및 기름함유 열매(SITC 22), 섬유 및 그 부스러기(SITC 26), 미가공 비료 및 미가공 광물(SITC 27) 등이며,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면에서는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 물질(SITC 33),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면에서는 동물성 유지(SITC 41), 불휘발성 식물성 유지(SITC 42) 등이다. 화학물 및 연관 제품면에서는 염료, 유연제 및 착색제(SITC 53), 정유 및 향료(화학품, 광택제 및 세척제)(SITC 55), 화약 및 불꽃제품(SITC 57),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학물질 및 제품(SITC 59) 등이며, 재료별 제조제품면에서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고무제품(SITC 62), 종이, 판지 및 펄프, 종이 또는 판지의 제품(SITC 64),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금속 제품(SITC 69) 등이며, 기계 및 운수장비면에서는 특수공업용 기계(SITC 72),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SITC 74),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처리장치(SITC 75), 통신, 녹음 및 재생산기기(SITC 7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장치 및 기기와 동전기부속품(SITC 77), 도로 주행차량(SITC 78), 기타 운송장비(SITC 79) 등이며, 잡제품면에서는 가구 및 그 부분품(SITC 82), 의복 제품 및 의복부속품(SITC 84), 신발(SITC 8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통제 기구 및 장치(SITC 87) 등으로 分析되었다.

北韓의 對中國 輸入特化品目은 다음과 같다. 즉 곡식 및 곡식 가공품(SITC 04), 야채 및 과일(SITC 05), 석탄, 코크 및 연탄(SITC 32), 유기화학물(SITC 51), 무기화학물(SITC 5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사, 직물, 직물

제품 및 연관제품(SITC 65), 원동기기 및 설비(SITC 7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진장치, 장비, 비품, 및 광학용품, 유리시계 및 큰시계(SITC 8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잡제품(SITC 89), 등이다.

따라서 본 分析에 의하면, 對中國 主要 輸入品目으로는 석탄(코크스탄), 석유, 석유제품, 採油用의 종자, 곡물 등인데, 이중에서 제철공업의 연료로 쓰이는 코크스탄과 원유, 석유제품이 전체 輸入액의 60% 이상 차지하고 있다.

對中國과의 교역은 일본이나 소련과는 달리 농산물과 광산물에 상당히 輸入 依存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조업에 필요한 원유의 輸入依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中國과 北韓간에도 변방貿易이 평북 신의주, 함북 은성군 남양 등 中國과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는 국경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中國측의 발표에 의하면 北韓의 신의주시와 中國의 단둥시간의 변방貿易이 최근에 크게 확대되어, 연간 貿易이 약 1700 만달러에 달하며, 교역품목도 솜, 기계, 타이어 등 60여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

1) 국토통일원, 북한경제개관, PP.92-93.

VI. 南北韓 經濟交流 現況

1. 南北韓 經濟交流에 對한 其本立場 比較

1987년 초 蘇聯 科學아카데미 極東研究所에서 발행하는 「極東의 諸問題」라는 雜誌에 기대 포르라야의 “南北韓 經濟協力 展望”이라는 題下의 長文의 論說이 게재된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南北 經濟交流 및 協力の 必要性을 첫째, 分斷으로 인한 南北韓 人民들의 經濟生活 고통해소 둘째, 經濟發展 障礙要因의 除去 셋째, 統一에 寄與 넷째, 世界經濟 속에서의 南北韓 役割增大 다섯째, 國際 經濟社會에서의 不利益 要因 解消 등으로 보고 있다. 즉 南北間의 商品交易과 經濟協力 必要性을 강조한 것이다.¹⁾

北韓은 自主, 平和統一, 民族大團結의 3大原則에 입각한 交流와 合作, 物資 交流의 同時 實現을 주장하고, 일괄적이고 포괄적인 交流를 제외하고 있다. 또한 原資材와 完製品, 農產物과 農産物을 交易商品으로 제외하고 商品의 垂直的 交易方式을 거부하고 있다. 즉 自主的인 交流方式을 提議했다. 특히 ‘主體’²⁾를 위해 特定國家에 대한 對外依存度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즉 生産力의 增加가 人民의 精神, 物質 改造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社會主義 論理下에서 對外經濟의 交流가 人民의 豊요로운 生活을 이룩하게하고 精神的 改造를 통해 資本主義 社會보다 훨씬 높은 滿足感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1) 김영규, “숨은 의도 파악에 주력해야”, 北韓, 1989년 5월호, PP. 36-43.

2) ‘主體’思想에서는 物質에 대한 것보다 능률적으로 즉, 人間中心으로 認識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客觀적으로 物質的 條件이 부족한 後進國家에서도 社會主義가 강건하게 건설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對外經濟交流에 있어 先進 諸國에 대한 對外依存度를 낮추는 手段으로 제기되고 있다.

南朝鮮 人民들과 靑年들에게 政治的 自主성과 農民들의 階級意識 및 人民大衆의 民族意識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

南韓은 純粹經濟的 次元에서 先 物資交流, 後 合作投資 立場을 견지하고서 機能的, 段階的 接近方法을 提示하고 있다. 즉 比較優位에 따른 交易과 客觀的인 國際去來를 제의하고 있다.

물론 南北韓 모두다 자기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다른 쪽이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고 있다. 解放 이후 무수히 많은 會談과 討論에도 실질적인 뚜렷한 성과도 없이 相互에 대한 敵對心이 심화되어 오는 결과를 초래하는 民族的 슬픔을 南北韓 經濟交流에 대한 양쪽의 시각에서도 여실히 볼 수 있다.< 6-1> 參照

그러나 현재의 新데탕트 국제질서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적대적인 南北關係를 어떤식으로든 變化시키고 있다.⁴⁾

<表 6-1> 南北 合議書 草案의 주요 차이점

| 區 分 | 南 | 北 |
|--------------|---|---|
| 合 議 書 名 稱 | ○南北間의 物資交流 및 경제협력추진과 南北經濟協力共同委員會 設置에 관한 合議書 | ○北과 南사이의 經濟協力 및 商品交流의 實現과 부총리급을 委員長으로 하는 南北經濟協助共同委員會 構成에 관한 合議書 |
| 事業推進 原則明記 | ○合議書 前文에 순수경제원칙 명시 -互惠·平等, 民族繁榮, 福祉增 | ○統一3原則(自主, 平和, 民族的大團結)을 包含하여 合議書 첫장에 獨立條項으로 |

3) 金日成著作選集, 第 3卷(P.397) 參照.

4) 박봉식, “새데탕트 時代의 國際秩序와 南北韓 關係”, 민족지성, 1989년 3월호, PR. 12-27.

| 區 分 | 南 | 北 |
|-----------------------------|--|---|
| | 進, 平和統一 寄與 | 設定 |
| 交流對象 品 目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次 會談 合議品目を 合議書에 明示하고 合議品目부터 交流始作 一南側 販賣可能品目 : 철강재, 섬유, 소금, 감귤, 남해수산물(김, 미역, 굴, 멸치 등) 一北側 販賣可能品目 : 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샤크링카, 명태, 옥수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次會談時 雙方 提案品目を 考慮하여 共同委員會에서 合議·決定 |
| 去來方式 및 決濟 業務取扱 銀 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清算決濟方式을 原則으로 하되 청산협정체결까지 잠정적으로第3國銀行 發行 信用狀方式을適用 ○ 雙方이 指定하는 南北韓의 銀行으로 하되 잠정적으로 第3國銀行 利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清算決濟方式 ○ 雙方이 指定한 南北韓의 銀行 |
| 經濟協力 對 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次 會談時 意見이 一致된 공동어로구역 設定, 地下資源 共同開發事業을 合議書에 明示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존자원의 共同開發과 利用부터 시작(原則적으로 共同委員會에서 協議·決定) |
| 共同委員 會 機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既 合議事項(交流品目等)의 이행기능을 共同委員會 기능속에 명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既 合議事項에 대한 이행기능 명시 不必要 |
| 分科委員 會 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個 分科委 우선발족(物資交流, 經濟協力) * 事業擴大에 따라 特別分科委, 小委員會 設置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個 分科委 발족(資源開發, 工業 및 技術, 農業 및 水産, 商品交流, 運輸 및 체신, 金融 財政等) * 될수록 부분별로 세분화 |

| 區 分 | 南 | 北 |
|--------------------|---|--|
| 署名者の 權限委任 明示 | ○合議書 서명자가 최고 당국자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명 시 | ○雙方 團長의 서명으로 충분 (최고 당국자로부터 권한 위임 명시 불필요) |
| 署名欄의 呼稱明記 | ○合議時 署名欄에 國號 明記 | ○北側 代表團, 南側 代表團 方式으 로 明記(國號表記 不必要) |

資料：「南北對話白書」(國土統一院, 1988), pp.288 ~ 289.

2. 最近의 南北韓 經濟交流 現況

1. 背 景

南北交易을 民族內部 交易으로 규정한 1988년 7.7 특별선언과 北韓과의 物資 및 經濟人 交流를 허용키로 한 10.7 對北 經濟開放措置로 南北韓 交易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고, 정부는 1989년 3월 15일 北方經濟政策 實務委員會(위원장: 경제기획원 차관)를 열어 “대북방 경제협력추진체계 정비방안”을 심의 확정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민간기업의 대북방 경제협력사업 추진지침”(경제기획원장관 지침)을 同日字로 확정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이와같은 조치는 국내기업간의 무분별한 과당경쟁을 막고 민관협력체제를 확립, 북방경제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번 조치에서 대북한관계를 제외하였으나, 현재 입법중인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同法에 의거 적절한 절차를 마련한 방침이다.

1989년 6월 13일 정부에 의해 발표된 南北韓間의 人的交流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원장관이 승인토록 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

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지침’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정부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南北交流協力特別法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즉 물자교역 및 협력사업을 목적으로 北韓住民을 초청하려면 해당 주무부서를 거쳐 통일원장관에게 신청케 돼있다. 또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허가를 받은 사람중 남한으로부터 北韓으로, 또 北韓으로 부터 물자를 반출입 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승인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반입, 반출을 승인한 때는 승인서류에 “南北韓交易對象物品”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5)

南北韓間의 直交流에 대해서는 국내물품이동으로 간주하여 관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된 뒤 남한에 반입되는 北韓產 物資도 關稅法 規程에 따라 재수입감면에 해당 같은 비과세 원칙을 원용키로 했다.

그외 민간차원 대공산권 경제협력 활동은 국제민간경제협력회(International Private Economic Council of Korea : IPECK)를 중심으로 추진되 지역별 협력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을 통해 IPECK의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했다.

한편 北韓에서는 김일성이 금년 신년사에서 1989년을 경공업의 해로 설정하고 순천 비닐론과 사리원 카리비료 연합기업소 건설을 빨리 완공해야 하며 공작기계공업과 전자자동차 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6)고 강조한 점은 금년도

- 5) 수출입자동승인품목은 외국환은행의 長(甲類)이 승인(3일내 처리)
수출입공고 등에 의해 수출입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이 승인.
수출입승인기관(외국환은행의 경우)은 수출입승인실적을 매월 상공부에 보고.
상공부 자료 “南北韓 物資交流 推進對策”(‘88.10) 참조.
- 6) 최근 北韓은 정무원 내에 외국과의 합작 합영문제를 전담하게 될 합영
공업부를 1988년 11월 26일에 신설하고, 부장에 노동해정부장인 채희정을
전보 발령하였다. 아울러 12월 24일에는 첨단산업분야를 관장할 전자, 자
동차 공업위원회를 신설하였다.

北韓 經濟政策의 方向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술 및 주민 생활수준 낙후가 당면한 北韓經濟의 문제인 동시에,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취약 요소이다. 특히 北韓은 輕工業의 落後性 때문에 생활필수품의 공급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됨으로써 산업전반에 걸쳐 노동의욕과 생산성을 저하시켜 北韓 체제유지는 물론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라고 인식함으로써 89년도 北韓經濟는 경공업부문에 역점을 둘 것이다.⁶⁾

그에로 1988년 9.9절 행사에서 김일성은 화학공업과 경공업, 수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진장한 석회석과 무연탄에 의거하는 화학공업을 발전시켜 경공업의 원료를 원만히 생산보장하며 경공업 공장들을 현대화하여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질 좋은 일용필수품과 식료품을 많이 생산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수산업 발전에 힘을 기울여 물고기 생산을 늘리는 것과 함께 경제적 효율성이 높고 발전전망이 큰 근해양식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자고 독려했었다.⁷⁾ 그의 경공업 부문인 방직공장, 일용품공장, 식료품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에 투자를 늘리고 현대화를 촉진하여, 제품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인민들의 기호와 사회주의적 생활방식에 맞는 다양한 경공업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자 1989년 신년사에서 역설하였다.

아울러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계산업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와 과학기술역량을 효과적으로 동원 이용하여 인민경제의 수요에 맞게 공작기계의 수량을 보다 다양하게 하고 그 질을 높여 현대적인 수직조정 공작기계와 로버트를 대대적으로 생산하려고 한다. 이와함께 전자자동화공업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살리고 집적회로와 전자계산기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전자요소와 자동화기기, 기구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자고 그는 인민들에게 독려하고 있다.

7) 로동신문, 1989.9.9.

2) 現 況

남한정부의 대북 경제개방조치 이후 1988년 10월에 北韓産 物資 搬入申請이 1988년 10월에 1백 99만달러를 시작으로 1천 4백 61만 2천달러, 12월에 1천 6백 85만 9천달러 등으로 급증했고, 올 1월에도 2천 2백 48만 8천달러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2월에 1천 31만 2천달러로 급속히 줄어든 뒤 3월에는 73만 1천달러로 감소했다. 이같이 급속히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 아닌 문목사의 방북과 팀스피리트 한미군사훈련, 서경원 의원사건, 임수경양 사건 등 정치, 사회 문제에 기인되는 것으로, 南北韓의 활발한 접촉이 상당히 경색되었다.⁸⁾ 그러나 최근에 천주교의 세계성체대회에 北韓신자 초청과 불교의 한강연등제에 北韓 信者 招請 및 대동강제의 開催를 제의하고 있고, 南北韓 對話가 다시 시도되고 있다.⁹⁾

한편 北韓 物資 搬入申請 實績은 상공부 ‘南北韓 物資交易動向’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작년 11월 처음으로 10만 4천달러를 기록한 뒤 12월 1백 1만 달러, 올 1월에는 4백 47만달러로 계속 늘어났으며, 2월부터는 다시 줄어 2월 1백 25만 4천달러, 3월중에는 47만 4천달러에 불과했다. 4월중에는 렉

8) 반입신청이 줄어든 경제적 요인으로, 對北韓 物資交流가 국내업체에는 큰 이익을 주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효성물산이 搬入한 北韓産 무연탄이 당초 계약한 괴탄과 달리 값싼 분탄으로 드러나는 등의 문제점이 생기자 민간기업들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때문이다.

9) 남한의 북방정책을 보는 北韓의 시각은 1988년 10월 31일 로동신문 발표 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남한정부가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는 이른바 북방정책은 노태우의 창작품이 아니고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미제국 식민지下的 실권없는 존재인 자기들이 자주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대내외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이전 독재자들이 들고 나왔던 상투적인 분열 보따리이다. 즉 노태우 일당의 이른바 북방정책의 반동적 본질은 그것이 하나의 민족, 강토인 한반도를 억지로 둘로 쪼개놓으므로써 南北韓 대결을 심화시키고 긴장을 격화시켜 조선과 아세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화근이다.’

키금성상사의 열연 강관 5천톤(1백 97만 5천달러), 삼미의 선철 1천 5백톤(25만 6천달러), 쌍용의 4각 철강재 2천톤(62만 달러) 열연 코일 3천톤(1백 34만 달러) 등 3개 상사의 4건 4백 19만 1천달러였다. 이는 지난해 10월 南北韓 물자교역이 시작된 이후 월중 건수로는 가장 적을 뿐만 아니라, 올들어 1월 7건 2월에 9건 3월에 9건에 이어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이후 중단상태를 보였던 남북물자교역이 6월들어 다시 재개, 3개상사가 3백 46만 2천달러어치의 각종 원자재를 들여왔다. 즉 5월에는 37만 1천달러에 그쳤으나, 6월들어 럭키금성사가 열연 코일 1천 13톤(38만 7천달러) 쌍용이 철강재 2천톤(57만 2천달러) 선경이 아연피 1천 14톤(1백 72만 2천달러) 전기동 3백톤(78만 1천달러) 등 총 3백 46만 달러어치의 반입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남북물자교역이 시작된 이후 쌍용 등 11개업체가 무연탄, 명태, 도자기, 전기동, 맥주 등 29개품목 1천 5백 37만 달러어치를 반입하였다.

1988년 10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산업별 北韓產 物資搬入 承認 實績을 보면, 北韓產 物資搬入 承認 品目は 鑛產物이 2백 94만달러로 가장 많고, 철강 및 금속이 2백 46만 8천달러, 농림수산물 46만 8천달러, 석유류 18만 7천달러 등의 순이다.

특히 搬入된 北韓產 商品의 구체적 品目を 보면 다음과 같다.

냉동명태, 냉동도루묵, 명란, 수산가공식품, 염장명란, 건조명태, 기타 수산물 등의 냉동수산물이 승인되었고, 냉동오징어, 냉동바지락, 어란이 승인신청중이다. 또한 농산물로서 가공백삼, 인삼차, 인삼정, 담배, 필터담배, 주류, 맥주, 소주, 인삼주, 사주, 기타 음료수, 사이다, 인삼음료 등이며, 한약재와 녹용드링크가 승인 신청중이다. 광산물로서 무연탄, 비철금속제품, 탄화칼슘, 전기동, 아연피, 광물성 연료 등이다. 그 외에도 도자기, 생사, 목칠공예품, 돌공예품 등이다. 즉 반입품의 대부분은 농수산물, 광산물, 특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현대종합상사는 잠바 6만 9천 달러어치를 반출하였다. 또한 北韓측의 의뢰를 받은 홍콩의 무역회사 환타스타社가 1989년 9월 22일 국내무역회사인 평주통상을 통해 남한영화 반입을 요청해왔다고 알려졌다.¹⁰⁾

그의 1989년 10월 5일 남한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제 3국에서 北韓과의 수산분야 협력사업추진을 위해 北韓 企業關係者와의 接觸을 許容해달라고 요청한 동방 원양개발공사 대표 윤기원氏가 협력사업 사전승인신청을 최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¹¹⁾

특히 올 가을에 접어들면서 천주교와 불교가 세계성체대회와 한강연등대법회에 北韓의 신도를 초청하였고, 학술교류측면에서 원광대학은 마한, 백제문화학술회의에 北韓의 고고학자 3명을 초청할 예정이고, 경희대학교는 고구려문화권 지역답사를 위하여 1백 50여명의 조사단을 보낼 예정이며, 고려대학은 김일성대학 등 北韓의 대학과 학생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대학 교무처장이 발표했다.¹²⁾

3. 品目別 交易可能性

南北交易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경우 양쪽은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搬入하고 또 무엇을 搬出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南北直接交易의 可能性이 높아감에 따라 北韓의 輸出入 商品構造에 대한 시급한 研究와 調査가 요청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北韓에서는 체계적인 무역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므로 北韓의 輸出入 商品構造를 알기 위해서는 北韓

10) 반출된 남한영화는 1989년 7월에 모스크바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여우주연상을 탄 '아제아제바라아제'와 이산가족의 아픔을 그린 '길소뜸'이다.

11) 동아일보, 1989.10.5.

12) 한겨레, 1989.10.28.

의 貿易相對國에서 발표한 貿易統計를 통해 접근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지금까지의 南北韓 交易商品으로 農水產物, 鑛產物 및 特產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南北韓 교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交易可能商品을 보다 많이 개발해야 한다.

國內 學界에서는 南北韓 交易可能商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로 南北韓의 對日 貿易構造, 특히 對日 輸出入商品構造를 중심으로 한 分析이 사용되어 왔다.¹³⁾

本 研究에서는 資料의 制約으로 인해 西方圈, 共產圈別과 主要交易國인 蘇聯, 中國, 日本을 대상으로 하여 1970년부터 1987년도의 北韓 輸出入 및 商品構造를 파악해 보았다. 北韓의 總交易額(輸出額+輸入額)과 圈域別, 國家別 相關關係 分析에 의하면, 圈域別 相關關係에서는 北韓의 對共產圈에 대한 輸出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國家別로는 北韓의 對日本 輸出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北韓의 輸入相關分析에 의하면, 圈域別 相互關係에서는 對共產圈 輸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國家別로는 北韓의 對日本 輸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南北韓 모두 對日本 交易依存도가 매우 높으므로 對日 輸出入構造를 중심으로 南北韓 交易可能品目を 예상하는 것이 經濟的 意義가 매우 클것이다.

南北韓의 對日 貿易規模側面에서 볼때 北韓의 對韓 供給可能品目으로는 다음과 같다. 1984년 合營法 실시 이후의 통계수치를 중심으로 보면, 農水產物인 물

13) 1984년을 基準으로 분석한 연하청의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과 1985년부터 1987년까지의 3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분석한 서동훈의 “南北韓 經濟交流, 協力方案에 관한 研究”, 신승호의 “南北韓 交易展望”, 1986년을 기준으로한 산업연구원의 “對南北韓 交易有望分野” 등이 있다.

고기, 갑각류 및 연체동물과 명태나 양식용의 산 실장어 냉동수산물과 야채나 과일, 한약재와 담배, 기타 토산품 등이다. 鑛産物로는 천연탄산, 마그네슘, 알루미늄의 Waste와 Scrap, 금, 철강의 판, 연의 Waste와 Scrap, 견 웨이스트(Silk Waste), 철광의 Waste와 Scrap 등이다. 그 외에도 부분적으로 北韓의 軍需産業中心의 기계공업이 발달하여 기계류를 中蘇에 수출하기때문에, 초기에는 2차 상품의 교역시 기계류 부품의 상호교역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韓國의 對北韓 供給可能品目を 보면, 타이어와 타이어 케이스 교환성 타이어랜드 및 타이어 플랩, 철강의 관과 소관, 연의 Waste와 Scrap 및 피, 기타 전자식 기기, 내연기관(피스톤식의 것), 전기절연을 위한 전선, 케이블, 기계로 만든 지와 판지, 동의 Waste와 Scrap, 동의 피 및 매트, 냉장고 및 냉동기구를 갖춘 기계, TV수상기, 합금강과 고탄소강, 온도변화에 의한 재료처리기기, 망 및 망지와 어망, 수지제품, 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용 송수신기 및 방송용 송수신기, Ferro-alloys, 인공 섬유의 섬유제품 등이다.

한편 南北韓이 제의한 交易對象品目は <表 6-2>와 같다. 따라서 위의 섬유부문에 대한 교역의 가능성은 매우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完製品의 의류보다 직물원사가 유망하며, 현재도 이들 상품은 일본, 홍콩 등을 통해 北韓으로 반입되고 있다. 사실 北韓內에는 화섬산업이 극히 미미하여 폴리에스터 직물류와 섬유연사류의 교역이 유망하다. 반면 면직물은 北韓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므로 섬유부문의 수평적 거래는 매우 가능성이 높다.

製紙部門에 있어도 北韓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갖고 있으므로 南韓에서 부족한 펄프와 칩의 조달을 위해 北韓産 침엽수, 활엽수 등의 목재류 반입이 유망시 된다.

農水産物部門에서는 1차 농수산물과 어패류, 기타 수산물의 반입이 매우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명태에 대한 반입신청이 매우 많아지고 있다. 이 부문은 초기 南北韓 交流에 매우 중요하다.

鑛物分野를 보면 이미 北韓産 무연탄을 間接交易方式으로 상당량 수입, 연탄제조부문에 활용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南韓의 많은 기업들이 상당량의 반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마그네사이트도 南韓에서의 매장량이 전무하나 北韓에서는 4억 9천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도 150만톤으로 국내 소요량의 충족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部門別 展望에는 北韓의 産業構造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表 6-2〉 南北韓이 提議한 交易對象 品目

| 韓 國 側 | | 北 韓 側 | |
|--|--|--|--|
| 購入希望品目 | 販賣可能品目 | 購入希望品目 | 販賣希望品目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無煙炭, 鐵鑛石, 銑鐵, 鉛塊, 亞鉛塊, 硅砂, 古鐵 등 工業製品 ○ 明太, 누에고치, 팔, 옥수수, 피마자 등 農水産品 ○ 기타 漢藥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鐵鋼 및 製品, 銅 및 製品, 알미늄製品 등 金屬製品 ○ 家庭用·工業用 裁縫機, 耕耘機, 乘用車, 2輪自動車 등 機械類 ○ 時計, 天然色 TV, 音響器機 등 電氣·電子製品 ○ 纖維原料, 纖維織物 담요 등 纖維類, 기타 고무벨트, 피아노, 황산가리, 정제그리세린 및 醫藥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鐵鋼材, 重石鑛, 납사, 纖維 등 工業製品 ○ 南海漁族, 소금, 감굴 등 農水産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鐵鑛石, 石炭, 마그네샤크링카, 一般工作機械, 採取設備 등 工業製品 ○ 明太, 쌀, 강냉이 등 農水産物 |

Ⅶ. 南北韓 經濟交流의 推進方向

南北韓의 經濟交流는 短篇的, 一般的인 經濟的 實利를 떠나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相互經濟交流를 통해 民族間의 同質性 回復을 위한 最適의 方案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南北經濟交流를 民族의 念願인 平和統一의 첫단계로 삼아 종래 北韓과의 敵對的 關係를 불식시키고 民族共同體形成의 次元에서 南北韓 서로의 사정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全面的이고 包括적으로 協力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南北韓 經濟交流를 短期的 利潤보다 相互 信賴回復과 民族情緒의 共感帶 確認에 두고, 民間交流, 商品交流, 資源開發, 借款 및 技術協力 등 軍事的으로 민감한 部門을 除外한 全分野에서 積極적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¹⁾

1. 經濟交流를 위한 雰圍氣 造成

南北韓 經濟交流의 첫단계로 韓國은 東北아시아經濟圈 國家들과의 交流增大로 동북아시아 政治·經濟·社會環境에 보다 和解的인 雰圍氣를 造成하고, 内部的으로 南北韓交流를 制約하는 諸般社會的 制度를 改正하고, 北韓側이 항상 제기하는 駐韓美軍問題와 매년 실시하는 ทัพ스피리트훈련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解放 以後 一方的 視覺으로 고정된 對北韓研究를 보다 多元化 및 活性化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東北아시아의 主要國家인 中國은 1989年6月4日 ‘피의 日曜日’ 에

1) 北韓의 經濟力 增大가 結果的으로 北韓의 軍事力強化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南北經濟交流는 周邊國際政勢의 變化를 고려하면서 漸進的으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貿易協會, 南北韓 經濟交流促進을 위한 中長期發展計劃(案), 1989.4, pp. 130-132.

일어난 天安門 大屠殺사태로 中國內部 뿐만 아니라 全世界에도 상당히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中國의 對外開放化政策基調 즉, 經濟改革은 이미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大勢라고 볼때, 이번 事件은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改革의 趨勢가 強化될 것이다. 즉 天安門 事態는 中國의 對外的 威信과 經濟開發에 큰 타격을 주었으므로 새로운 政權은 新政權에 대한 正統性 및 對外信賴性 確立을 위해 開放과 改革을 더욱 밀도있게 推進할 것이다. 한편 蘇聯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實踐하는 手段으로, 經濟發展의 成敗가 걸린 極東地域 開發을 위해 1987年 8月末 '極東地域 長期發展計劃'을 作成하여 資源의 寶庫인 시베리아 開發에 亞太地域國家, 특히 이 地域 交易의 50%이상을 차지하는 日本의 參與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韓國도 시베리아開發에 參與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日本을 자극하여 적극적으로 開發事業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意圖가 깔려있는 것 같다. 日本側에서는 蘇聯의 極東地域의 開發과 그로인한 經濟的 繁榮이 東北아시아에서의 蘇聯立場을 強化시켜 軍事뿐만 아니라 經濟的 影響力을 크게 增大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蘇聯의 極東地域 開發은 결국 이 지역의 經濟的 繁榮을 創出해낼 것이므로 蘇聯의 對韓接近은 極東地域의 經濟發展이라는 國家의 必要性에 의해 積極的으로 推進되고 있다.

對外的으로 北韓의 背後인 中國, 蘇聯과의 和解무드를 우선적으로 造成한다는 것과 對內的으로는 南北韓 서로가 相互信賴할 수 있는 諸般措置의 實行으로 北韓으로 하여금 南北韓의 급속한 人的, 物的 交流를 실현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할 수 있다. 그 具體的인 方案으로 특히 人道的인 面이 강조되는 南北離散家族의 故鄉訪問 및 省墓, 相互書信交換, 産格技術情報 및 文獻物的 交流, 宗教團體行事, 南北韓 大學生 및 學者들의 學術交流 등을 통한 人的, 物的交流의 增大를 기대할 수 있다.

한한편 政治, 社會, 文化, 體育 등 非經濟分野의 關係進展에 상관없이 經濟交

流를 持續的이고도 積極的으로 推進해야 한다. 따라서 經濟交流은 民間이 主導하도록 하고 政府는 이를 위한 霧圍氣 造成과 制度的 補完에 주력해야 한다. 즉 南北韓間의 政治. 軍事的 의견 차이, 體制的 相異성과 生소한 事業環境에 대한 지나친 우려나 企業의 過當競爭的 經濟交流, 推進에 대해서는 南北韓 當局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支援策과 調整方案이 要求된다.²⁾

아울러 社會主義 國家와 南韓 사이의 經濟交流가 침체기에 있는 社會主義 國家의 經濟發展에 도움을 주는 事例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東北아시아 國家인 中國과 蘇聯과의 對南韓 經濟交流 增大되면 北韓도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南北韓 協力體制 構築에 보다 積極的인 立場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長期的인 眼目에 입각한 南北韓 經濟交流를 위하여 서로 다른 體制에서 오는 問題를 忍耐力을 갖고 解決하여야 한다. 특히 短期的인 利潤보다 相互信賴를 回復하여 長期協力の 土臺를 構築하는데 主眼點을 두어야 하며, 南北韓 經濟交流가 促進되고 經濟協力이 원활히 되도록 그 環境造成에 주력해야 한다.

2. 推進方向과 展望

南北韓의 經濟協力은 統一을 위한 가장 現實的인 첫걸음이므로, 交流하는 人的, 物的 要件에 대한 民族的. 人道的. 經濟的 便宜提供과 單一民族의 共感帶를 造成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南北韓 交易을 民族內部交易으로 規程하여 서로 關稅를 매기지 않고, 港口利用 등의 諸般 交通. 運送上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 예로 南北韓의 港口開港과 西海岸 섬들의 巡航醫療活動을 들 수 있다. 南韓側이 선박, 의료진 의약품과 일부 費用을 부담하고 北韓側

2) 前掲書, pp.131-133.

은 선원과 일부 經費를 부담하는 형태이다. 醫療行爲 自體가 人道主義的 立場에서 행해지는 交流인만큼 南北韓 모두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아울러 社會主義 貿易의 기본적 개념인 自主性原則과 平等·互惠의 貿易關係를 基礎로한 求償貿易形態로 1次產品은 1次產品끼리(예를들면, 南韓의 쌀, 김과 北韓의 무연탄, 명태 등의 교역), 2次產品은 2次產品끼리 直交易함과 동시에, 제 3국을 통한 間接交易에 의해서 直接交流에서 얻지 못하는 比較優位論的 交易을 增大시켜야할 것이다.³⁾ 즉 民間次元의 立場에서 香港, 日本, 中國, 蘇聯을 통한 間接交流나 제 3국을 통한 우회接近方式으로 交易을 活性化해야 한다. 中國과 蘇聯과의 公式的인 商關係를 이루고 난후 초기에는 中國商社나 蘇聯商社, 日本의 商社들을 통한 中繼貿易에 많이 의존해야할 것이다. 특히 中國과의 定期港路 開設과 韓·中國 연안의 主要貿易港 開港, 中國 貿易事務所의 서울 設置가 조만간에 이루어질 展望이고 보면 長期的으로 볼 때 韓中合作會社의 北韓進出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北韓產 원자재 및 北韓의 勞動力을 利用하여 이를 臨加工하여 南韓으로 輸入하거나 他國家로 輸出하는 방식으로 發展시켜, 점차 輕工業 製品을 중심으로한 南北韓 合作投資를 推進하여야 하겠다. 즉 韓中國合作會社를 통해 北韓으로 進出하여 借款, 플랜트輸出, 製品의 輸出入 등에 力點을 두어야 한다. 특히 初期에는 香港, 日本, 蘇聯地域에 설치한 商店, 展示場을 최대한 이용하여 南北韓의 對外協力 및 交流를 活性化하여야 한다.

3) 北韓의 外換事情을 고려할때 南北韓 物資交流는 상당 기간 求償貿易으로 推進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求償貿易 對象品目이 많지 않다는 限界를 갖고 있다.

Hy-Sang Lee, "Economic Programs Conclusive to Korean Reunification: A proposal",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New York, December 28-30. 1988.

한편 南北韓이 현재 農産物의 상당한 物量을 外國에서 購入하고 있으므로 이를 克服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食糧의 供給에 相互協力할 뿐만 아니라 인삼, 송이버섯, 토종양봉, 한약재 등의 特産品의 交易에 역점을 둔다. 아울러 백두산, 금강산 觀光資源의 共同開發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이 問題는 정주영 氏의 北韓訪問으로 상당히 可視化되었다.⁴⁾

따라서 이같은 對外協力 活性化가 최근 北韓經濟가 追求하는 交易의 多變化 그리고 1次産品 위주의 輸出入構造, 輸出入不均衡에 의한 貿易收支 惡化를 解消하고 輸出商品의 質的 提高와 多樣化를 이루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 相互의 部分的인 勞動, 資本, 技術協력이 長期的으로 共同調查研究의 實施와 貿易協定 및 技術協力 協定締結 및 北韓技術者의 教育訓練으로 發展하도록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韓半島의 政治, 經濟, 文化, 社會에 상당히 긍정적인 效果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물론 初期에는 北韓의 開放과 外債蕩減을 위하여 상당히 많은 商品을 사주는 形態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交易代金 決済時 無關稅制度, 스윙(swing) 制度⁵⁾, 長期無利子借款(交易上の 赤字는 政府가 報償)과 韓國産 機資材 搬入時 長期低利借款 그리고, 양쪽간의 中央銀行의 事後決済方式을 쓰는 것이다. 즉 南北韓의 輸出入時 직접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

4) 北韓이 시급히 바라는 것은 資本과 先進技術의 導入이다. 특히 금강산, 원산, 백두산 등의 觀光地 開發에 南韓의 資本을 對外的으로 명분있게 投資·유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開發된 觀光地에 많은 外國觀光客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合作投資라는 명분 아래 資本과 技術의 移轉을 말으면 실질적인 經濟援助 性格이 解消되어 버린다는 長點을 갖고 있다.

이상희, “北韓의 經濟開放 努力과 展望”, 南北韓 經濟交易協力에 관한 國際심포지움(國土統一院 主催), 1989.8.28-29.

5) 스윙制度란 일정한 限度內에서 利子を 물지 않고 외상으로 物品을 購入할 수 있게 하는 無利子 외상去來制度이다.

자기편의 中央銀行과 民間銀行을 상대로 代金決済를 하도록 한 다음 追後에 두 銀行이 이를 精算하는 方式이다. 交易商品에 관한 關聯資料 交換擴大와 現金借款, 延拂輸出, 現物借款의 擴大 그리고 求償協定の 締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共產圈 貿易에 있어 代金決済 方式에 대한 면밀한 研究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南韓政府는 民間의 南北交易 전담기구의 設립조성과 關聯法規의 整備는 물론 海外協力基金이나 輸出保險의 活用 등과 같은 支援體制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南北韓 經濟交流를 維持하기 위해 經濟交流를 위한 基金造成이 필요하다.

마지막 단계로 南北經濟交流를 통해 東北아시아 經濟圈에 대한 韓半島의 寄與度を 높일 뿐만 아니라 南北韓의 相互依存度を 擴大시킴으로서 單一의 經濟圈을 形成시키게 될 것이다. 民間中心의 技術協力協定에 의한 專門技術者의 相互交流 및 尖端技術의 相互交換과 南北韓 貿易協定締結로 一般經濟人의 相互交流 뿐만 아니라 나아가 一般人的 自由로운 相互訪問의 許容을 指向하여야 한다. 즉 서로의 資源을 利用하여 貿易特化를 통한 客觀的인 相互交易을 形成시킴과 동시에 一括的이고 包括的인 交流를 이룩하여 장기적으로 尖端型의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한 자유로운 플랜트合作投資가 推進되도록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輸出入 窓口的 統合을 達成하여 南北韓 모두 輸出入 物量의 增大로 規模의 利益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民間人, 民間企業이 중심이 된 南北韓의 經濟統合은 곧 南北統一의 여건 성숙을 意味하고 韓半島의 平和的, 實踐的 統一方案으로 具體化될 것이다.

參 考 資 料

- 國土統一院, 北韓의 對外 經濟協力關係 研究, 1977.
- 김윤환, 北韓 工業施設 분포의 산업입지론적 분석, 國土統一院, 1977.
- 장원중, 北韓經濟論, 北韓研究所, 1977.
- 박춘삼, 對外經濟協力面에서 본 北韓經濟分析, 國土統一院, 1977.
- 최길환, 北韓 國民總生産 추계 방식 도출과 남북한 경제성장 추이 비교, 국토 통일원, 1977.
- 해외경제연구소, 북한의 공업화와 기술혁명에 관한 연구, 1978.
- 김달중, 北韓의 對西方政策, 國土統一院, 1978.
- 이상두, 北韓의 最近 對外政策研究, 國土統一院, 1978.
- 國土統一院, 北韓 經濟政策과 計劃의 遂行實態分析, 1979.
- 極東問題研究所, 北韓貿易論, 1979.
- 이세진, 北韓의 經濟, 統一研究所, 1982.
- 전철환, 社會主義와 經濟倫理, 한길사, 1980.
- 亞細亞問題研究所, 蘇·北韓 經濟管理 理論의 論理와 展開, 1980.
- 문화공보부, 세계가 본 북한의 상황, 대왕사, 1983.
- 國土統一院, 北韓經濟의 잠재역량 연구, 1984.
- 國土統一院, 북한의 실질수준 분석, 1984.
- 이만기, 북한의 실질소비 연구, 국토통일원, 1984.
- 國土統一院, 北韓의 輸出商品 資料, 1984.
- 國土統一院, 북한의 유통체계 분석, 1984.
- 國土統一院, 北韓의 農林水産政策 및 關係資料, 1984.
- 임재균, 北韓의 經濟交流, 協力體制의 關係資料, 1984.
- 國土統一院, 北韓의 産業政策 및 施設現況, 1984.

- 윤병익, 北韓의 體制變化와 展望,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5.
- 김덕배, 日·北韓貿易(經濟交流)의 現況과 展望, 國土統一院, 1986.
- 平和統一研究所, 北韓概論, 1986.
- 서극성, 北韓의 경제실상, 민족통일 중앙위원회, 1986.
- 연하청, 北韓의 경제정책과 運用, 한국개발연구원, 1986.
- 國土統一院, 北韓經濟統計集, 1986.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現代共產體制的 比較分析, 1987.
- 國土統一院, 北韓 GNP 추계방법 해설, 1988.
- 國土統一院, 北韓經濟 개관, 1988.
- 오용남, 共產圈 經濟의 탈마르크스 經濟學, 슬라브 연구사, 1988.
-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 하용철역, 사계절 신서, 1988.
- 경희대 국제평화연구소, 북방 3 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정책변화, 1988.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共產圈 國家의 外交政策, 1988.
- 박두복, “中共 對韓半島政策의 新推勢와 韓·中關係”, 外交, 1988.7.
- 박춘삼, “北韓의 經濟開發戰略과 成果”, 韓國外交協會, 1988.3, pp.38-82.
- 박영호, 北韓의 進路變化—開放과 限界”, 外交, 第7—8號, 1988.12, pp.58-72.
- 윤용만, “南北韓 經濟協力과 交流方案”, 國際問題, 1988.10, pp.790-87.
- 박현옥, “北韓의 經濟現況”, 재경, 1988.10, pp.24-43.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韓國과 共產圈 貿易, 1988.12.8.
- 신정현, 共產國家의 外交政策,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8, pp.125-168.
- 권정호, “社會主義國家論과 北韓體制的 特性에 관한 考察”, 統一問題와 國際關係, 인천대 평화통일연구소, 제2집, 1988.12.
- 박춘삼, “北韓의 經濟改革과 南北韓交易”, 北韓, 1989.3, pp.68-77.
- 신승호, “南北韓 交易展望”, 증권연구, 동서경제연구소, 1989.1, pp.21-35.
- 임병준, “南北韓 經濟交流에 생각한다”, 全經聯, 1989.2, pp.3-5.

- 노희목, “南北韓 産業構造分析에 따른 經濟交流展望”, 共產圈經濟, 産業研究院, 1989.3, pp.40-62.
- 최신임, “北韓의 1987年度 輸出入 商品構造”, 共產圈經濟, 産業研究院, 1989.3, pp.84-101.
- 김영규, “北韓經濟 특집 : 숨은의도 파악에 주력해야”, 북한, 1989.5, pp.36-43.
- 김영규, “南北韓 經濟交流 展望”, 북한, 1989.2, pp.50-59.
- 이원준, “北韓 經濟體制的 특징과 南北韓 經濟交流”, 북한, 南北交流에 대한 설문조사, 1989.5.
- 장공자, “대만-중공간의 교류현황과 전망”,
- 정용길, “독일의 통일외지와 교류현황”,
- 김광수, “北韓經濟의 展望”, 북한, 1989.2.
- 허 만, “1989년 신년사를 통해 본 북한 대남제외의 의미와 전망”, 북한, 1989.2.
- 권 완, “1989년 김일성 신년사 분석”, 북한, “南朝鮮 革命的 戰略-戰術指導-主體思想에 基礎한 南朝鮮革命과 조국 통일이론”, 1989.1.
- 북한, “남조선괴뢰들의 북한정책의 반동적 본질”, 1989.1.
- 곽동영, “金日成主義와 북한제정책의 모방성”, 공산권 연구, 1989.5, pp.13-25.
- 이우홍, “내가본 北韓의 工業”, 공산권 연구, 1989.5, pp.111-118.
- 共產圈 研究, “北韓의 合作會社運營法”, 1989.3, pp.117-119.
- 김현수, “우리의 北方政策과 韓中關係 增進方向”, 共產圈 研究, 1989.3, pp.49-58.
- 고중운, “韓國-北韓-中國의 3각 關係”, 共產圈 研究, 1989.3-4.
- 김태구, “美國-北韓의 접촉과 南北韓 關係”, 北韓, 1989.3, pp.48-57.

- 문도빈, “中國의 對韓半島政策과 南北韓 關係”, 北韓, 1989.3, pp.58-66.
- 무역, “北韓의 對外貿易現況과 南北韓 交易推進方向”, 1989.3, pp.32-34.
- 주간 해외투자 정보, “對北方經濟協力 推進體系整備方案”, 1989.4.1.
- 구문모, “韓蘇經濟交流의 現況과 우리의 對應方案”, 재정, 1989.2.
- 이명식, “최근 소련의 한반도 정책”,
- 정천구, “중소관계와 한반도 통일 문제”,
- 신정현, “美日의 韓半島政策과 統一問題”,
- 단천기, “中蘇의 韓半島政策과 統一問題”,
- 정천구, “中共의 對外開放化政策과 韓半島 統一問題”,
- 김용유, “黃海時代의 개막과 韓國의 北方政策方向”,
- 도홍열, “北韓의 社會構造와 體制變化展望”, 統一問題研究, 제 1 권 1 호, 1989.봄
- 박찬익, “中國 經濟改革의 배경과 전망”,
- 신승권, “蘇聯의 對韓政策變化와 韓蘇關係에의 영향 요인”,
- 오늘의 북한, 월간중앙, 1989 신년호 별책 부록
- 정 민, “社會主義 經濟建設의 總路線問題”, pp.134-140.
- 정대화, “社會主義 經濟建設에서의 優先政策과 速度問題”,
- 전인영, 신정현, 백종천, “北方 3 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정책방향”, 국제평화
연구소, 1988.
- 박철수, “北韓의 外換管理와 換率決定”, 共產圈 經濟, 제 2 권 제 2 호, 산업연
구원, 1985.6.
- 國土統一院, 대학생 통일논문집, 1988.
- 오용석, 共產圈 經濟의 脫 마르크스 經濟學, 슬라브연구소, 1988.
- 노희목, “南北韓 產業構造分析에 따른 經濟交流展望”, 共產圈 經濟 第 2 卷
第 2 號, 1989.3.
- 최신림, “北韓의 1987 年度 輸出入商品 構造”,

- 임병준, “南北韓 經濟交流에 생각한다.”, 全經聯, 1989.2, pp.3-5.
- 김성훈, “北方經濟交流 擴大와 企業의 對應方案”, 全經聯, 1989.3, pp.51-60.
- 이현희, “韓半島 分斷의 배경과 민족통일”, 사회과학연구소, 성심여자대학교, pp.95-114.
- 국희보, “東北亞 經濟協力の 構想과 韓國의 北方政策”, 1989.5, pp.144-149.
- 박준삼, “北韓의 對外經濟協力”, 安保研究 제 16 호, 東國大學校, 1986.
- 유석열, “北韓의 第3世界 外交政策과 實態”,
- 강성윤, “北韓의 對日政策과 諸現案”,
- 유광진, “北韓의 合作交流論”, 安保研究 제 17 호, 東國大學校, 1987.
- 정용길, “東獨과 北韓의 統一政策 比較”,
- 美蘇研究, “韓國의 對共產圈 外交政策의 現實과 새구도”, 제 2 집, 단국대, 1988.
- 이한빈, “北方經濟交流—그 方向과 原則”, 外交, 1989.3.
- 이석호, “韓國의 北方政策—現況과 展望”,
- 정세현, 北韓의 對南事業方向과 南北對話—交流의 展望”,
- 서병철, “東西獨間의 接近과 統一論意”,
- 經濟企劃院, 7.7 宣言 經濟部門 措置事項(解說), 1988.10.7.
- 韓國產業研究院, 共產圈 經濟, 1989년 봄, 여름호.
- 월간중앙, 오늘의 북한, 1989.1.
- 國土統一院, 北韓經濟와 貿易展望, 1989.9.
- 송재근, “北韓輸出商品의 對外競爭力分析과 展望”, 國土統一院, 1988.11.
- 이호, “北韓의 經濟開放化 展望과 南北經濟交流의 評價”, 國土統一院, 1989.
- 이호, “南北韓 經濟力量 比較”, 민주통일론, 國土統一院, 1989.
- 사회과학출판사 편, “社會主義 經濟建設 理論”, 태백, 1989.
- 정창영, “北韓의 經濟開放 與件과 展望”, 國土統一院 國際 심포지움, 1989.8.
- 이희상, “北韓의 經濟開放 努力과 展望”, 國土統一院 國際 심포지움, 1989.8.

- 이태욱, “北韓의 經濟開放政策과 그 展望”, 國土統一院 國際 심포지움, 1989.8.
- 김달중, 스칼라피노 공편, 아시아 공산주의의 지속과 변화, 범문사, 1989.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韓國과 社會主義國家-相互協力の 모색, 1989.
-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民族統一論, 1989.
- 김운환, “北韓經濟開發計劃의 目標와 推進過程”, 統一問題研究, 國土統一院, 1989.
- 정한구, “韓國의 北方政策과 韓蘇關係”, 외교 제 10 호, 1989.6.
- 연합연감, 1984-1989 년도.
- 玉城泰, “北朝鮮의 開放政策 本物”, 세계주보, 1985.9.
- 小牧輝夫, 北朝鮮 經濟現象 展望”, 기로에선 北韓經濟, 國土統一院, 1988.
- 玉城泰, “北韓經濟計劃의 實績과 問題點”, 國土統一院 國際세미나, 1989.8.
- 윤석범, “A Trial Estimation of An Econometric Model of North Korea”,
國土統一院 國際세미나, 1989.8.
- Bornstein, M., Comparative Economic System: Model and Cases, Home-
wood : Ricahard D.Irwin, 1979.
- Chung, J.Sang-Hoon, The North Korea Economy : Structure and Devel-
opment, California :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 Friesen, C.M., The Political Economy of East-West Trade,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1976.
- Knight, P.T., Economic Reform in Socialist Countries, Washington,
D.C : the World Bank, 1983.
- Levin, N.D., Management and Decision-making in the North Korea
Economy, Santa Monica ; Rand, 1982.
- Donald Stone Macdonald, The Koreans, U.S.A. : Webster Press, 1988.
- J.Wiliczynski,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East-West trade, 1969.

우리나라 民間企業의 對北韓 貿易去來 促進을 위한
政策的 提案

尹 基 官 (忠南大)

〈 要 約 〉

I. 問題의 提起

- 韓國의 對北韓貿易擴大의 基本目標：戰爭危險解消, 南北韓 經濟協力 구축, 平和統一
- 지금까지 南北韓 貿易실적은 미미함
- 우리나라와 基本體制가 다른 北韓과의 貿易擴大를 위해서는 日本의 對北韓貿易 經驗 分析이 필요함. : 日本은 北韓에 있어서 세번째로 큰 貿易相對國이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두 번째로 큰 貿易相對國임.
- 최근 日本의 經驗분석을 토대로한 우리나라의 對北韓貿易促進方案 강구가 필요함.

II. 北韓의 對外貿易環境分析과 展望

1. 北韓의 對外貿易概況

- 北韓의 貿易基調：政治와 經濟의 일치화. 자주적 民族經濟路線 고수,
↓ 호혜평등
貿易原則 : 輸入우선주의, 輸出入균형주의
↓
貿易계획 : 商品別, 國家別
- 交易相對國別로 交易方針이 상이함 : 社會主義 國家는 擴大·發展, 西方側과 開途國과는 經濟·技術 의존을 최소화, 정치적 유대강화 위해 經濟 수단이용
- 貿易推移 : 1950年代와 1960年代 꾸준히 상승, 1970年代 급증경향이 나 상승과 하락 폭이 컸음. 1980年代 점차 감소, 1987年

다소 회복

- 貿易수지 : 1960年代는 貿易규모의 10% 정도 적자, 1980年代는 더욱 증가, 1987年 52.1억 달러로 擴大

2. 北韓의 國別 對外貿易現況

- 西歐 : 주요 貿易相對國은 서독과 프랑스. 1987年 輸出은 크게 증가, 輸入은 감소. 무역수지 흑자 4.4배 擴大(1986年 對外)
- 아시아 : 주요 貿易相對國은 홍콩, 인도 및 싱가포르, 1987年 輸出入 모두 증가, 對 태국, 인도네시아 輸出 크게 증가
- 中東·아프리카 : 全般的으로 미약, 중동지역의 주요 무역상대국은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이며 아프리카는 輸出은 부룬디, 輸入은 모잠비크.
- 미주·대양주 : 캐나다는 輸出入 모두 상승, 美國은 전무. 브라질은 輸出은 거의 전무, 輸入은 약간 하락추세. 페루는 輸出은 급증, 輸入은 전무.
호주는 輸出은 감소, 輸入은 증가
- 사회주의권 : 1987年 貿易額이 전년대비 7.2% 증가. 소련은 輸出入 모두 증가, 北韓의 세계최대 무역상대국. 중국은 輸出 감소, 輸入증가로 무역적자, 세계 제2의 무역상대국으로 부상.
- 日本 : 北韓의 세계 제3위의 무역상대국(제Ⅲ장에서 상세히 논의)

3. 北韓의 對外貿易政策

- 특 징 : 쌍무적인 品目別 쿠타성격이 강함. 貿易政策의 경직성
- 輸入우선주의政策

- 輸出入균형주의

4. 北韓의 貿易機關·商社·은행·보험회사

- 貿易機關: 무역부 (무역정책과 무역계획의 수집·外國과의 貿易協定체결 등 對外貿易에 있어서의 대표적 기관) 對外經濟事業部, 對外經濟委員會 합영사업부, 國家計劃委員會, 貿易代表部 등
- 貿易商社: 外國商社와 貿易계약을 체결하고 債務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수행. 商品別로 100個가 있음.
- 銀行: 貿易銀行 (外國換 業務와 輸出入결재업무총괄), 금강은행과 대성은행 (지정된 무역상사의 대외결재업무담당)
- 保險會社: 조선국제보험회사.

5. 北韓의 貿易去來形態와 결재방식

- 구상무역방식
- 대금결재는 국제통화에 의하지 않고 바터무역 (무환구상무역) 이 원칙.
- 北韓과 가까운 제 3 국에는 外貨로 지불하지만 유환구상무역방식 채택.
- 西方國에는 신용장 베이스로 결재되나 구상무역을 더 선호함.
이 때의 결재통화는 주로 영파운드, 서독 마르크, 스위스 프랑.

6. 北韓의 關稅制度

- 물품관세제도는 채택하지 않고 비무역품에만 관세부과

7. 北韓의 對外貿易環境의 展望

- 합영법의 제정으로 외국의 合作投資事業의 擴大를 꾀하고 있으나 실효를 못거두고 있음.
- 北韓의 주요 輸出品의 輸出增大를 위해서는 商品의 다양화가 요구됨.
- 경공업제품의 생산증가와 輸出擴大가 必要하고 실제로도 강조되고 있음.

- 貿易擴大를 위해서는 貿易相對國의 다각화도 요구됨 (현재 北韓貿易總額의 70% 이상이 사회주의제국임). 西方側 선진제국들과의 貿易擴大를 위해서는 對外的 信用재고가 요구되고 실제로도 강조되고 있음.
- 北韓의 對外貿易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進行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

Ⅲ. 日本의 對北韓 貿易去來分析과 展望

1. 一般的 概況

- 1979年이래 年間 貿易額이 1,000억엔 정도로 유지. 무역수지도 출초.
- 1986년 貿易額 減少 (600억엔 정도) : 北韓의 對日貿易에 있어서의 輸出入균형정책실시와 對日輸入 반감에 기인함. 무역수지도 입초로 역전.
- 향후 日本의 對北韓 貿易에 있어서 출초의 상황은 없을 것임. 다만 현재의 축소균형에서 확대균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日本의 輸入擴大가 必要하고 北韓의 發展的이며 積極的인 對應이 要求됨.

2. 日·北韓貿易의 역사

- 간접무역시대 (1953年 - 1960年) : 1955年 貿易協定 체결. 1956年 日朝貿易會 결성 일조무역회 결성 그 후 중국의 대련항을 경유한 간접무역, 1957年 일조무역협정체결. 1958年 대련경유한 간접무역금지. 1959年 홍콩 경유한 간접무역 재개.

- 직접무역시대 (1961年 - 現在) : 1961年 4월부터 직접무역인정.
- 日·北韓貿易의 擴大와 債務問題의 發生시대 (1971年 - 1986年) : 北韓의 새로운 6個年計劃 (1971年 - 1976)의 시작으로 양국의 貿易擴大.
日本의 對北韓輸出은 급증, 輸入은 이에 못미쳐서 貿易黑字로 반전됨. (1971年이전까지는 日本의 적자였음). 따라서 債務問題가 發生됨.
- 채무연기교섭에 의한 재연기시대 (1976年 - 1986年)
 - 제 1차연기 합의 : 1976년 12월 (향후 3년간으로)
 - 제 2차연기 합의 : 1979년 10월 (향후 10년 20회 분할상환조건으로)
 - 제 3차연기 합의 : 1983년 2월 (향후 3년 6개월로)
- 1980年代의 日·北韓貿易
貿易總額은 점차 증가추세. 무역지수는 1987년부터 日本의 적자시현. (이유는 日本의 對北韓 채권 회수로 봄). 北韓의 해외시장으로서의 日本은 北韓에게 중요하므로 貿易總額은 擴大 예상됨.

3. 日·北韓間의 輸出入 商品構造

1) 輸出商品構造

- 가장 큰 비중 : 기계류, 전기기기, 수송기기 및 기타기기 (45% 이상)
- 두번째로 큰 비중 : 비금속 및 그 제품
- 세번째로 큰 비중 : 화학제품, 수지, 프라스틱, 고무 및 그 제품.
- 네번째로 큰 비중 : 방직용 섬유 및 그 제품
- 97 - 98%가 공산품임. (이유는 北韓이 제 3차 7개년 計劃期間中에 전기, 기계, 화학등 중화학공업육성위해 기계설비류를 대량수입함에 있음)

- 나머지 3% 이내가 1차 商品과 광산물임.

2) 輸入商品構造

- 가장 큰 비중 : 비금속 및 그 제품 (아연, 선철, 철강코일 등).
1983 - 85 中에는 점증, 1986 - 1988 中에는 점차 감소경향.
- 두번째로 큰 비중 : 귀석, 귀금속 및 그 제품 (주로 금). 금증추세.
- 세번째로 큰 비중 : 광산물 (무연탄, 마그네샤그랭카등)
 - 40 - 50%가 농·임·수산물등 1차산품과 광산물.
 - 日本의 對北韓 工業品輸出 (97 - 98%)에 비해서 수입은 매우 낮은 비중이며 그것마저도 경공업제품이 주류임.
 - 중화학공업제품은 1% 미만임.
- 네번째로 큰 비중 : 방직용섬유 및 그 제품 (부잠사, 허드렛고치등)

4. 日·北韓 貿易去來上의 問題點

- 1) 北韓의 심각한 외채문제와 외환사정문제
- 2) 北韓의 폐쇄적인 경제체제에 따른 협소한 市場問題
- 3) 北韓의 社會主義國家와의 經濟協力強化政策問題
- 4) 北韓의 낮은 經濟能力問題
- 5) 日·北韓 貿易去來의 실질적인 당사자문제
- 6) COCOM 규제의 강화문제

5. 日·北韓貿易의 展望

- KAL機 事件으로 인한 北韓의 이미지 하락으로 日本企業들의 對北韓 去來자제경향
- COCOM 규제의 강화로 소강상태
- 北韓의 조총련계 중심거래로 제한받음.

- 現在 日本의 對北韓貿易은 경제적 測面보다는 政治的 測面에서 추진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對北韓經濟開方化推進으로 日本의 對北韓 貿易規模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봄.

6. 日·北韓貿易을 통한 南·北韓 貿易可能品目

- 1987年 北韓의 對日本輸出: 비금속, 어패류, 보석, 목재—자원집약재
輸入: 기계, 전기, 부품
- 1987年 韓國의 對日本輸出: 섬유, 기계, 전기기기, 부품—자본·기술 집약재
輸入: 자본재, 중간재
- 北韓의 자원집약재를 한국에 輸出, 韓國의 자본·기술집약재를 北韓에 輸出可能性 있음. (특히 北韓의 비금속광물은 전량 수입에 依存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가능성 있는 對北韓 輸入品目임)
- 北韓의 對韓國 輸出可能品目: 알루미늄, 납, 선철, 아연괴, 양식용 산실장어, 무연탄, 철강코일, 철강웨이스트등
- 韓國의 對北韓 輸出可能品目: 냉장, 냉동기구, 전자기기, 타이어, 철강제품, 엔진, 승용차등
- 우리나라의 현행 수입관세율이 높은 명태(20%), 연체동물과 갑각류(20%), 페로알로이(10%), 아연괴(10%) 양식용 산실장어(20%) 등은 우리나라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관심품목임(대北韓貿易에는 關稅 면제로 되어 있기 때문임)

IV. 우리나라 民間企業의 對北韓貿易促進方案

1. 우리나라와 北韓間的 貿易去來推進現況과 問題點

1) 推進現況

- 1988년 10.7 조치이후 1989.1 말까지는 반입신청이 절대金額이나 물량면에서는 저조하였으나 (3천 367만 8백달러상당) 그 추세는 활발했음.
- 그 후 1989.2부터 격감 시작하여 1989.2 말 131만달러 신청, 3 말 73만달러 신청 (1988年 11 월말 1천 4백 61만달러, 12 월말 1천 6백 86만달러 신청과 비하면 隔減)
- 반입승인실적도 격감추세 (1988.11 월말 10만 4천달러, 12 월말 101만달러, 1989.1 월말 447만달러 그후 2 월말부터 격감하여 3 월말 47만 4천달러기록)
- 1989년 2 월부터 반입신청의 감소원인 : 對북한 物的交流가 우리나라 民間企業에게 기대의 實益을 주지 못했고, 효성물산이 반입한 무연탄 계약위반사건에 기인함.
- 1989년 3 월말까지의 반입승인품목 : 9개업체 25종으로서 무연탄이 제일 많고 (294만달러) 그 다음이 아연과, 전기동등 非鐵金屬製品 (246만 8천달러), 냉동명태등 냉동수산물 (46만 6천달러)
- 1989년 4 월부터는 對北韓貿易 全面 再檢討 중 (이유는 문목사등에 의한 불법 방북사건, 國內 生産者의 반발, 輸入에 따른 實益에 대한 회의론 대두)

2) 問題點

- 우리나라 政府와 北韓間에는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다는 점
- 北韓에서는 經濟開放으로 인한 체제의 유지에 위험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
- 우리나라 政府가 그동안 너무 서둘러서 進行시켰다는 점
- 우리나라가 국제수지흑자시대를 맞이했다고 해서 다소 자만심에 빠졌

다는 점

- 國內 生産者들에 依해서 강한 반발을 받았다는 점
- 우리나라 民間企業들이 과당경쟁을 보였다는 점

2. 政府와 民間企業에 對한 提案

1) 政策的 次元에서의 政府에 對한 提案

- 실용적이며 合理的인 南北韓 經濟交流協力을 위한 法則 制定
- 現行 수출보업의 보완이나 或은 새로운 保險制度 設立
- 세계, 金融, 보조금등에 의한 자금지원제도 設立
- 우리나라의 對北韓 經濟交流推進에 對한 北韓의 公式的인 동의획득
- 商品交易이외의 經濟協力도 병행추진
- 우리나라의 우방선진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협조요청
- 北韓研究에 對한 投資擴大
-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北韓의 態度를 보아가면서 진행, 꾸준한 인내필요

2) 貿易實務的 次元에서의 民間企業에 對한 提案

- 對北韓貿易去來를 行하고자하는 民間企業들 끼리의 지나친 경쟁지양
- 당분간은 수평적 去來推進
- 당분간은 間接貿易利用
- 당장의 눈에 보이는 實益추구 지양
- 초기에는 구상무역방식을, 長期에는 東·西獨의 청산거래방식을 추구
- 같은 조건이면 같은 民族의 商品을 구매하겠다는 民族的 意識으로 원조라든가 外債상환에 협조하겠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祖國 統一에 일조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임함.

目 次

| | |
|--|-----|
| I. 問題의 提起 | 93 |
| II. 北韓의 對外貿易環境分析과 展望 | 95 |
| 1. 北韓의 對外貿易概況과 推移 | 95 |
| 2. 北韓의 國別對外貿易現況 | 97 |
| 3. 北韓의 對外貿易政策 | 115 |
| 4. 北韓의 貿易機關·商社·保險 | 117 |
| 5. 北韓의 貿易去來形態와 決濟方法 | 118 |
| 6. 北韓의 關稅制度 | 119 |
| 7. 北韓의 對外貿易環境의 展望 | 119 |
| III. 日本의 對北韓 貿易去來分析과 展望 | 121 |
| 1. 一般的 概況 | 121 |
| 2. 日·北韓貿易의 歷史 | 123 |
| 1) 間接貿易時代(1953年-1960年) | 123 |
| 2) 直接貿易時代(1961年-現在) | 124 |
| 3) 日·北韓貿易의 擴大와 債務問題의 發生時代(1971年-1975年) | 125 |
| 4) 債務延期交渉에 의한 再延期時代(1976年-1986年) | 126 |
| 5) 1980年代의 日·北韓貿易 | 127 |

| | |
|------------------------------------|-----|
| 3. 日・北韓間の 輸出入商品構造 | 132 |
| 1) 輸出商品構造 | 132 |
| 2) 輸入商品構造 | 133 |
| 4. 日・北韓貿易去來上の 問題點 | 135 |
| 5. 日・北韓貿易의 展望 | 137 |
| 6. 日・北韓貿易을 통한 南・北韓貿易可能性品目 | 139 |
| | |
| IV. 우리나라 民間企業의 對北韓貿易 推進方案 | 141 |
| 1. 우리나라와 北韓間の 貿易去來 推進現況과 問題點 | 141 |
| 1) 推進現況 | 141 |
| 2) 問題點 | 144 |
| 2. 政府와 民間企業에 對한 提案 | 146 |
| 1) 政策的 次元에서의 政府에 對한 提案 | 146 |
| 2) 貿易去來의 次元에서의 民間企業에 對한 提案 | 147 |
| | |
| 參考文獻 | 150 |

I. 問題의 提起

우리가 北韓과의 交易을 擴大하고자하는 基本目標은 交易增進을 통하여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해소하고 南北韓間의 協力體制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이룩함에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北韓과의 交易은 1979年 第2次 Oil Shock 때 긴급조치로서 北韓産 無煙炭 120 만t을 1983年까지 輸入한 것이 최초였다. 이 밖에 제3국의 仲介商을 통하여 옥수수등 北韓産 곡물을 일부 搬入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交易件數나 物量이 아주 미미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北韓으로부터 間接貿易으로나마 搬入했거나 導入中에 있는 北韓商品은 17개품목에 493 만 3천달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北韓 商品을 輸出한 것은 몇년전 칼라TV 8만대를 北韓 商標를 부착하는 OEM方式으로 輸出한 것이 전부이다.

그렇다면 北韓과의 貿易을 擴大하기 위해서는 어떤 品目を 어떠한 方法으로 어떻게 接近해야 할 것인가의 課題가 주어진다.

北韓의 體制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政府의 基本的인 對外貿易政策과 關聯法 制度下에서 民間企業의 貿易業務를 수행하게 되어있는 바, 우리나라의 民間企業들이 철저한 中央集權의이며 計劃經濟的이며 自給自足方式을 取하고 있는 北韓과의 貿易을 擴大시키기 위해서는 北韓과의 貿易去來經驗이 많은 日本의 經驗을 分析해 보는것이 必要하다고 본다.

환언하면 日本은 北韓의 立場에서는 소련·中國에 이은 세번째로 큰 貿易相對國이며, 우리나라의 立場에서는 美國에 이은 두번째로 큰 貿易相對國이기 때문에 1953年부터 시작한 日本·北韓間의 貿易去來를 分析하여 이를 參考로 우리나라와 北韓間의 貿易에 應用하는 方法이 가장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길이다.

이에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最近 日本의 對北韓貿易去來經驗을 分析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民間企業의 對北韓貿易을 促進시키기 위한 政策을 提示하고자 함을 研究目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研究目的을 수행하기 위하여 第Ⅱ章에서는 北韓의 對外貿易環境을 分析하고 展望해 보며, 第Ⅲ章에서는 最近 2~3年間の 日本의 對北韓 貿易去來를 分析하고 展望해 보며, 第Ⅳ章에서는 우리나라와 北韓間的 貿易去來의 現況分析을 통하여 몇가지 問題點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民間企業들이 對北韓 貿易促進을 強化시킴에 要求되는 몇가지의 政策的 提案을 우리나라 政府와 民間企業들에게 提示한다.

II. 北韓의 對外貿易環境分析과 展望

1. 北韓의 對外貿易概況과 推移

北韓은 國家經濟計劃의 構成要素(政治와 經濟의 一致化, 自主的 民族經濟路線의 高수 및 互惠平等)를 基조로 하여 輸入優先主義와 輸出入均衡主義를 原則으로 삼아 商品別·國家別 貿易計劃을 樹立하고 있다.

北韓은 현재 40 여개국과 交易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貿易統計등 一般經濟指標을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北韓의 交易相對國들로부터의 統計를 入手한 間接的인 方法을 통해서만 北韓의 統計를 파악할 수가 있다.¹⁾

北韓은 交易相對國에 따라 그들의 交易方針을 달리하고 있다. 즉 같은 社會主義國家와는 交易關係를 긴밀히 擴大·發展시키어 貿易을 최대한으로 장려하고 있으나, 西方資本主義 先進國과 開發途上國과는 經濟·技術上的 의존을 최소화하고 다만 政治的 紐帶強化를 이룩하기 위하여 經濟的 手段을 최대한으로 利用하고 있을 따름이다.

北韓에는 基本貿易計劃, 年間貿易計劃, 輸出入實行計劃등 세가지의 貿易計劃이 있으며, 이 貿易計劃을 基本으로 하여 輸出入品目과 數量, 地域別 目標등을 樹立하고 있다. 실제적인 作成에서는 貿易部가 國家計劃委員會, 貿易銀行 및 貿易商社와 긴밀한 協議하에서 外貨需給計劃을 고려하고 있다.

1) 대체적으로는 北韓의 貿易相對國들의 對北韓 輸出을 北韓의 輸入으로, 對北韓 輸入을 北韓의 輸出로 計上한 다음 CIF, FOB 價格으로 換算하는 方法에 의해서 北韓의 貿易現況을 파악하고 있는데, IMF의 DOTS 에서는 CIF 가격과 FOB 가격간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貿易相對國의 對北韓 輸出額과 同 輸入額에 각각 1.1을 나누고 또는 곱해서 北韓의 輸入額과 輸出額을 파악하고 있다.

北韓의 貿易推移를 보면 1950年代와 1960年代에는 貿易規模가 꾸준히 완만하게 상승했다가, 1970年代에는 급증하는 경향을 나타내면서도 上昇과 下落을 번갈아 나타냈는데 특히 輸入의 경우가 더욱 波動의 폭이 크게 나타났다.

北韓은 第3次 7個年計劃에서 總貿易額을 3.2倍 增大, 加工貿易·機械設備(工作機械, 重型火車船舶, 電氣機械, 農機械)·鑛産物의 輸出增大, 非鐵金屬輸出의 5倍 增大, 마그네슘크랭크輸出 2倍 增大, 輕工業製品(피복가공제품, 신발, 도자기류, 유리제품, 범랑칠기, 수지용품)·農水産物(채소, 과일,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輸出增大, 地方貿易, 변경貿易(수산물, 경공업, 토산물, 약초류)의 增大, 그리고 輸出品 生産基地를 新設하는 것들을 주요 골자로 計劃하였다.

JETRO 에 따르면 北韓의 1986年과 1987年의 貿易規模는 각각 31억 31백만달러와 35억 4천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987年은 前年度에 比해서 13.1%가 增加하였다.

현재 北韓과 交易하고 있는 나라는 日本, 西歐(12개국), 아시아(7개국), 中東·아프리카(10개국), 美洲(4개국), 5大洋洲(2개국), 社會主義諸國(5개국) 등 40개국들인데 이 중에서 1987年 소련과의 貿易이 19억 5천만달러, 中國과는 5억 2천만 달러로 兩國이 北韓全體貿易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日本(4억 5천만달러), 西獨(2억 6천만달러), 홍콩(1억 4천만달러), 인도네시아(5천 6백만달러), 프랑스(3천 9백만달러)이 잇고 있다.

北韓의 貿易規模는 1980年 이후 外債問題와 주요수출상품인 鑛産物의 國際時勢가 下落하게 됨에 따라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87年 對소련 貿易의 擴大로 말미암아 다소 회복되고 있다.

北韓의 貿易收支는 해방이후 현재까지 거의 赤字를 면치 못하였다. 대체적으로 보면 1960年代의 貿易赤字幅의 比率은 貿易規模의 10% 정도이었으나, 1970年代에는 20-30%정도로 증가하였다. 그 이유로서는 1970年代初에

貿易規模가 증가하면서 輸入의 增加率이 輸出의 增加率을 크게 상회하였음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貿易赤字의 누적은 1974年부터는 北韓의 經濟規模에 비해 너무 커져 심각한 外債問題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北韓의 外債規模는 輸出入額과 같은 20억달러정도 이었으나, 그 이후 계속 급증하여 1987年末에는 52.1억달러가 되었다.

2. 北韓의 國別 對外貿易 現況

北韓의 主要 貿易相對國인 약 40여개국의 貿易統計를 보면, 1987年の 北韓의 對外貿易은 輸出이 14억 6,439만달러 (1986年 對比 11.1% 증가), 輸入은 20억 7,589만달러 (前年對比 14.5% 증가)로서 총 35억 4,028만달러 (前年對比 13.1% 증가)를 기록하였다.

이와같이 輸入의 伸張率을 상회한 결과 貿易收支는 6억 1,150만달러의 적자를 보여 1986年の 赤字幅보다 23.8%가 증가되어 그 赤字幅은 더욱 擴大되었다. 최근에 北韓의 對外貿易은 活潑하여 총무역액은 1984年末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貿易收支는 1982年과 1984년에 약간의 개선을 보이기는 했으나 그 이외에는 거의 연속적으로 赤字幅을 擴大시켜 나가고 있는 바, 이러한 현상은 향후 상당한 문제점으로 인식될 것이다.

北韓의 對日貿易에 관하여서는 1987年の 對日輸出은 2억 2,966만달러 (前年對比 39.5% 증가), 對日輸入은 2억 2,443만달러 (前年對比 16.2% 증가)로서 총 貿易額은 4억 5,408만달러 (前年對比 26.9% 증가)를 기록하였다. 1986년에 輸出과 輸入이 모두 減少한 것에 비교하면 貿易額의 추이는 호조를 보인 것이며 또한 輸出伸張率이 輸入伸張率보다 능가하여 貿易收支는 前年の 2,851만달러 赤字에서 523만달러의 흑자로 전환했다.

日本은 北韓의 貿易相對國으로서는 소련, 中國에 이어서 第3位の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한편 西方側 貿易相對國으로서의 최대의 規模를 차지하고 있다. 소련, 中國과의 貿易에 관하여 보면 1987年의 對소련貿易은 輸出과 輸入이 모두 19억 4,770만달러를 기록하여 前年對比 13.2%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편 對中國은 輸入이 前年對比 10.9%가 증가했음에 비하여 輸出은 14.4%가 감소하여 총무역액은 2.4%가 감소하였다.

1) 北韓의 對西歐貿易

1987年 北韓의 11個 西歐諸國(英國, 프랑스, 西獨, 덴마크, 스페인, 그리스, 등)과의 總貿易은 2억 4,331만달러(前年對比 20.1%증가)로서 그중 輸出은 1억 5,501만달러(前年對比 42.4%증가)이며, 輸入은 8,830만달러(前年對比 5.8%감소)를 기록하였다. 이와같이 輸入은 감소한 반면에 輸出은 크게 증가하여 貿易黑字는 4.4배로 擴大되었다.

北韓의 主要貿易相對國은 西獨과 프랑스이며 이들 國家와의 貿易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스페인은 金額은 相對적으로 적지만 輸出과 輸入은 모두 상당한 伸張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리스로의 輸出이 前年度에 비하여 急增되고 있는것이 주목된다.

① 英國

北韓의 對英國貿易은 1986년에는 輸出이 137만파운드(92만달러), 輸入이 333만파운드(225만달러)이었으며, 1987년에는 輸出이 64만파운드(34만달러)로서 前年對比 53.3%가 감소하였으며, 輸入은 219만파운드(116만파운드)를 기록하여 前年對比 34.0%가 감소하여 1986年 總貿易額 47.0만달러(317만파운드)에서 1987年 總貿易額 283만파운드(150만달러)를 기록하여 前年對比 40%나 감소하였다.

品目別로 보면, 北韓의 對英國輸出은 主要 輸出品目이었던 鐵鋼이 1986年의 94만 2,000파운드에서 1987년에는 1만파운드로 격감하였다. 1987年의 對英

國輸出의 특징으로서는 기계류의 輸出이 증가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特殊産業用機械, 電子機器등이 증가했다. 기타의 증가품목으로는 섬유류가 있다.

한편 輸入에서는 機械·輸送機器가 증가한 것外에는 모두가 격감하고 있다. 機械類輸入이 증가한 原因으로서는 特殊産業用機械가 前年對比 3.1 倍의 64 만 파운드를 기록한 것이 지적될 수 있다. 또한 發電機械가 11 만파운드(前年對比 3.1 倍), 一般機械가 16 만파운드(前年對比 11.0 %증가)로 신장되었으나 기타의 기계류는 모두 前年對比 減少한 것으로 보여진다.

② 프랑스

北韓의 對프랑스貿易은 1986 年에는 輸出이 5,710 만프랑(888 달러), 輸入이 6,518 만프랑(1,013 만달러)이었으며, 1987 年에는 輸出이 5,705 만프랑(1,070 만달러)로서 前年對比 프랑貨로서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달러貨로서는 20.5 %가 증가하였으며) 輸入은 1억 5,717 만프랑(2,948 만달러)로서 前年對比 141.1 %가 증가하였다.

北韓의 프랑스와의 經濟關係는 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兩國間에는 外交關係가 아직 樹立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北韓의 總代表部가 파리에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經濟交流는 모두 民間베이스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프랑스政府는 北韓으로의 輸出에 있어서는 輸出信用을 供與하지 않고 있다.

北韓의 對프랑스 貿易規模는 크지 않으며 항상 貿易赤字를 보이고 있다. 北韓의 1987 年의 輸入品目中에서도 철도용설비기기가 눈에 띈다.

北韓의 對프랑스 債務는 아직도 償還되지 않고 있으며 그 債務總額은 약 9억프랑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③ 西獨

北韓의 對西獨貿易은 1986 年의 輸出이 1억 5,466 만마르크(7,972 만달러)로서 前年對比 11.0 %가 감소하였으며, 輸入은 8,357 만마르크(4,317 만달러)

北韓의 商品別 對英國輸出入

(單位：1,000 파운드)

| | 輸 出 | | | 輸 入 | | |
|----------------|-------|------|--------|-------|-------|--------|
| | 1986 | 1987 | 前年對比% | 1986 | 1987 | 前年對比% |
| ○ 식료품 및 산동물 | 2 | - | - | 719 | 43 | △ 94.0 |
| 1. 음료 및 담배 | - | - | - | 333 | 149 | △ 55.3 |
| 2. 원 료 (연료제외) | - | 55 | - | 178 | 12 | △ 93.3 |
| 3. 광물성연료·광물성제품 | - | - | - | 7 | - | - |
| 4. 동식물성유지류 | - | - | - | - | - | - |
| 5. 화학공업생산품 | 25 | 23 | △ 8 | 544 | 307 | △ 43.6 |
| 6. 원료별 제품 | 1,033 | 203 | △ 80.3 | 383 | 192 | △ 49.9 |
| 7. 기계·수송기기 | 150 | 222 | 48 | 6.84 | 1,237 | △ 80.8 |
| 8. 기타 제품 | 163 | 137 | △ 16.0 | 483 | 258 | △ 46.6 |
| 합 계 | 1,374 | 641 | △ 53.3 | 3,331 | 2,198 | △ 34.0 |

자료 : Overseas Trade Statistics of the U.K, 1986.1987

로서 前年對比 18.6%가 증가하였다. 1987年 1~6月 實績으로 보면 輸出이 8,429만마르크(5,334만달러)로서 前年同期對比 17.5%가 감소하였으며 輸入은 5,220만마르크(3,303만달러)로서 前年同期對比 73.6%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7年 1月~12月 實績으로 보면 北韓의 對西獨輸出이 1억8,640만마르크(1억1,797만달러)로서 前年對比 20.5%가 증가하였으며 輸入은 2억2,200만마르크(1억4,050만달러)로서 前年對比 168.8%로 급증하였다.²⁾

한편 北韓의 西獨으로서의 주요 輸出品으로서는 産業用金, 鉛, 希土類, 皮革製品 등이 있으며 西獨으로부터의 主要輸入品으로서는 製品類, 그 중에서도 機械設備, 電氣製品, 自動車 外 펌프 및 압착공기기계 등이 있으며, 半製品으로서는 1986년에는 주로 合成樹脂類(플라스틱), 기타 化學半製品, 鋼管이 輸入되었다. 그리고 食糧品으로서는 植物性脂肪과 食用油가 주된 輸入品이 되었다.

北韓과 西獨間의 貿易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점으로서는 北韓의 輸入代金支拂의 지연을 들 수 있다. 西獨의 輸出關聯者의 설명에 의하면 北韓은 정해진 輸入代金支拂期限을 1년이상 경과하고서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代金規模는 수십만마르크에서 수백만마르크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北韓으로의 輸出을 행하고자하는 西獨企業들은 先拂條件이나 혹은 바터去來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西獨의 貿易關聯者는 일반적으로 北韓의 對西方側 債務額이 약 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對北韓貿易에 있어서는 西獨企業들은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또한 對北韓비즈니스에서는 상

2) 北韓이 1987년에 西獨으로부터의 輸入이 이렇게 급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자세한 統計가 入手되지 못하여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가 없다.

당히 신중하고 냉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西獨은 貿易去來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經濟關係도 맺고 있지 않다. 최근 北韓이 合營法을 制定(1984年9월)하는 등 開放의 자세를 일부 보이고는 있으나, 西獨企業에 의한 合營프로젝트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④ 덴마크

北韓의 對덴마크貿易은 1986년에는 輸出이 278 만크로네(37.8만달러), 輸入이 1,460 만크로네(198.7만달러)이었으며 1987년 1월~7월에는 輸出이 91 만크로네(14.9만달러), 輸入이 351 만크로네(57.5만달러)로서 貿易規模는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덴마크 政府當局은 兩國의 貿易量이 적고 關聯民間企業도 적기 때문에 個別企業의 資料가 不明하다. 北韓의 덴마크에 대한 債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덴마크輸出信用評議會(Exportkreditradet)는 北韓의 輸入先金支拂條件에 있어서 輸出保險을 적용시킨 경우가 있다. 이것은 1975년 北韓의 Koe Joyang Trading Corp에 대하여 840만서독마크 상당의 冷却裝置를 輸出한 경우인데 약간의 利子を 지불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支拂되지 않고 있다. 이 條件에서는 덴마크 企業이 危險의 20%를 自己負擔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未支拂 事件때문에 덴마크輸出信用評議會는 北韓間輸出에 대하여서는 輸出信用을 공여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덴마크가 北韓으로 輸出을 하고 있는것은 代金先拂條件에 의한 것으로 推測되고 있으며 機械類의 部品類(Spare Parts)가 주된 것으로 되어 있다.

덴마크와 北韓間에는 어떠한 公式的인 關係가 成立되어 있지 않지만, 1987년 6월에 北韓에 副首相이 덴마크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目前에 취소되고 만적이 있다.

⑤ 스페인

北韓의 對스페인貿易은 1986 年에 輸出이 3 億 3,798 만페세타 (241 만달러), 輸入이 1 億 8,356 페세타 (131 만달러) 이었으며 1987 年에는 輸出이 5 億 3,096 만 페세타 (426 만달러) 로서 前年對比 57.0 %가 증가했으며, 輸入이 4 億 5,563 만페세타 (365 만달러) 로서 前年對比 148.3 %가 증가하여 총무역액은 80 %가 증가하였다.

⑥ 그리스

北韓의 對그리스貿易은 1986 年에 輸出이 47 億 2,950 만드라크마 (3,459 만 달러) 輸入이 8 億 7,357 만드라크마 (639 만달러) 이었으며, 1987 年 1 月—7 月 에는 輸出이 147 億 5,606 만 드라크마 (1 億 1,169 만달러), 輸入이 2 億 7,906 만 드라크마 (211 만달러) 이었다.

2) 北韓의 對아시아貿易

1987 年 北韓의 아시아 6 개국 지역 (일본제외) 과의 貿易은 輸入은 1 億 117 만달러 (前年對比 85.2 %증가), 輸出이 1 億 6,862 만달러 (前年對比 29.5 %증가) 로서 總貿易額은 2 億 6,979 만달러 (前年對比 46.0 %증가) 로서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다.

北韓의 아시아地域에 있어서의 주요 貿易相對國은 홍콩, 인도, 싱가포르이며 이 3 개국과의 貿易이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아시아지역 전체에서의 貿易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한편 태국, 인도네시아로의 輸出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은 특기할만하다.

① 홍콩

北韓의 對홍콩貿易은 1986 年 輸出이 1 億 9,281 만홍콩달러 (2,471 만美달러) 輸入이 5 億 8,250 만 홍콩달러 (7,468 만美달러) 이었으며, 1987 年은 輸出이 2 億 4,768 만 홍콩달러 (3,175 만美달러), 輸入이 8 億 3,074 만홍콩달러 (1 億 650 만 美달러) 를 기록하여 前年對比 輸出이 28.4 % 증가하고 輸入 42.6 %

가 증가하여 貿易擴大가 大幅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② 싱가포르

北韓의 對싱가포르貿易은 1986年 輸出이 1,932 만 싱가포르달러 (888 만美달러)로서 前年對比 31.5 % 증가, 輸入이 5,681 만 싱가포르달러 (2,611 만美달러)로서 前年對比 14.2 %가 증가하였으며, 1987年 1月~11月은 輸出이 2,762 만 싱가포르달러 (1,381 만 美달러), 輸入이 5,800 만 싱가포르달러 (2,901 만달러)를 기록하여 前年과 비교해 輸出入 모두 증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ECIS (Export Credit Insurance Corporation of Singapore Ltd.)에 의하면 北韓은 싱가포르에서는 輸出保險의 對象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지의 은행들도 對北韓貿易去來에 대해서는 輸出어음을 일반적으로 買入하지 않는 상황이다.

③ 印度

印度政府商務省에 의하면, 北韓의 對印度와의 貿易은 1985.4 ~ 1986.3 에 輸出이 1억 6,800 만루피 (1,290 만달러)로서 前年對比 21.4 % 증가, 輸入이 8,500 만루피 (6,500 만달러)로서 前年度對比 19.7 % 증가하였으며, 1986.4 ~ 1987.3 에는 輸出이 5억 6,010 만루피 (3,890 만달러)로서 前年度對比 201.0 % 증가, 輸入이 2억 4,450 만루피 (1,880 만달러)로서 前年度對比 187.6 %가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1987年 4月~6月에는 輸出이 8,190 만루피 (630 만달러), 輸入이 1억 2,040 만루피 (920 만달러)를 기록하였다.

1986.4 - 1987.3 에 있어서 北韓의 對印度貿易量이 현저하게 급증을 하였는 바, 이의 原因을 살펴보면 求償貿易方式에 의한 약 5,220 만루피 (약 401 만달러)상당의 鐵板, (약 1,000 만루피 (76 만달러)상당의 亞鉛, 生絲, 化學品の 對印度 輸出도 포함이 되나 이것은 求償貿易方式이 아니었다)의 對印度 輸出과 약 1억 3,340 만루피 (약 1,026 만달러)상당의 小 및 2,870 만루피 (약 220 만달러)상당의 鐵鑛石, 소금 및 雲母등의 對印度輸入에 기인한다.

印度政府의 貿易關係者에 의하면, 兩國의 1987年 4月—6月에 印度가 3,850 만루피 (296 만달러)의 出超 (北韓의 入超)를 기록하였지만 이것은 同期의 小麥輸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영속적인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北韓의 對印度輸出에 있어서도 과거의 주종품목이었던 시멘트가 印度國內에서의 生産量增加에 기인하여 輸出量이 점점 감소하는 경향에 있기 때문에 北韓의 對印度貿易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印度에는 National Aluminium Co. Ltd. (國營企業)에 의한 포 오키사이트 /알미나 /알루미늄의 精練프로젝트가 있으나, 알미나 /알루미늄精練의 工程이 電力不足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알미나의 生産量이 쌓이고 있다. 이때문에 최근에 8,000 만톤의 알미나輸入契約이 이루어져 1988年1월에 北韓으로 선적된 바 있다.

北韓의 對印度輸出入

(단위 : 100 만루피)

| 年 度 | 輸 出 | 伸張率 | 輸 入 | 伸張率 | 貿 易 | 伸張率 | 貿易收支 |
|---------|-------|--------|-------|-------|-------|--------|-------|
| 1983/84 | 324.8 | 89.2 | 61.7 | 73.3 | 386.5 | 86.4 | 263.1 |
| 1984/85 | 138.4 | △ 57.3 | 71.0 | 15.0 | 209.4 | △ 45.8 | 67.4 |
| 1985/86 | 168.1 | 21.4 | 85.0 | 19.7 | 253.1 | 20.9 | 83.1 |
| 1986/87 | 506.1 | 201.0 | 244.5 | 187.6 | 750.6 | 196.5 | 261.6 |

④ 태 국

北韓의 對태국貿易은 1987年 1月—9月中 輸出이 2억 3,374 만바이트 (905 만달러)로서 前年對比 32.2% 증가하였고, 輸入은 1억 1,216 만바이트 (434 만달러)로서 前年對比 66.8%로 대폭 증가하였다.

⑤ 인도네시아

北韓의 對인도네시아貿易은 1986년에 輸出이 424 만달러로서 前年對比 36.7%

가 증가하였으며 輸入은 373 만달러로서 前年對比 72.0 %가 감소하였으며, 1987年 1月—8月중에는 輸出이 1,285 만달러, 輸入이 176 만달러로 輸出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兩國貿易에 있어서 北韓의 輸入代金未支拂問題가 있기는 하지만 큰 問題는 아닌듯 싶다.

3) 北韓의 對中東·아프리카貿易

北韓의 對中東·아프리카貿易關係는 전반적으로 미약한 상태이다. 中東地域에 있어서의 主要貿易相對國은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며, 아프리카地域에 있어서는 輸出은 브룬디, 輸入은 모잠비크에서 比較的 많은 去來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짐바브웨와 去來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① 이란

北韓의 對이란貿易은 1984.3.21—1985.3.20에 있어서 輸出이 1억 6,119 만리알 (175 만달러), 輸入은 전혀 없으며, 1985.3.21—1986.3.20에 있어서는 輸出이 910 만리알 (10 만달러)로서 前年對比 94.3 % 감소하였으며 輸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란은 우리나라와 北韓 모두와 國交를 맺고 있으나 經濟關係는 우리나라가 優位에 있다.

② 이집트

1986年 北韓의 對이집트貿易은 輸出이 10 만이집트파운드 (4.8 만달러), 輸入은 1,204 만 이집트파운드 (537 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987年 1月—10月은 輸出은 9 만이집트파운드 (4 만달러), 輸入은 80 만 이집트파운드 (35 만달러)를 기록하였다.

北韓—이집트의 貿易關係는 해마다 增減이 심하여 대단히 不安定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87年 10月에는 兩國間에 貿易議定書가 調印된 바 있는데, 同議定書의 상세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4,400만달러 정도의 貿易規模(정확한 期間은 不明임)가 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③ 알제리아

北韓은 알제리아와 國交를 맺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國交를 맺고있지 않고 있다.

北韓의 對알제리아貿易은 1986年 輸入은 7,663 데이나알(1,502달러), 輸出은 242만 3,806 데이나알(47만 5,256달러), 輸入은 242만 3,806 데이나알(47만 5,256달러)을 기록했다. 주요 輸出品目은 보일라, 엔진類, 合成人工纖維이며 輸入品目은 炭化水素이다.

1987年 1月-9月の 輸入은 아직 去來가 없으며 輸出은 4만 1,852 데이나알을 기록하였다.

北韓의 對알제리아貿易

(단위: 데이나알)

| | 1986年 | | 1987年(1月-9月) | |
|-------------|-----------|-------|--------------|-----|
| | 輸 出 | 輸 入 | 輸 出 | 輸 入 |
| 炭 化 水 素 | | 7,663 | | |
| 製 品 | 7,253 | | | |
| 合 成 人 工 纖 維 | 1,139,880 | | | |
| 우 산 類 | 79,649 | | | |
| 보일라, 엔진類 | 1,172,906 | | 31,321 | |
| 電 氣 製 品 | 32,603 | | 10,531 | |
| 안 경 製 品 | 515 | | | |
| 合 計 | 2,423,806 | 7,663 | 41,852 | |

자료: 알제리아關稅局

④ 탄자니아

北韓의 對탄자니아貿易은 1986년에 輸出이 1,006만 탄자니아셸링(11만달러), 輸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987년 1—9월에 輸出이 4,036만탄자니아셸링(44만달러), 輸入이 193만 탄자니아셸링(2만달러)을 기록하였다. 1986년에 있어서 주요한 輸出品目으로서는 自動車用타이어, 폴리에틸렌製袋, 鐵鋼製品이 있다.

⑤ 자이레

자이레稅關에 의하면, 北韓과 자이레間의 貿易은 極히 소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北韓의 對자이레輸出은 1986년에 4,447만자이레(65만달러), 1987년 1월—4월에 37만자이레(3,000달러)가 이루어졌으나, 輸入은 兩期間 동안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兩國間에는 자이레의 鑛産物을 주요한 協力協定이 체결되어 있으나 실행되지는 않고 있다.

北韓의 對자이레輸出品으로서는 合成纖維·織物·通信機, 승용차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合成纖維와 織物은 最近의 주요품목으로 되어있다. 그 구성비율을 보면, 1986년에는 合成纖維·織物이 전체의 58%를 차지하였고 무선전화·전신기기가 33%를 차지하였다. 1985년에는 北韓이 승용차를 상당히 輸入하여 輸入總額의 42%를 차지하기도 했으나 1986년에는 격감의 현상을 나타냈다.

⑥ 짐바브웨

北韓의 對짐바브웨貿易은 1986년 輸出이 390만 짐바브웨달러(232만달러)로서 前年度對比 129.4% 증가, 輸入이 1,220만 짐바브웨달러(727만달러)로서 前年對比 177.2% 증가하였으며, 1987년 1월—9월에는 輸出이 460만 짐바브웨달러(275만달러), 輸入이 80만 짐바브웨달러(47만달러)를 기록했다.

4) 北韓의 對 美洲 및 大洋洲貿易

① 캐나다

北韓의 對캐나다貿易은 1986 年에 輸出이 61 만 캐나다달러 (44 만美달러) 로서 前年度對比 27.9 % 증가 輸入이 127 만 캐나다달러 (92 만美달러) 로서 前年對比 6.4 % 증가를 보였으며, 1987 年 1 月—9 月중 輸出이 142 만 캐나다달러 (109 만美달러) 輸入이 617 만 캐나다달러 (472 만美달러) 를 기록하였다.

캐나다政府는 北韓을 承認하고 있지 않으므로 公式的인 關係는 맺지않고 있으나 人的交流關係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貿易關係는 장려는 하고있지 않으나 合法的이다. 캐나다政府의 輸出計劃時에 北韓을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예컨데 EDC (Export Development Corporation) 도 對北韓 輸出에 있어서의 保險業務는 담당하지 않고 있다.

北韓의 對캐나다貿易

(단 위 : 1,000 캐나다달러)

| 품 목 | 1985 年 | | 1986 年 | | 1987年1~9月 | |
|------|--------|-------|--------|-------|-----------|-------|
| | 수 출 | 수 입 | 수 출 | 수 입 | 수 출 | 수 입 |
| 小 麥 | 272 | - | 11 | - | 883 | 5,820 |
| 펄 프 | - | 578 | 148 | 378 | - | 89 |
| 新聞用紙 | 144 | - | 147 | 843 | 217 | - |
| 總 計 | 480 | 1,196 | 614 | 1,273 | 1,429 | 6,176 |

② 美 國

美國은 종래부터 對北韓貿易을 「 Trading With Enemy Act 」 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어서 兩國의 貿易은 거의 全無하다. 1987 年에 들어서면서부터 美

國政府는 對北韓 關係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行동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 식료품, 등의 人道的 物資에 關係 한정된 범위에서 北韓과의 直接交易를 개시하고자 시도했었다.

그러나 1987年 11월에 발생한 소위 「大韓航空機事件」을 계기로 하여 정세는 크게 變化했다. 美國政府는 1988年 1月20日, 北韓에 대한 制裁措置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첫째 第3國에서의 美國外交官의 北韓外交官의 接觸금지, 둘째 貿易規制의 強化, 셋째 北韓關係者의 美國入國禁止등이 주요한 것들이다.

또한 美國 下院外交委員會 아시아·太平洋小委員會는 1988年 2月4日, 北韓 友邦國을 포함한 全世界 各國政府에 對北韓貿易의 全面禁止등의 制裁를 요청하는 決議를 채택했다.

美商務省의 北韓擔當官에 의하면, 美國은 1988年 1月現在 北韓에 對하여 全面的인 禁輸措置를 단행하여 貿易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美國에서의 對北韓輸出은 人道的인 경우에만 認定은 되고 있으나 1986年, 1987年 모두 실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北韓의 對美 債務(주로 輸入代金未支拂)도 全無이다.

③ 브라질

北韓의 對브라질貿易은 1986年の 輸入은 85.8만달러, 1987年 1月—11月の 輸入은 5.7만달러가 이루어졌으나 兩年の 輸出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비록 이루어졌다고 해도 極히 소규모인 것으로 보인다.

北韓의 對브라질 輸入品目으로서는 酒類用알콜, 石英, 기타의 合金, 電氣用炭素 브릿쉬素材, 기타의 貴石, 半貴石, 研磨·加工品, 電氣回路의 接續機器·部品등을 들 수 있다.

브라질 銀行의 담당자에 의하면, 北韓과의 輸出代金決済 및 輸出保險에 있어서 問題된 事例은 없으나 兩國間의 貿易關係는 단기간내에 擴大시킬 可能

성은 작으며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④ 페 루

北韓의 對페루貿易은 1986년에 輸出이 10만달러, 輸入이 98만달러 이었으며, 1987년 1월—9월중에 輸出은 1,440만달러, 輸入은 제로이었다. 1987년의 輸出의 急增은 1,427만달러의 精米에 따른 것이다.

⑤ 호 주

北韓의 對호주貿易은 1985년 7월~1986년 6월의 輸出은 98만 호주달러 (66만美달러) 輸入은 656만 호주달러 (444만美달러) 이었으며, 1986년 7월~1987년 6월의 輸出은 80만 호주달러 (57만美달러)로서 前年度對比 18.6% 감소 輸入은 2,966만 호주달러 (2,136만美달러)로서 前年度對比 351.8% 증가를 보였다.

5) 北韓의 對社會主義圈貿易

北韓의 1987年度 對소련, 東歐 2個國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中國貿易은 輸出이 9억 5,401만달러 (對前年度對比 2.5% 감소), 輸入이 15억 6,617만달러 (前年對比 14.0% 증가) 총貿易額이 25억 2,018만달러 (對前年度對比 7.2% 증가)를 나타냈다.

이 중에서 北韓의 對소련貿易은 輸出入 모두 증가를 나타냈는데 반하여 對中國貿易은 輸出은 감소하고 輸入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貿易赤字를 기록한 것이 특징적이다.

① 소 련

北韓의 1987년 對소련貿易은 輸出이 4억 3,190만루블 (6억 8,270만달러)로서 前年度對比 6.3% 증가, 輸入은 8억 20만루블 (12억 6,490만달러)로서 前年度對比 17.3% 증가), 總貿易額은 12억 3,210만루블 (19억 4,770만달러)로서 前年度對比 13.2% 증가하여 輸出入 모두 증가를 나타냈다.

최근 北韓과 소련과의 貿易關係는 擴大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北韓의 最大貿易相對國의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北韓의 對소련輸出品으로서는 마그네사이트 크랭카, 衣料品, 축전지등이 주요한 品目으로 되어있으며 이들의 1986年度 伸張率은 각각 21.1%, 49.5%, 16.3%이었다. 한편 輸入品으로서는 機械·設備·輸送手段, 原油·石油製品, 固體燃料, 航空技術品, 綿花등이 주요한 品目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의 1986年度 伸張率은 각각 Δ 6.1%, Δ 13.2%, 9.9% 이었다.

② 유고슬라비아

北韓의 對유고슬라비아貿易은 1986年 輸出이 3억 9,189 만데이나알 (148만달러)로서 前年度對比 7.4% 증가, 輸入은 3억 2,835만 데이나알 (124만달러)로서 前年度對比 221.5% 증가를 나타냈다. 1985년에는 輸出이 前年度對比 11.9% 감소하였고 輸入이 前年度對比 78.5% 감소하여 부진했던 것에 비하면 1986年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7年의 貿易現況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北韓의 金永南 副首相겸 外相이 1987年 2월에 유고를 방문하여 貿易을 중심으로한 經濟關係를 擴大시키고 緊密化시킬 것을 合意한 바 있다.

③ 불가리아

北韓의 對불가리아貿易은 1986년에 輸出이 2,404만레바 (2,666만달러)로서 前年度對比 5.7% 감소, 輸入이 1,866만레바 (2,070만달러)로서 前年度對比 16.3%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1987年 1月~7月중에는 輸出이 980만레바 (1,188만달러), 輸入이 500만레바 (606만달러)를 기록하였다.

④ 中國

北韓의 對中國貿易은 1986年度에 輸出이 9억 6,963만 원 (2억 8,023만달러)이었으며, 輸入이 8억 7,608만 원 (2억 5,320만달러)이었으며, 1987年度에는 輸出



북한의 대외무역

(단위: 백만불)

| 국·지역별 | 수 | | | 출 | | | 수입 | | | 수지 | | 왕 | | 복 |
|---------|--------|--------|--------|--------|--------|--------|--------|--------|--------|--------|-------|-----|-----|---|
| | 86년 | 87년 | 증감율(%) | 86년 | 87년 | 증감율(%) | 86년 | 87년 | 증감율(%) | 86년 | 87년 | 86년 | 87년 | |
| | | | | | | | | | | | | | | |
| 일본 | 164.66 | 229.66 | 39.5 | 193.17 | 224.43 | 16.2 | △28.51 | 5.23 | 367.83 | 454.08 | 26.9 | | | |
| 서구 | 108.88 | 155.01 | △42.4 | 98.72 | 88.30 | △5.8 | 15.16 | 66.71 | 202.60 | 243.31 | 20.1 | | | |
| 영국 | 0.79 | 0.29 | 66.3 | 2.59 | .34 | △48.0 | △1.80 | △1.06 | 3.37 | 1.63 | △51.6 | | | |
| 프랑스 | 7.55 | 9.10 | 20.5 | 11.66 | 33.91 | 190.9 | △4.11 | △24.81 | 19.21 | 43.01 | 123.9 | | | |
| 서독 | 67.76 | 45.33 | | 49.64 | 37.98 | | 18.12 | 7.36 | 117.40 | 83.34 | | | | |
| *이탈리아 | 1.91 | NA | | 20.15 | NA | | △18.21 | NA | 22.09 | NA | | | | |
| 스웨덴 | 0.39 | 0.62 | | 2.70 | 2.00 | | △2.31 | △1.38 | 3.09 | 2.62 | | | | |
| 덴마크 | 0.32 | 0.13 | | 2.29 | 0.66 | | △1.97 | △0.53 | 2.61 | 0.79 | | | | |
| 네델란드 | 0.15 | 0.06 | | 4.89 | 0.21 | | △4.74 | △0.16 | 5.04 | 0.26 | | | | |
| 벨기에 | 0.10 | 0.17 | 77.7 | 1.17 | 1.10 | △5.9 | △1.07 | △0.93 | 1.27 | 1.28 | 0.4 | | | |
| 오스트리아 | 0.23 | 0.24 | | 3.84 | 0.99 | | △3.61 | △0.75 | 4.0 | 1.23 | | | | |
| 스위스 | 0.13 | 0.52 | 3.7배 | 6.15 | 3.48 | △43.3 | △6.02 | △2.96 | 6.29 | 4.00 | △36.3 | | | |
| 스페인 | 2.06 | 3.62 | 76.5 | 1.51 | 4.20 | 179.1 | 0.54 | △0.58 | 3.56 | 7.83 | 119.9 | | | |
| 그리스 | 29.41 | 94.94 | | 7.28 | 2.43 | | 22.13 | 92.51 | 36.69 | 97.37 | | | | |
| 아시아 | 54.62 | 101.17 | 85.2 | 130.22 | 168.62 | 29.5 | △75.60 | △67.45 | 184.84 | 269.79 | 46.0 | | | |
| 중국 | 23.48 | 30.17 | 28.4 | 78.41 | 111.83 | 42.6 | △54.93 | △81.66 | 101.90 | 142.00 | 39.3 | | | |
| 싱가폴 | 8.44 | 13.13 | | 27.42 | 30.47 | | △18.98 | △17.34 | 35.86 | 43.60 | | | | |
| *말레이시아 | 1.91 | NA | | 1.35 | NA | | 0.56 | NA | 3.26 | NA | | | | |
| 타이 | 6.41 | 8.61 | 34.3 | 13.58 | 4.56 | △66.3 | △7.17 | 4.06 | 19.98 | 13.17 | △34.0 | | | |
| 인도네시아 | 4.08 | 12.21 | | 3.92 | 1.85 | | 0.11 | 10.36 | 7.94 | 14.06 | | | | |
| 인도 | 12.25 | 36.96 | 201.6 | 6.83 | 19.74 | 189.4 | 5.42 | 17.21 | 19.07 | 56.69 | 197.2 | | | |
| 파키스탄 | 0.01 | 0.10 | 8.9배 | 0.06 | 0.17 | 3.1배 | △0.06 | △0.07 | 0.07 | 0.27 | 4.0배 | | | |
| 중동·아프리카 | 11.02 | 9.27 | △15.9 | 14.28 | 0.91 | △93.6 | △3.26 | 8.36 | 25.30 | 10.18 | 59.8 | | | |

| | | | | | | | | |
|---------|----------|----------|----------|----------|----------|----------|----------|----------|
| 이집트 | 0.06 | 0.04 | 5.64 | 0.38 | △ 5.59 | 0.34 | 5.69 | 0.42 |
| 알제리 | 0.43 | 0.01 | 0.002 | 0 | 0.43 | 0.01 | 0.43 | 0.01 |
| 나이지리아 | 7.60 | 6.29 | 0 | 0 | 7.60 | 6.29 | 7.60 | 6.29 |
| 코트디부아르 | 0.17 | 0.06 | 0.65 | 0 | △ 0.48 | 0.06 | 0.82 | 0.06 |
| 탄자니아 | 0.10 | 0.40 | 0 | 0.02 | 0.10 | 0.38 | 0.10 | 0.42 |
| 자이레 | 0.59 | 0.03 | 0 | 0 | 0.59 | 0.003 | 0.59 | 0.003 |
| 김바브웨 | 2.08 | 2.47 | 7.99 | 0.51 | 5.91 | 1.96 | 10.07 | 2.98 |
| 미 주 | 0.52 | 14.72 | 2.90 | 5.02 | △ 2.38 | 9.70 | 3.42 | 19.74 |
| 캐나다 | 0.42 | 1.04 | 0.97 | 4.96 | △ 0.55 | 3.92 | 1.39 | 6.00 |
| 미국 | 0 | 0 | 0 | 0 | 0 | 0 | 0 | 0 |
| 브라질 | 0 | 0 | 0.90 | 0.06 | △ 0.90 | 0.06 | 0.90 | 0.06 |
| 페루 | 0.10 | 13.68 | 1.03 | 0 | △ 0.93 | 13.68 | 1.13 | 13.68 |
| 오스트레일리아 | 0.63 | 0.55 | 4.67 | 22.44 | △ 4.04 | △ 21.89 | 5.30 | 22.99 |
| 뉴질랜드 | 0 | 0 | 0 | 0 | 0 | 0 | 0 | 0 |
| 4.3 배 | | | | | | | | |
| 사회주의국 | 978.31 | 954.01 | 1,373.45 | 1,566.17 | △ 399.44 | △ 21.16 | 2,361.66 | 2,250.18 |
| 소련 | 642.00 | 682.70 | 1,078.60 | 1,264.90 | △ 36.60 | △ 582.20 | 1,720.60 | 1,947.70 |
| 13.2 | | | | | | | | |
| 체코슬로바키아 | 29.41 | 19.50 | 20.93 | 14.34 | 8.48 | 5.16 | 50.34 | 33.84 |
| 유고슬라비아 | 1.48 | NA | 1.24 | NA | 0.24 | NA | 2.72 | NA |
| 불가리아 | 26.67 | 11.89 | 20.70 | 6.06 | 5.97 | 5.83 | 47.37 | 17.95 |
| 중국 | 280.23 | 239.92 | 253.20 | 280.87 | 27.03 | △ 40.96 | 533.44 | 520.79 |
| △ 2.4 | | | | | | | | |
| 총 계 | 1,318.64 | 1,464.39 | 1,812.41 | 2,075.89 | △ 93.77 | △ 611.50 | 3,131.06 | 3,540.28 |
| 13.1 | | | | | | | | |

주: 1. 상대국총통계 CIF(수입), FOB(수출) 가격으로 환산
2. 87년의 통계데이터가 불명한 나라 (* 표시)는 통계, 지역별소계에서 제외
3. 87년의 총계, 지역별소계에 있어서 연간수치가 불명한 것은 최신월까지의 누계를 가산.
4. 다음 나라는 회계연도의 통계데이터를 사용(86년=88/86년도 87년=86/87년도).
인도(4~3월) 이란(3/21~3/20)
파키스탄(7~6월) 오스트레일리아(7~6월)
출처: 1. 각무국무역통계 및 JETRO 사무소보고서 작성. 2. 口太郎 "1987년의 대외무역" 「북한경제와 무역진망」, 국토통일원 1988.9. 58~63쪽

輸出이 8억 9,010 만원(2억 3,992 만달러)로서 前年度對比 14.4% 감소, 輸入이 10억 4,204 만원(2억 8,087 만달러)로서 前年度對比 10.9% 증가, 總貿易額은 19억 3,214 만원(5억 2,079 만달러)로서 前年度對比 2.4% 감소를 나타냈다.

北韓의 對中國貿易에 있어서의 貿易收支는 1984年~1986年의 3年間은 黑字를 나타냈으나 1987년에는 4,095 만달러의 赤字를 보였다. 中國은 北韓貿易相對國中 2位の 위치를 유지하여 왔으나 1987년에는 3位の 貿易相對國인 日本의 伸張率이 급증했기 때문에 中國과 日本間의 격차가 감소되었다.

北韓의 對中國貿易에 있어서 주요 輸出品은 石炭, 鐵鋼, 非金屬鑛物製品등이며 이들의 1987年 伸張率은 각각 8.3%, △16.2%, 6.8% 이었으며, 주요 輸入品은 石炭, 石油와 石油製品, 採油用種子, 穀物등이며 이들의 1987年 伸張率은 각각 39.6%, △10.3%, 65.7%, 15.4% 이었다.

3. 北韓의 對外貿易政策

北韓의 對外貿易政策의 특징이라면 國家計劃委員會의 事前計劃을 基調로 한 相對國과의 협상을 통하여 品目別 쿼타를 策定하는 雙務的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1953年 스탈린 死亡後 종래의 傳統的인 소극적인 태도에서 탈피하여 國際分業에 의한 國民經濟의 收益性 增大를 추구하여 對外貿易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소련 및 東歐諸國들과는 달리 北韓은 아직도 自給自足的인 아우타르키經濟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中國도 마찬가지로 毛澤東 死亡後 1977年 8月11日 全國人民代表大會를 전환점으로 하여 對外貿易의 視角이 크게 變化하여 自力更生을 自給自足으로 해석하지 않고 社會主義 強國을 건설하기 위해 對外貿易을 重視하는 방향으로 對外貿易의 視角과 政策을 轉

換시키고 있는데 北韓만큼은 아직도 自力更生을 여전히 自給自足으로 해석하여 아우타르키 經濟體制를 고집하고 있다. (自給自足的인 經濟體制고집)

또한 北韓은 1970年代 以後 對西方 貿易의 불가피성이 증대됨에 따라 선별적으로 政治와 經濟를 分離시키는 政策을 추구해 오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經濟가 政治에 구속되어 對外貿易의 政策決定과 計劃樹立에 있어서 經濟的 要因보다는 政治的 要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經濟의 政治 屬化)

그리고 北韓은 社會主義諸國들 중에서 가장 權威主義的이고 官僚主義的인 體制를 유지해 오고 있는 바, 貿易政策에 있어서도 소련, 中國 및 東歐 등 社會主義諸國들 보다도 상당히 硬直化된 貿易政策을 수행하고 있다. (貿易政策의 硬直性)

이와같이 自給自足的인 經濟體制고집, 經濟의 政治隸屬化, 및 貿易政策의 硬直性を 北韓에서는 貿易政策의 基本原則으로 삼아 왔었는데, 1980年代 이후부터는 여러차례에 걸쳐서 對外貿易의 擴大를 강조해 왔고 그 증거로서 北韓은 第3次 7個年計劃期間(1987—1993年)중 北韓의 貿易額을 3.2倍 增大시키는 것을 目標로 삼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은 貿易政策上 對外貿易을 아우타르키經濟를 달성시키기 위한 手段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貿易이 갖는 經濟的 效率性 或은 收益性은 상대적으로 輕視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北韓의 對外貿易政策은 1984年 1月26日 最高人民會議에서 金日成이 「南南協助와 對外經濟事業을 강화하고 貿易事業을 더욱 발전시킴에 대하여」라는 의안이 採擇됨에 따라 형식적으로 公式決定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1984年の 決議는 外交關係가 없는 資本主義國家들과의 經濟關係를 擴大시킬 必要性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며 開途國과의 貿易 및 기타의 經濟關係를 擴大시키는데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4. 北韓의 貿易機關·商社·銀行·保險公社

北韓을 대표로 하는 貿易機關은 政務院 貿易部이다. 貿易部는 貿易政策과 貿易計劃의 수립, 外國과의 貿易協定締結등 對外貿易에 관한 전반적인 業務를 담당하고 있다. 貿易部長을 자문하고 그리고 주로 未修交國과의 對外貿易 促進業務를 위하여 貿易部 산하에 國際貿易 促進委員會를 두고 있다. 1970 年代初 플랜트 輸入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플랜트 市場開拓 및 輸入條件의 개선을 목적으로 貿易部로부터 獨立하여 設立된 對外經濟事業部가 있으며 이 산하에는 對外的 科學·技術의 交流·協力促進을 위하여 朝鮮對外科學技術 交流協會를 두고 있다. 그 외의 貿易機關으로는 對外經濟委員會, 合營工業部(1988年 11月 26日 新設), 國家計劃委員會, 貿易代表部등이 있다.

이러한 政府貿易機關과 2개의 貿易促進機關하에서 外國商社와 貿易契約을 체결하고 債務에 관한 최종적인 責任을 수행하는 貿易商社가 있다. 貿易商社와는 商品別로 設立되어 있으며 해당 商品에 대해서는 당해 商社가 독점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 분야의 독립채산제의 擴大로 특정의 工場, 企業體, 協同組合등과 直接 연결되어 工場등에서 생산된 商品을 直接 輸出하고 그 利益金으로 資材輸入을 전담하는 商社의 設立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合併會社들은 생산된 製品의 輸出 및 必要 原資材의 輸入을 直接 할 수 있다. 또한 外貨不足으로 어느 부서든지 必要한 外貨는 자체조달한다는 방침에 따라 경제와 관련이 없는 상당수의 黨·政 中央部署들이 그들 산하에 貿易商社를 두고 있으며 道の 行政 및 經濟指導委員會와 貿易管理局도 直接 對外貿易에 臨하고 있다.

현재 北韓에는 綜合商社, 輸出專門商社, 一般貿易商社, 特殊貿易商社등이 100여 개의 貿易商社가 있다.

北韓의 銀行은 세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貿易銀行은 外國換業務와 輸出入決

濟業務를 총괄하고 있으며, 金剛銀行과 大聖銀行은 지정된 貿易商社들의 對外 濟業務를 맡고 있다.

끝으로 北韓에는 1個의 保險會社(朝鮮國際保險會社)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船舶保險, 輸出入貨物保險, 外國保險機關과의 再保險業務를 맡고 있으며, 地方에 5個의 支社와 주요 항구에 대리점을 두고 있다.

5. 北韓의 貿易去來形態와 濟方法

北韓에서는 協定貿易의 일종으로서의 求償貿易을 기본으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국가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³⁾

商品輸入代金은 國際通貨로 濟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商品으로 輸出하며 일년에 한번씩 清算하는 바터貿易(無換求償貿易)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⁴⁾

北韓과 가까운 第3國과의 貿易은 輸入代金を 外貨로 支拂하고 있지만 그 金額을 輸出代金과 일치시키는 有換求償貿易方式을 採擇하고 있다.

한편 西方國家와의 貿易은 일반적인 L / C 베이스로 濟되고 있으나 外貨不足등으로 求償貿易을 더 원하고 있다. 濟通貨는 주로 英과운드, 西獨마르크, 스위스프랑貨 등이며 契約에 따라서는 엔貨나 美달러가 사용되기도 한다.

3) 예를 들어서 社會主義國家와는 長期貿易(契約)協定에 의하여 매년 체결되는 貿易議定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4) 구체적으로는 北韓의 中央銀行과 상대국의 특정은행에 無利子の 清算計定을 두고 輸出入額을 相計한후 差額만 濟하고 있는데 이때의 差額濟通貨로서는 소련의 루블貨가 통용되고 있다. 求償貿易의 形態와 濟方式에 대해서는 尹基官 求償貿易의 擴散과 對應方向, 貿易學세미나(博英社), 1985, 및 韓國貿易協會, 南北韓 經濟交流促進을 위한 증장기 발전계획(案), 1989. 4. 參照.

6. 北韓의 關稅制度

北韓은 貿易商品에 대하여 關稅를 부과하지 않으며 外國여행자의 소지품 및 국제소포등 非貿易品에만 關稅를 부과하고 있다.

7. 北韓의 對外貿易環境의 展望

北韓은 그동안 貿易赤字의 累積등으로 말미암아 1980年代 以後부터 外債問題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對西方 新規借款이 어려워지자 合營法을 제정하여 債務償還의 負擔이 없는(혹은 적은) 合作投資事業의 擴張을 모색하고 있으나 기대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88年은 北韓이 추진하고 있는 第3次 7個年計劃(1987年—1993年)의 2年째이지만, 同計劃이 經濟發展要素의 하나로서 對外貿易을 重視하고, 同計劃 期間中에 貿易額을 3.2倍로 높히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北韓의 주요 輸出品은 鉛, 亞鉛을 비롯하여 非鐵金屬, 마그네시아 크랭카 등이 있지만 輸出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輸出品目的 多樣化가 큰 課題로 남아 있다. 輸出品目的 多樣化의 내용으로서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主要輸出品을 증산하는 것 이외에도 工作機械, 船舶, 電氣機械, 農業機械등의 機械設備, 衣料品, 신발, 도자기류, 유리製品, 플라스틱製 日用品 등의 輕工業品, 야채, 과일, 水產品과 그 加工品등이 제시될 수 있으나 이 중에서도 輕工業品의 生産이 重視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1988年 2月23日에 발표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創建 40周年에 즈음하여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의 슬로건」에서도 양질의 輕工業製品生産과 그 輸出에 대한 功獻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貿易還大를 위해서는 貿易相對國의 多角化도 必要하다. 현재에는 北韓 貿易總額의 70%이상이 社會主義國과의 貿易에서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北

韓의 貿易構造를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나 西方側 諸國과의 貿易擴大를 위해서는 특히 對外的 信用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對外的 信用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第3次 7個年計劃의 概要報告 중에서도 강조되고 있으며, 北韓이 이러한 對外信用度 提高를 중요시 해야하는 것은 그들의 貿易發展을 위하여 必要한 것이다.

北韓의 對外貿易은 최근들어 規模面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向後에도 北韓이 그들의 經濟發展에 있어서 對外貿易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貿易擴大를 위하여 여러가지 政策을 계속 推進할 것으로 기대된다.

Ⅲ. 日本의 對北韓貿易去來分析과 展望

1. 一般的 概況

1987 年은 年初에는 炸彈號 亡命事件, 年末에는 KAL 폭파사건등 日本과 北韓과의 關係를 일거에 惡化시킨 事件發生으로 뒤범벅이 되었던 한 해였다.

그러한 惡條件下에서도 1987 年 輸出은 308 億圓 (2.1 億달러), 輸入은 349 億圓 (2.4 億달러) 합계 657 億圓 (4.5 億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것을 圓貨表示로 보면 日·北韓貿易은 前年度에 比해서 日本의 輸出 (北韓의 輸入)은 거의 變化가 없으나 (0.6 % 감소에 불과), 日本의 輸入 (北韓의 輸出)은 19.2 %가 증가하여 總貿易額은 약 1 %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달러表示로 보면 輸出은 16.2 %, 輸入은 39.6 %가 증가하였다. 日·北韓間의 주요한 決済通貨인 서독마르크, 美달러는 1987 年 平均적으로 圓貨에 대해서 5 %, 15 %정도가 切下되었으며, 달러貨에 의한 決済가 마르크貨에 의한 決済와 거의 같은 水準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7 年の 日·北韓間 去來

通關基準

| | 金額 (1,000 圓) | 前年度對比% | 金額 (1,000 달러) | 前年對比% |
|-----|----------------|--------|-----------------|-------|
| 輸 出 | 30,842,493 | 99.4 | 213,739 | 116.2 |
| 輸 入 | 34,885,998 | 119.2 | 241,744 | 139.6 |
| 計 | 65,728,491 | 109.0 | 455,483 | 127.5 |

日·北韓의 去來는 1979 年이래 年間 貿易額이 1,000 億圓 정도의 去來規模로 유지되어 왔으며 貿易收支도 약 2對1로 日本의 出超를 나타냈으나, 1986 년에는 60 %정도가 감소하여 2 年 연속적으로 600 億圓帶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北韓이 1986년부터 對日貿易에 있어서 輸出入均衡政策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단적으로 말하면 輸入이 半減하였던 것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1972年 이래 15年間に 걸쳐서 日本의 出超로 되어있던 去來는 反對로 40億圓의 入超로 逆轉되었다.

최근 2年間(1986年과 1987年)의 去來狀況은 이미 去來시작한 지 30年이 지난 日·北韓 貿易에 커다란 轉換期를 맞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日本의 大幅的인 出超樣狀은 어려울 것이며, 다만 현재의 縮小均衡에서 擴大均衡으로의 轉換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日本에서의 輸入擴大가 必殊的인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課題에 대하여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日本의 業界에서 지적하여 왔으며 실제로 가끔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것은 하지만 만족할만한 成果를 거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日本의 對北韓 輸入擴大를 위한 物質的 條件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재의 상태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日·北韓貿易의 擴大均衡을 위하여 日本의 輸入擴大努力이 물론 先決條件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北韓의 發展的이며 積極的인 對應이 있어야만 結實을 맺을 수가 있으며 對外經濟·貿易政策의 여하에 따라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日本貿易振興會(JETRO)의 統計資料에 따라 北韓의 對外貿易흐름(flow)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北韓의 貿易總額은 1981年 19億달러정도에서 1986年 30億달러 정도로 6年동안에 60%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 중 社會主義圈과 貿易은 11億달러에서 23億달러로 2배정도가 증가하였다. 최대의 去來相對國인 소련과의 去來는 7.5億달러에서 17億달러 정도로 2-3배가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큰 貿易相對國인 中國과는 4億달러에서 5億달러로 40%의 증가에 그쳤다. 한편 세번째의 貿易相對國인 日本과는 거꾸로 4.4億달러에서

3.6억달러로 감소하였으며, 西歐諸國도 2억달러에서 1.5억달러 정도로 감소하였고, 非同盟 아시아諸國과도 1억달러에서 2억달러로 증가하고 있다. 市場占有率로 보면 社會主義圈이 60%에서 80%로 확대일로에 있으며 특히 소련은 貿易總額의 60%를 占하고 있다. 中國은 20% 정도로 작으며 日本은 20%에서 10% 정도로 반으로 줄었으며 西歐諸國도 10%에서 半으로 줄었으며, 아시아諸國은 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日本 및 西歐諸國과의 貿易縮少는 1970年代 前半에 자초한 對西歐側 債務問題를 1980年代에 접어들어서도 처리·해결을 못하였으며 곤란의 정도를 심화시키고 있는것과 關聯되고 있으나, 西歐側 諸國에 지고있는 債務는 역시 이들 나라들과 經濟交流를 擴大하여 貿易을 통한 濟濟能力을 提高시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최상의 方策으로 본다.

2. 日·北韓貿易의 歷史

1) 間接貿易時代 (1953年—1960年)

1953년에는 6.25戰爭도 끝났으며 日·北韓間의 貿易이 開始될 움직임도 있었다. 1955年 10月에는 北韓貿易公社와 日本商社間의 輸出入額을 각각 500만 英鎊으로 하여 北韓의 對日本輸出品은 무연탄, 형석, 팔 등 23개 品目으로 하고 輸入品은 전기자재, 어업용구, 종이류 등으로 규정한 「貿易協定書」가 체결되었으며 또한 1956年 3月에는 「日朝貿易會」도 結成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東西冷戰構造와 우리 韓國과의 關係를 배경으로 하여서 日·北韓貿易은 사실상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日·北韓間에는直接貿易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中國의 大連港을 經유하는 間接貿易의 形式을 취하게 되었으며, 外形的으로는 日本과 中國間의 去來로써 濟濟도 中國銀行을 經유하여 이루어졌다.

1957年 9月에는 「日朝貿易會」, 「日本國際貿易促進協會」, 「日朝協會」의 일본의 3機關과北韓의 「朝鮮國際貿易促進委員會」間에 「日朝貿易協定」이 맺어졌다. 이協定에서는 輸出入額(각각 600만파운드), 品目, 去來契約, 決濟, 輸送, 商品檢査, 紛爭解決, 仲裁等 구체적인 항목이 들어 있었다. 이協定을 기초로 1958年 4月에는 實業團을 파견하는 등 어렵פות이 日·北貿易이 擴大되는 조짐이 보이는 정도였다

그러나, 1958年 10月에 나가사카(長崎) 國旗事件이 일어나 日·中貿易이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大連 경유로 이루어졌던 日·北韓貿易도 어쩔 수 없이 중단되었다.

그 후 日·北韓 貿易業界의 努力에 의하여, 1959年 6月 홍콩 경유에 의한 間接貿易이 再開되었다. 그리고 1959年 12月에 日本政府는 對北韓輸出中에서 日本政府의 事前 承認을 必要로 하지않는 物資에 관하여서는 北韓以外的 地域과 決濟한다면 北韓에 直接輸送하여도 상관없다고 하는 견해를 취하게 되었다. 輸出에 한정을 두기는 했지만 直接貿易의 可能性이 매우 커지게 된 셈이다.

1960年 日本과 韓國에서는 政權交替등이 있었으며, 1961年 4月에는 北韓을 강제바터地域에 포함시키게 되어 直接貿易이 政府에 의해서 承認되었다. 그러나 北韓을 相對國으로 하는 輸出入 去來의 決濟禁止條項은 남아 있었다.

2) 直接貿易時代(1961年—현재)

1961年 4月부터 日·北韓間的 直接貿易은 인정되었지만 여러가지 制約條件이 남아 있었다. 이 중에서 強制바터의 撤廢에 대해서는 1962年 11月에 「輸出貿易管理規制」의 일부 改正에 따라 北韓과의 決濟도 標準的인 決濟에 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1962年 11月에는 日北韓間에 定期貨物船이 취항하였으며, 1963年

9 月에는 北韓의 貿易銀行과의 사이에 코레스契約이 체결되어 直接決濟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1964 年 2 月에는 對北韓輸出에 있어서 1 年間の 後拂이 認定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2 年 或은 3 年間の 延拂도 인정되었다.

더욱이 이보다 앞선 1963 年 2 月에는 「日朝貿易會」와 「朝鮮國際貿易促進委員會」間에 「日·朝兩國商社間的 商品去來契約에 관한 日·朝貿易會와 朝鮮國際貿易促進委員會의 契約」이 調印되었으며, 「日·朝兩國商社間的 商品去來에 관한 一般條件」이 체결되었다. 이 一般條件은 그 후 去來의 進展에 따라 1965 年 8 月, 1967 年 1 月, 1980 年 9 月에 각각 改定되었다.

또한 北韓의 對日窓口로서는 그때까지는 金剛協同貿易商社 1 個뿐이었던 것이 1965 年부터는 각 貿易商社들이 日本과 直接去來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1965 年 5 月에는 「평양日本商品展示會」가 개최되어 技術交流등도 이루어졌다.

3) 日·北韓貿易의 擴大와 債務問題의 發生時代(1971 年—1975 年)

1972 年の 美中關係의 改善은 韓半島에도 變化를 가져와 1972 年 7 月에는 南北韓의 共同聲明이 발표되어 韓半島에도 데탕트 무드가 造成되기 시작했다.

前年度인 1971 年은 또한 北韓의 새로운 6 개년 計劃(1971 年—1976 年)이 시작된 年度이었기 때문에 1960 年代 後半부터 약간의 停滯조짐이 보였던 日·北韓貿易은 다시 擴大의 傾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輸出入銀行의 資金使用에 의한 機械設備輸出은 종래부터의 懸案事項이었으나 앞에서 제시된 要因들에 의하여 1973 年 10 月에 최초로 塔爾製造設備(5 億圓)에 融資가 인정되었다. 그 후에도 볼트·넛트設備(2.7 億圓)등이 인정되었으나 北韓貿易銀行이 발행하는 信用狀에 連帶保證條項이 삭제되는 등의 問題가 나타나 北韓側과 交渉이 계속되었다. 1975 年 1 月에 간신히 基本的인 合意를 보았지만 그 후 支拂遲延問題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는 輸出入銀行에 의한 融

資는 인정되지 않았다.

1971년에 시작된 6개년計劃은 1972—73年경에 計劃이 變更되어 工業地域의 中心을 東海岸으로 이동시켜 西海岸에서 플랜트를 대대적으로 도입시켰다. 日本의 對北韓輸出은 1972년부터 급격히 증가했으나 對北韓輸入은 급격한 輸出增加에 따르지 못하여 1971년까지 거의 해마다 日本의 對北韓 貿易赤字를 보이던 것이 일시에 黒字로 반전되어 갔다. 이 때문에 1974年末頃부터 洪濟遲延이 눈에 띄게 증가하여 1975年 8月에는 輸出保險의 付保가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4) 債務延期交渉에 의한 再延期時代 (1976年—1986年)

1976年末까지 北韓의 對日債務는 약 800억圓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1976年 12月에는 향후 3年間の 債務延期交渉이 日·北韓間에 이루어져 일단 合意를 보았으나, (第1次合意), 1977年中에 4회에 걸쳐 利子를 지불하기로 예정되었던 것이 첫회인 3月에는 예정금액이 거의 支拂되었지만 둘째회인 6月에는 예정금액이 半切밖에 支拂되지 않았고, 그 후에는 전혀 支拂되지 않았기 때문에 1978年初에 다시 日本側 代表團이 北韓을 방문했다.

더구나 1976年中에도 北韓의 對日本輸入은 增加하여 갔으나 그 가운데에는 不要不急한 物資도 들어 있었기 때문에 日本側 關係者들은 北韓의 對日債務 支拂意思에 대하여 의심을 품기까지 했었다.

1979年 3月부터 日·北韓間에 債務問題解決을 위한 交渉이 다시 시작되었다. 前과는 달리 이 때 부터의 交渉에서는 北韓의 貿易銀行 總裁(方基永)가 스스로 日本에 건너 왔으며, 그리고 예상밖으로 엄격한 日本의 對北韓攻勢에 따라 약 1개월에 걸친 長期的인 交渉을 통하여 債務支拂條件에 대하여는 거의 日本側의 要求가 받아들여 졌으며, 이에 따라서 10年 20回分割償換條件으로 日本洪濟協議會와 朝鮮貿易協議會間에 同年 8月 假調印을, 그리고

10 月에는 평양에서 本 調印이 이루어졌다. (第2차합의)⁵⁾

그래서 이 合意書를 기초로 하여 1982 年 6 月분까지의 支拂은 利子 285 億圓, 元金 115 億圓이 되었다.⁶⁾

그러나 1983 年에 들어서서 北韓으로부터 또 다시 支拂된 債務元金에 대한 支拂을 3 年 6 個月間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日本은 1983 年 2 月에 이 요청을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제3차합의) 이에 따라서 1982 年 12 月부터 1985 年 12 月까지 每年 2 回씩 支拂期限이 된 元金 약 240 億圓에 대하여 1986 年 6 月이후로 支拂延期하기로 하였으며 利子는 辨濟計劃과 똑같이 이행토록 하였다.

5) 1980 年代의 日·北韓貿易

앞에서 지적한 바 같이 懸案의 債務問題가 1979 年에 일단 解決되었고, 예정대로 支拂이 이루어 졌으므로, 1977 年 이래 日·北韓貿易의 擴大 움직임에 더한층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게다가 1980 年에는 北韓에는 10 年만에 第6回 大會가 개최되었으며 이에

5) 1979 年 10 月の 合意書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辨濟期間이 지난 元金에 대한 延滯利子 100 億원중 약 60%는 1979 年에 나머지는 80 年 6 月까지는 支拂한다.

둘째, 나머지의 元金과 이에 대한 利子를 합한 약 1200 億원은 80 年부터 89 年까지 10 年間에 걸쳐서 元利金을 均等 支拂한다.

셋째, 金利는 런던銀行間 去來金利에다 1.25% (年率)를 더한 것으로 한다.

넷째, 辨濟는 對日輸出代金中에서 일정額을 日本의 銀行에 예탁하고 年 2 回로 支拂한다.

6) 圓貨時勢의 變動에 의하여 額面은 당초예정보다 다르나, 合意書에 나타난대로 이행했다.

따라서 經濟建設의 短縮達成運動이 展開된 일도 있는 바 日本의 輸出을 中心으로 급격히 擴大되어 갔다. 機械, 鐵鋼, 化學製品등을 중심으로 日本의 輸出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輸入增加率은 輸出만큼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日本의 對北韓貿易收支黑字가 지속되고 있다.

1977年 이래 日本의 對北韓 輸出入比率은 거의 2對1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北韓의 輸出努力이 바람직스러운 일이지만, 北韓產品의 品質問題와 日本側의 輸入制度등의 問題가 많이 內在해 있기 때문에 日本의 輸入 擴大는 순조롭게 進行되고 있지 못하다. 日本의 對北韓貿易黑字幅은 1981年 1억 9,220만 달러, 1982年 2억 740만 달러, 1983年 2억 4,430만 달러, 1984年 4,840만 달러, 1985年 1억 1,350만 달러, 1986年 1,100만 달러이었다가 1987년에는 2,800만 달러, 1988년에는 8,600만 달러 赤字를 보였다.

1981年 北韓의 經濟는 1980年의 經濟가 급성장을 이룩한 것과는 달리 기후가 좋지 않아서 農業生産이 부진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침체한 것처럼 보인다. 사실 매년 년초에 행하여지는 金日成의 新年辭나 4월에 개최되는 最高人民會議에서 前年度의 經濟實績이 과장되어 발표되곤 해왔었는데, 1982년에는 1981年度의 經濟實績을 대부분 발표하지 않았을 정도로 經濟가 惡化되었었다.

이리하여 1977年 이래 擴大되어 오던 日·北貿易도 輸出이 1억 27백만 달러로서 前年對比 23.1% 감소, 輸入이 3억 19.2백만 달러로서 前年對比 22.9% 감소, 總額 4억 46.2백만 달러로서 前年對比 22.9% 감소하였다.

이와같이 1981年은 다음년도인 1982年이 金日成의 70세를 맞는 年度이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어떠한 獲期的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만큼 1981年의 北韓經濟는 매우 부진하였었다.

그러나, 1982年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輸出入이 각각 8.0%, 7.9% 정도로

제법 회복되어 輸出이 1억 37.1백만달러, 輸入이 3억 44.5백만달러, 合計 4억 816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1983년에는 輸出이 15.5%로 大幅 감소된 1억 15.8백만달러, 輸入은 4.5% 증가한 3억 60.1백만달러를 기록했다. 1983年 10월에 北韓에 의해서 저질러진 엄청난 버마 랑군事件으로 日本이 北韓에 대하여 制裁措置를 加함으로써 北韓의 1984年の 對日本輸出은 13.2% 증가한 1억 31.1백만달러, 輸入은 22.4% 감소한 2억 79.5백만달러, 合計 4억 10.6백만달러를 기록하여 13.7%가 감소하였다.

1985년에는 北韓의 輸出이 22.7%나 증가하여 1억 60.9백만달러를 輸入은 1.8%가 감소하여 2억 74.4백만달러, 合計 4억 23.8백만달러를 기록하여 貿易赤字가 1억 13.5백만달러로 前年度보다 34.9백만달러가 개선되었다.

1986년에는 北韓의 輸出이 3.4%가 감소되어 1억 73백만달러, 輸入이 25.5% 감소되어 1억 4백만달러, 合計는 16.2%가 감소한 3억 57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貿易收支赤字는 11백만달러로 大幅 감소되었다.

1987년에는 北韓의 輸出이 39.9%로 大幅 增加하여 2억 42백만, 輸入이 16.3% 증가한 2억 14백만달러, 合計는 27.7%가 증가한 4억 56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貿易收支는 28백만달러의 赤字를 기록하여 1971年 이후 최초로 赤字를 이룩한 해였다.

1988년에는 北韓의 輸出이 34.3%로 대폭 증가하여 3억 25백만, 輸入이 11.7% 증가하여 2억 39백만, 合計는 23.7%가 증가한 5억 64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貿易收支는 86백만달러의 赤字를 기록하여 前年度에 이어 赤字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北韓의 輸出增大 努力도 없지는 않으나 그 보다는 日本이 자기들의 債權을 회수하기 위한 의도에서의 輸入增大 때문이다.

北韓의 對外貿易中 日本이 차지하는 比率은 20~25% 정도로 西方側 諸國 중에서는 가장 큰 貿易相對國이다. 日本은 北韓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특수한 人間關係(조충련)나 技術등으로 말미암아 北韓의 중요한 海外市場으로서 그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84년에 끝났던 第2次 7個年計劃의 成功을 위하여, 그리고 1987년부터 시작된 第3次 7個年計劃의 成功을 위하여, 그리고 1989년에 달성을 목표로 한 10大展望目標⁷⁾의 成功을 위하여서는 日本과의 關係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리고 현재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日本의 重要性을 어느정도로 가지고 있는가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우선 債務의 辨濟面에서 보면, 西歐의 債務辨濟는 거의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도 日本의 것에 대해서 어려운 外換事情下에서도 辨濟해 가고 있음이 가장 큰 본보기가 될 것이다.

물론 日本側의 輸出이 輸入의 약 2배인 상황下에서는 日·北韓貿易擴大에도 限界가 있기 때문에 北韓에서는 石炭이나 非鐵金屬에 있어서 共同開發生産에 관한 제안이 제시되는 등 日·北韓 兩國이 努力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現實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1982年, 漁業協定延期問題에서도 보는 바와같이 兩國의 經濟關係는 純經濟的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要素들도 內在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커다란 變動의 變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國交가 맺어지지 않았고 體制가 다른 兩國에 있어서 貿易의 役割은 向後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을 것이다.

7) 北韓은 1989년까지의 10大展望目標를 책정했으나 이것의 달성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이 當初目標를 일부 수정하여 1993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新新目標를 다음과 같이 책정하였다. (北韓勞動 第6回大會에서 金日成의 報告內容임) 電力(1,000억 KWH → 不變), 石炭(12,000만톤 → 不變), 鐵鋼(1,500만톤 → 1,000만톤), 非鐵金屬(150만톤 → 170만톤), 시멘트(2,000만톤 → 不變), 化學비료(700만톤 → 720만톤), 織物(15억 m → 不變), 水産物(500만톤 → 1,100만톤), 곡물(1,500만톤 → 不變), 간척지조성(30만 ha → 不變)

| 年(1~2月) | 日本の輸出 | | 日本の輸入 | | 合 | | 計 | | 貿易收支 | |
|---------|------------|-----------|------------|-----------|-------------|-----------|--------------|-----------|----------|-----------|
| | 單位1,000圓 | 單位1,000달러 | 單位1,000圓 | 單位1,000달러 | 單位1,000圓 | 單位1,000달러 | 單位1,000圓 | 單位1,000달러 | 單位1,000圓 | 單位1,000달러 |
| 1961年 | 1,777,810 | 4,938 | 1,431,259 | 3,976 | 3,209,069 | 8,914 | 346,551 | 962 | | |
| 1962年 | 1,721,082 | 4,781 | 1,639,250 | 4,533 | 3,360,332 | 9,334 | 81,832 | 228 | | |
| 1963年 | 1,925,063 | 5,347 | 3,394,833 | 9,430 | 5,319,956 | 14,777 | - 1,469,830 | - 4,083 | | |
| 1964年 | 4,062,106 | 11,284 | 7,283,226 | 20,231 | 11,345,332 | 31,515 | - 3,221,120 | - 8,947 | | |
| 1965年 | 5,641,902 | 16,505 | 5,300,300 | 14,723 | 11,242,202 | 31,228 | 641,602 | 1,782 | | |
| 1966年 | 1,805,810 | 5,016 | 8,169,123 | 22,692 | 9,974,933 | 27,708 | - 6,363,313 | - 17,676 | | |
| 1967年 | 2,233,164 | 6,370 | 10,653,020 | 29,606 | 12,951,184 | 35,976 | - 8,364,856 | - 23,236 | | |
| 1968年 | 7,469,185 | 20,748 | 12,251,420 | 34,032 | 19,720,605 | 54,780 | - 4,782,235 | - 13,284 | | |
| 1969年 | 8,097,208 | 24,159 | 11,586,920 | 32,186 | 20,284,128 | 56,345 | - 2,889,712 | - 8,027 | | |
| 1970年 | 8,403,798 | 23,344 | 12,389,169 | 34,414 | 20,792,967 | 57,738 | - 3,985,371 | - 11,070 | | |
| 1971年 | 10,025,357 | 28,907 | 10,542,791 | 30,059 | 20,588,148 | 58,966 | 517,434 | - 1,152 | | |
| 1972年 | 28,780,569 | 93,443 | 11,799,811 | 38,311 | 40,580,380 | 131,754 | 16,990,733 | 55,132 | | |
| 1973年 | 27,072,887 | 100,160 | 19,607,139 | 72,318 | 46,680,026 | 172,478 | 7,465,748 | 27,842 | | |
| 1974年 | 73,516,042 | 251,914 | 31,695,229 | 108,824 | 105,211,271 | 360,738 | 41,820,813 | 143,090 | | |
| 1975年 | 53,331,814 | 180,630 | 19,283,273 | 64,839 | 72,615,087 | 245,469 | 34,048,541 | 115,791 | | |
| 1976年 | 28,570,042 | 96,056 | 21,243,401 | 71,627 | 49,813,443 | 167,633 | 7,326,641 | 24,429 | | |
| 1977年 | 33,761,091 | 125,097 | 18,103,313 | 66,618 | 51,864,404 | 191,715 | 15,657,778 | 58,479 | | |
| 1978年 | 37,947,060 | 133,347 | 22,256,057 | 1106,862 | 60,203,137 | 290,209 | 15,691,023 | 76,485 | | |
| 1979年 | 61,945,691 | 283,848 | 32,709,660 | 152,027 | 94,655,351 | 435,875 | 29,236,031 | 131,821 | | |
| 1980年 | 84,946,420 | 374,305 | 40,977,411 | 180,046 | 125,923,831 | 554,351 | 43,969,009 | 194,259 | | |
| 1981年 | 63,625,019 | 290,995 | 30,670,410 | 139,476 | 94,295,429 | 430,471 | 32,954,609 | 151,519 | | |
| 1982年 | 78,071,510 | 313,162 | 37,510,497 | 152,026 | 115,582,007 | 465,188 | 40,561,013 | 161,136 | | |
| 1983年 | 77,620,655 | 327,077 | 29,955,452 | 126,149 | 107,576,107 | 453,226 | 47,665,203 | 200,928 | | |
| 1984年 | 60,317,360 | 254,719 | 34,239,772 | 145,218 | 94,617,132 | 399,937 | 26,017,588 | 109,501 | | |
| 1985年 | 59,049,551 | 247,069 | 4,320,874 | 179,293 | 102,250,425 | 426,362 | 15,848,677 | 67,776 | | |
| 1986年 | 31,039,362 | 183,071 | 2,927,806 | 173,229 | 60,312,168 | 367,220 | 1,766,556 | 10,742 | | |
| 1987年 | 30,842,493 | 213,739 | 34,885,938 | 241,744 | 65,728,491 | 455,483 | - 4,043,505 | - 28,005 | | |
| 1988年 | 30,593,000 | 238,383 | 41,589,000 | 324,649 | 72,182,000 | 563,532 | - 10,996,000 | - 85,766 | | |

資料：日本 大藏省通關基準에 의거 작성함. 日本貿易振興會,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1988.6.

3. 日·北韓間の 輸出入商品 構造

1) 日·北韓間の 輸出品構造

日本の 對北韓輸出에 있어서 機械類, 電氣機器, 輸送機器 및 기타기기가 1983年 392 억圓(50.6%), 1984年 315 억圓(52.3%), 1985年 273 억圓(46.1%), 151 억圓(48.6%), 1987年 146 억圓(48.6%), 1988年 1月-11月 129 억圓(45.4%)로서 매년 전체 輸出중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非金屬 및 그 製品(철강, 알루미늄등)의 輸出은 1983年 122 억圓(15.7%), 1984年 83 억圓(13.7%), 1985年 87 억圓(14.8%), 1986年 44 억圓(14.2%), 1987年 53 억圓(17.7%), 1988年 1月-11月 27 억圓(9.6%)를 차지하고 있어 두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化學製品과 수지·플라스틱·고무 및 그 제품의 輸出은 1983年 65 억圓(8.4%)과 51 억圓(6.6%), 1984年 43 억圓(7.1%)과 42 억圓(7.0%), 1985年 49 억圓(8.3%)과 50 억圓(8.4%), 1986年 25 억圓(8.0%)과 22 억圓(7.0%), 1987年 21 억圓(6.9%)과 26 억圓(8.5%), 1988年 1月-11月 18 억圓(6.4%)과 18 억圓(6.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방직용섬유 및 그 제품의 輸出은 1983年 39 억圓(5.0%), 1984年 26 억圓(4.3%), 1985年 32 억圓(5.4%), 1986年 22 억圓(7.0%), 1987年 19 억圓(6.3%), 1988年 1月-11月 20 억圓(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日本의 對北韓輸出은 工産品の 비중이 97~98%로서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北韓이 최근 第3次 7個年計劃期間중에 전기, 기계, 화학등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계설비류를 대량 輸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日本의 對北韓 輸出에 있어서 1차산품과 鑛産物의

비중은 전체의 3%이내로 매우 낮은 輸出比重을 보이고 있다.

2) 日·北韓間의 輸入商品構造

日本の 對北韓輸入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금속 및 그 제품(아연, 선철, 철강코일등)은 1983年 85억圓(28.2%), 1984年 132억圓(38.4%), 1985年 156억圓(36.2%), 1986年 117억圓(38.1%), 1987年 115억圓(33.0%), 1988年 1-11月 121억圓(31.5%)를 차지하여 1983年-1985年까지는 輸入金額과 比重面에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최근 1986年-1988년에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貴石·貴金屬 및 그 製品(금이 대부분임)은 1985年 78억圓(18.1%), 1986年 17억圓(5.8%), 1987年 57억圓(16.4%), 1988年 1-11月 91억圓(23.7%)으로서 大幅的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紡織用纖維 및 그 製品(부잠사, 허드렛고치등)은 1983年 23억圓(7.8%), 1984年 19억圓(5.6%), 1985年 16억圓(3.6%), 1986年 13억圓(4.4%), 1987年 10억圓(2.8%), 1988年 1-11月 18억圓(4.6%)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이 日本の 對北韓輸入에 있어서 工產品輸入은 同 輸出에 비해서 매우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輕工業製品이 대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重化學工業生産品은 1% 미만의 極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日本の 對北韓輸入중에서 農·林·水産物등의 1次産品과 鑛産物이 40~50%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動·植物性 生産品과 조제식료품을 주축으로 하는 1次産品은 1983年 138억圓(45.0%), 1984年 126억圓(36.9%), 1985年 120억圓(27.7%), 1986年 109억圓(34.4%), 1987年 126억圓(36.3%), 1988年 1-11月 106억圓(27.6%)를 輸入하였다.

日本の 對北韓 輸出入構成 推移

[輸出]

金額單位：100 萬圓

| 輸出構成 | 1983 | | 1984 | | 1985 | | 1986 | | 1987 | | 1988(1-11) | |
|-------------------------|--------|--------|--------|--------|--------|--------|--------|--------|--------|--------|------------|--------|
| | 金額 | 比率 (%) | 金額 | 比率 (%) | 金額 | 比率 (%) | 金額 | 比率 (%) | 金額 | 比率 (%) | 金額 | 比率 (%) |
| 礦物性生産品 | 2,519 | 3.2 | 1,928 | 2.3 | 1,339 | 2.3 | 578 | 1.9 | 436 | 1.4 | 346 | 1.2 |
| 化學工業生産品 | 6,185 | 8.4 | 4,285 | 7.1 | 4,918 | 8.3 | 2,472 | 8.0 | 2,120 | 6.9 | 1,830 | 6.4 |
| 樹脂, 플라스틱 고무, 플라스틱 제품 | 5,130 | 6.6 | 4,234 | 7.0 | 4,977 | 8.4 | 2,179 | 7.0 | 2,610 | 8.5 | 1,778 | 6.2 |
| 紙, 紙製品 및 消耗板紙 | 2,354 | 3.0 | 2,486 | 4.1 | 2,145 | 3.6 | 946 | 3.0 | 812 | 2.6 | 마확인 | |
| 紡織用纖維 및 그製品 | 3,861 | 5.0 | 2,609 | 4.3 | 3,190 | 5.4 | 2,171 | 7.0 | 1,939 | 6.3 | 1,988 | 7.0 |
| 卑金屬 및 그製品 | 12,210 | 15.7 | 8,259 | 13.7 | 8,722 | 14.8 | 4,421 | 14.2 | 5,330 | 17.3 | 2,742 | 9.6 |
| 機械類 | 17,591 | 22.7 | 15,273 | 25.3 | 13,299 | 22.5 | 6,302 | 20.3 | 7,338 | 23.8 | 6,467 | 22.7 |
| 電氣機器 | 7,576 | 9.8 | 5,580 | 9.3 | 5,282 | 8.9 | 3,323 | 10.7 | 3,623 | 11.7 | 3,069 | 10.8 |
| 輸送機器 | 10,074 | 13.0 | 6,822 | 11.3 | 6,869 | 11.6 | 3,873 | 12.5 | 2,254 | 7.3 | 2,257 | 7.9 |
| 他機器 | 3,968 | 5.1 | 3,848 | 6.4 | 1,803 | 3.1 | 1,580 | 5.1 | 1,412 | 4.6 | 1,130 | 4.0 |
| 其他計 | 5,341 | 6.8 | 4,873 | 8.1 | 6,394 | 10.9 | 3,194 | 10.3 | 2,969 | 9.6 | 6,755 | 23.8 |
| 輸出合計 | 77,621 | 100.0 | 60,317 | 100.0 | 59,050 | 100.0 | 31,039 | 100.0 | 30,842 | 100.0 | 28,466 | 100.0 |

[輸入]

| 輸入構成 | 1983 | | 1984 | | 1985 | | 1986 | | 1987 | | 1988(1-11) | |
|------------------|--------|--------|--------|--------|--------|--------|--------|--------|--------|--------|------------|--------|
| | 金額 | 比率 (%) | 金額 | 比率 (%) | 金額 | 比率 (%) | 金額 | 比率 (%) | 金額 | 比率 (%) | 金額 | 比率 (%) |
| 動物性生産品 | 7,891 | 26.3 | 6,137 | 17.9 | 6,126 | 14.2 | 6,216 | 21.2 | 7,598 | 21.8 | 7,038 | 18.3 |
| 植物性生産品 | 3,911 | 13.1 | 4,042 | 11.8 | 4,636 | 10.7 | 3,159 | 10.8 | 3,767 | 10.8 | 2,233 | 5.9 |
| | 1,675 | 5.6 | 2,453 | 7.2 | 1,195 | 2.8 | 710 | 2.4 | 1,277 | 3.7 | 1,292 | 3.4 |
| 礦物性生産品 | 4,304 | 14.4 | 5,400 | 15.7 | 5,560 | 12.9 | 4,683 | 16.0 | 3,343 | 9.6 | 3,923 | 10.2 |
| 化學工業生産品 | 980 | 3.3 | 619 | 1.8 | 269 | 0.4 | 69 | 0.2 | 225 | 0.6 | 103 | 0.3 |
| 木材 및 그製品 | 103 | 0.3 | 117 | 0.3 | 75 | 0.2 | 55 | 0.2 | 346 | 1.0 | 692 | 1.8 |
| 紡織用纖維 및 그製品 | 2,335 | 7.8 | 1,937 | 5.6 | 1,571 | 3.6 | 1,289 | 4.4 | ,987 | 2.8 | 1,782 | 4.6 |
| 貴石, 貴金屬 및 그製品 | 4 | 0.0 | 229 | 0.7 | 7,804 | 18.1 | 1,693 | 5.8 | 5,709 | 16.4 | 9,118 | 23.7 |
| 卑金屬 및 그製品 | 8,458 | 28.2 | 13,165 | 38.4 | 15,646 | 36.2 | 11,166 | 38.1 | 11,496 | 33.0 | 12,111 | 31.5 |
| 其他計 | 294 | 1.0 | 201 | 0.6 | 319 | 0.9 | 233 | 0.9 | 138 | 0.3 | 129 | 0.3 |
| 輸入合計 | 29,955 | 100.0 | 34,300 | 100.0 | 43,201 | 100.0 | 29,273 | 100.0 | 34,886 | 100.0 | 38,422 | 100.0 |

資料：日本貿易振興會，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1988.6. 日・朝貿易會，日・朝貿易，1989.

그리고 鑛産物(무연탄, 마그네샤크랭카등이 대부분임)은 1983年 43억圓(14.4%), 1984年 54억圓(15.7%), 1985年 56억圓(12.9%), 1986年 47억圓(16.0%), 1987年 33억圓(9.6%), 1988年 1-11月 39억圓(10.2%)을 輸入하였다.

4. 日·北韓貿易去來上の 問題點

1) 北韓의 심각한 外債問題와 外換事情

北韓의 總外債規模는 1987年末 52.1억달러로 알려져 있는데⁸⁾ 規模面에서는 南美의 주요 外債國들에 비하면 小額이나 北韓의 輸出額(1987年 16.7억달러)보다 많기 때문에 支拂能力상에 問題가 있다는 것이다.

北韓의 貿易相對國중에서 소련에 이어서 2位를 차지하던 日本이 최근에 들어서는 소련, 中國에 이어서 3位를 차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日本과의 貿易을 저해하고 있는 최대의 요인은 역시 北韓의 外債問題에 따른 對日 澁濟 未支拂과 信用狀 開設遲延에 있다.⁹⁾ 이 問題에 관하여서는 과거에 3차에 걸친 外債支拂延期合意(1976年 12月 第1次 支拂延期合意, 1979年 10月 第2次 再延期 合意, 그리고 1983年 4月 第3次 延拂覺書交換)가 있었다.¹⁰⁾ 그러나 1983年 10月の 랭군事件이후 日本의 對北韓制裁措置에 대한 보복으로 1984年 1월에 北韓은 또 다시 元利金 支拂을 거부하고 나서서 兩國間의 貿易去來는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8) 國土統一院, 北韓경제개관, 1988. P.162.

9) 현재 北韓과 日本間에 행해지고 있는 代金澁濟 및 銀行去來에 관한 基本的인 原則에 對해서는 日本貿易振興會, JETRO 貿易市場シリーズ241(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參照.

10) 이에 관해서는 Ⅲ章2의4)에서 상세히 설명되었다.

또한 西方側 銀行團에 지고 있는 北韓의 債務(1987年末 현재 약 9억달러로 예상)가 1984年 이후 일체 支拂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자 그들은 1987年 8月에는 北韓에 대해서 債務不履行者宣言을 하는 등 분위기가 惡化되자 日本은 同年 11月에 日本은 1988年 2月에 第4次 交渉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으나 KAL 機 事件으로 交渉合意가 무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日本은 1986年에 약 700억圓에 이르고 있는 貿易代金を 위와같이 수년째 갚지 못하고 있는 北韓을 破産國으로 인정하여, 貿易代金を 北韓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30個의 日本貿易商社들에게 輸出保險을 적용하여 300억圓의 保險金を 支給한 바 있다.

2) 北韓의 폐쇄적인 經濟體制에 따른 협소한 市場

北韓은 세계의 共產主義國家들 가운데에서 가장 高度로 中央集權的이며 社會主義化된 計劃經濟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北韓의 폐쇄적인 經濟體制는 결국 內部指向的인 發展戰略을 요구하게 되어 北韓은 기본적으로 內部指向的인 輸入代替政策을 치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北韓은 經濟計劃에서 수립된 目標의 이행과 計劃되지 않은 결핍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계류, 장비 및 원자재등을 주로 수입하였으며(輸入優先主義), 輸出은 우선적인 輸入代金支拂手段으로 이용되며(輸出入均衡主義) 혹은 잉여생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北韓의 對外貿易政策으로 말미암아 北韓의 內需市場은 협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日本·北韓貿易은 擴大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3) 北韓의 社會主義國家와의 經濟協力強化政策

北韓은 資本主義國家들과의 貿易擴大보다는 다른 社會主義國家들과의 經濟協력을 통하여 그들의 經濟開發과 經濟成長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을 基本政策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日本과의 貿易도 많은 制約을 받고 있다.

4) 北韓의 낮은 經濟能力

北韓은 外換保有高의 不足, 國民所得水準의 低調, 낮은 産業技術能力 등 經濟能力이 낮아서 이에 따라 購買力도 매우 낮아 日本과의 貿易을 擴大하는데 限界에 달하고 있다.

5) 日·北韓貿易去來의 實質的인 當事者

日本과 北韓間의 貿易去來가 전세계에서 3位, 西方側 國家중에서는 1位라고 하지만 日本企業들중에서 70~80%가 조총련계에 속하는 企業들이며 순수한 日本企業은 참여의 폭에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어서 20~30%밖에 되지 않으며 그것마저도 北韓은 조총련계 企業들과의 去來를 고의로 強化시키고 있는 바 日·北韓間의 貿易去來擴大에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6) COCOM 規制의 強化

美國을 주축으로하는 對共產圈 輸出統制委員會(COCOM)에 의한 첨단기술 및 기계장비등의 戰略物資의 對共產圈輸出規制가 점차로 強化되어감에 따라서 이들 製品들의 對北韓輸出이 不可能하게 되어 日·北韓貿易에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5. 日·北韓貿易의 展望

KAL 機事件으로 인하여 北韓의 國際的 이미지가 하락하여 日本企業들은 北韓과의 去來를 한층 더 삼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COCOM 規制의 強化에 따라 北韓과의 去來가 소극적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으며, 日本企業中 일부는 적극적인 去來를 전개해 볼 의향도 갖고 있으나 北韓이 조총련계 중심의 去來를 強化시키고 있어서 去來를 縮小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도 하다. 合作事業에서도 日本企業이 단독으로 北韓企業과 제휴하는 것도

南北韓 主要經濟指標

(1987 年末現在)

| 區 分 | 單 位 | 韓 國 | 北 韓 | 南北對比 |
|-----------------|------------------|-----------|-----------|--------|
| 人口 (年央人口) | 萬 名 | 4,208 | 2,069 | 2.0:1 |
| 面 積 | 千 ㎞ ² | 99.2 | 122.1 | 1:1.2 |
| G N P | 億 韓 幣 | 1,186.0 | 193.7 | 6.1:1 |
| 1 人 當 量 | 韓 幣 | 2,826 | 936 | 3.0:1 |
| 經 濟 成 長 率 | 實 質 % | 12.0 | 3.3 | - |
| 換 率 (年 中) | 美 1 韓 幣 對 比 | 822.4 | 2.14 | - |
| 財 政 規 模 | 億 韓 幣 | 195.3 | 140.6 | 1.4:1 |
| 軍 事 費 支 出 | 億 韓 幣 | 59.8 | 42.2 | 1.4:1 |
| 軍 事 費 / G N P | % | 5.0 | 21.8 | - |
| 軍 事 費 累 計 額 | 億 韓 幣 | 514.8 | 528.6 | 1:1.03 |
| 1 人 當 軍 事 費 | 韓 幣 | 142 | 203 | 1:1.4 |
| 貿 易 高 | 億 韓 幣 | 883.0 | 40.6 | 21.7:1 |
| 輸 出 | 億 韓 幣 | 472.8 | 16.7 | 28.3:1 |
| 輸 入 | 億 韓 幣 | 410.2 | 23.9 | 17.2:1 |
| 外 債 | 億 韓 幣 | 356.0 | 52.1 | 6.8:1 |
| 發 展 設 備 容 量 | 萬 KW | 1,902 | 637.7 | 3.0:1 |
| 石 炭 生 產 量 | 萬 M/T | 2,427 | 3,900 | 1:1.6 |
| 精 油 生 產 能 力 | 萬 M/T | 3,558 | 350 | 10.2:1 |
| 鋼 鐵 生 產 能 力 | 萬 M/T | 1,854.0 | 480.5 | 3.9:1 |
| 非 鐵 金 屬 生 產 能 力 | 萬 M/T | 44.4 | 46.4 | 1:1.1 |
| 시멘트 生 產 能 力 | 萬 M/T | 2,600 | 932 | 2.8:1 |
| 化 學 肥 料 生 產 能 力 | 萬 M/T | 311 | 351 | 1:1.1 |
| 自 動 車 生 產 能 力 | 萬 壹 | 65 | 2 | 32.5:1 |
| 造 船 能 力 | 萬 G/T | 300 | 21.4 | 14.0:1 |
| T V 生 產 能 力 | 萬 壹 | 1,248 | 24 | 52.0:1 |
| 織 物 生 產 能 力 | 萬 m | 55.0 | 6.4 | 8.6:1 |
| 食 糧 作 物 生 產 量 | 萬 M/T | 668.7 | 495.2 | 1.4:1 |
| (管 生 產 量) | (萬 M/T) | (549) | (203.4) | 2.7:1 |
| 水 產 物 生 產 量 | 萬 M/T | 333.2 | 212.3 | 1.6:1 |
| 道 路 總 延 長 | 千 Km | 54 | 22.2 | 2.5:1 |
| (高 速 道 路) | (Km) | (1,539) | (240) | 6.4:1 |
| 鐵 道 總 延 長 | Km | 6,340 | 4,703 | 1.3:1 |
| (電 鐵 區 間) | (Km) | (1,154) | (2,867) | 1:2.5 |

資料：國土統一院，北韓經濟概覽，1988。

곤란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日·北韓間の 貿易이나 經濟交流는 점차 조총련계 企業과의 交易擴大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通商關係가 促進된다고 하더라도 理解와 親善 그리고 關係改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며 비록 去來가 擴大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갖는 의미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日本의 對北韓貿易은 經濟的인 側面보다는 政治的인 側面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對北韓經濟開放政策에 따라 전보다 더 積極的인 對北韓接近政策을 取하고 있으므로 현재 수준(약 5~6억달러)의 貿易規模는 유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6. 日·北韓貿易을 통한 南·北韓貿易 可能品目

1987年의 경우 北韓은 日本에게 비금속, 어패류, 보석, 목재등(2억4천만달러)을 輸出했으며, 기계, 전기 및 부품등(2억1천만달러)을 수입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日本에 纖維, 機械, 電氣機器 및 部品등을 輸出하고 자본재, 중간재등을 輸入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대체적으로 보아 北韓은 韓國에 대해서 볼 때 資源集約的인 財貨에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北韓에 대해서 볼 때 資本 및 技術集約的인 財貨에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의 資源集約的인 財貨와 우리나라의 資本 및 技術集約的인 財貨가 장기적으로는 交易이 擴大될 수 있는 品目으로 본다. 특히 北韓에는 非金屬鑛物이 매우 豊富하게 보존되어 있으므로(한반도 전체매장량중 鐵은 93.8%, 니켈은 84.7%, 金과 銀은 67%, 아연은 94.9%, 마그네사이트는 100%, 무연탄은 89%가 매장되어 있음) 대부분의 천연광물을 수입에 의존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北韓의 鑛物輸入이 可能하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가 北韓으로부터 輸入 可能한 物品은 알루미늄, 납, 선철, 아연괴, 양식용 산실장어, 철강코일, 철강웨이스트 등이며, 한편 우리나라가 北韓에게 輸出可能한 品目は 냉장 및 냉동기구, 전자기기, 타이어, 철강제품, 엔진, 승용차등이 있다. 특히 지리적인 잇점으로 보면 중량과 부피가 큰 무연탄, 철광, 아연괴등은 수송비에 있어서 상당한 잇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民間企業의 立場에서 보면 南北交易은 內國間去來로 간주하여 輸入關稅가 면제되기 때문에 現行 輸入關稅率이 높은 명태(20%), 연체동물과 갑각류(20%), 페로얼로이(10%), 아연괴(10%), 양식용산실장어(20%)등은 民間企業들에게는 적절한 품목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北韓에서는 1次產品은 1次產品끼리, 2次產品은 2次產品끼리의 交易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같은 우리나라의 2次產品輸出, 1次產品輸入의 垂直去來는 단기적으로는 곤란하므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토록하고 우선은 가능한 대로의 水平去來가 요구된다.

IV. 우리나라 民間企業의 對北韓貿易 促進方案

1. 우리나라와 北韓間的 貿易去來推進現況과 問題點

1) 推進現況

1988年의 「7.7」宣言, 「10.7」南北韓民間交易許容措置, 뒤이어서 나온 南北經濟人 相互訪問·接觸許容 등으로 물꼬가 트인 南北韓貿易은 1989年 1月初까지는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더니 2月을 고비로 해서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88年 10月10日(주)쌍용이 北韓무연탄 20만톤(810만달러)을 搬入申請한 이후 효성, 삼성, 현대, 대우, 선경등 9개업체가 총 97만5천톤의 北韓産 무연탄을 導入申請하였으며, 이 중 쌍용, 효성, 삼성의 3개 업체가 1次的으로 각 2만톤씩의 導入承認을 받았다.

또한 삼성물산이 北韓産 명태 1천톤(톤당 233달러)을 들여오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구일산업, 삼호물산, 럭키금성 등이 導入申請하였던 바 삼성물산은 이미 承認을 받아놓고 있다. 한편 현대종합상사는 인삼차, 필터담배, 뱀술, 녹용드링크 등을 (주)대우는 84점의 그림을 도입한 바 있는데 金額으로 보면 총 3천 867만 8백달러에 이르고 있다.

外國換銀行에서 輸入이 自動적으로 承認되는 自動承認品目(AA)중에는 (주)대우가 도자기, 돌공예품, 옷칠공예품, 목공예품 등 5백 28점, 효성물산이 전기銅 200톤이, 현대종합상사는 맥주, 인삼주, 사이다, 버루등을, 삼성물산은 냉동도루묵을 수입할 예정이다.

1989年 1月末까지의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 民間企業들의 北韓商品輸入計劃은 매우 활발한 편이나 물량/금액면으로는 아직 저조한 편이어서 기념품 수준이거나 실험적인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와 北韓間의 貿易去來가 활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交易可能한 品目들을 많이 개발해야 할 것이며 相互 經濟性이 있는 品目들을 開發해야 할 것이다.¹¹⁾

이상과 같이 그동안 활발히 進行되어 오던 우리나라의 北韓産物資搬入申請이 1989年 2월에 들어서면서 부터 급격히 감소되어 2월에는 131만달러, 3월에는 73만달러로 나타났다. 이것은 1988年 10月 對北韓物資交流開放措置 이후 11月 1천4백61만달러, 12月 1천6백86만달러, 1989年 1月 2천2백49만달러에 비하면 크게 감소된 것이다. 이에따라 北韓産物資搬入承認實績도 1988年 11月 처음으로 10만4천달러를 기록한 후 12월에 101만달러, 1989年 1月 447만달러로 계속 증가하였으나 2월부터 감소하여 3월에는 47만4천달러에 불과하였다.

이와같이 1989年 2月 들어서면서부터 北韓産物資搬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對北韓物資交流가 국내업체에게 큰 實益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효성물산이 搬入했던 北韓産 무연탄이 당초 계약한 괴탄과는 달리 값싼 粉炭으로 드러나는등 말썽이 빚어지자 對北韓交易熱氣가 식었기 때문이다.

1989年 3月末까지의 北韓産物資搬入承認品目은 총 25종(9개업체)으로 이 중에서 무연탄이 294만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아연괴, 전기銅등 비철금속제품(246만8천달러), 냉동명태등 냉동수산물(46만6천달러)등이다.

한편 선경이 搬入申請한 北韓産生絲 3t(17만5천5백달러)에 대해서는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을 잠업진흥기금으로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承認한 바 있다.

11) 現在 搬入예정인 物品들의 經濟性을 따져보면 무연탄이나 명태등은 대체적으로 經濟性이 있으나 맥주나 전기銅등은 經濟性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9年 4月 들어서부터는 우리나라의 對北韓貿易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는 계기를 맞았다. 이유는 문익환목사의 돌연한 訪北에 잇따라 임수경양, 황석영씨, 서경원의원 등의 不法訪北으로 말미암아 對北韓貿易去來에 대한 경각심과 신중론이 강하게 대두되었고, 한편으로는 北韓産物品搬入에 대한 國內生産者들의 반발이 심각했으며 또한 北韓産物資의 搬入에 따른 實益이 거의 없다는 판단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北韓으로부터의 搬入에 관한 논의였고, 이번에는 北韓의 입장에서 보면 1984年 우리나라가 水災를 입었을 때 北韓赤十字가 쌀 5만톤과 시멘트 10만톤을 14척의 선박에 싣고 인천항과 동해안에 입항하여 하역한 적이 있으나 이것은 貿易(搬出入)이라 볼 수 없다.

최근에 나타난 北韓의 對韓國輸入의 하나는 北韓의 水産物과 石炭을 수입하고 北韓에게 철강, 화학제품, 생활필수품등을 輸出하는 방식으로 北韓과 求償貿易을 전문으로 하는 日本의 流通체인인 (주)瑞寶와 현대중합상사 후쿠오카지사간에 포항제철의 철강재(냉연코일)의 1차 160t 契約이 이루어졌는 바, 北韓에서는 이 냉연코일을 청진에 있는 자동차工場에 供給하기 위한 것이었다. 北韓은 현재 년 700만톤의 철강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품중 일부를 동남아등지에 수출하고 있으나 품질이 낮아 고급철강제품은 日本등지에서 수입해 왔었다. 北韓에서의 철강재 輸入代金は 北韓의 水産物로 支給하는 求償貿易方式을 채택했으며 철강재 輸出價格은 톤당 500달러로서 代金は 80,000달러이었다.

또하나는 현대중합상사가 日本貿易商社를 통해서 受注한 어부용 방한잠바 500벌의 輸出契約인데 이의 代金は 현대중합상사가 北韓으로부터 輸入하는 동태 10t(106만圓), 황태 20t(482만圓), 염장명란 10t(808만圓)과 연계된 求償貿易方式에 의했다.

2) 問題點

1988年「10.7」經濟措置이후 지금까지 약 1年동안 추진된 우리나라의 北韓間의 貿易去來推進現況에 의거하여 나타난 몇가지의 問題點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政府와 北韓間에는 同床異夢을 꾸고 있었다는 점.

가장 폐쇄적인 北韓이 최근들어 經濟開放의 눈을 뜨고 있는 조짐이 보이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對北韓經濟開放措置에 따른 政府와 民間企業들의 들뜬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양상이 보였다.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의 北韓방문, 北韓側의 合營제의, 南北交易規模의 급증등 南北韓經濟交流가 외견상 상당히 급진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北韓에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으며, 우리나라와의 經濟交流를 한번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北韓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들뜬 분위기를 역이용하여 국내의 목사, 학생, 문학작가, 국회의원들을 포섭하여 北韓을 不法으로 立北시켜서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를 발각 뒤집어 얹어놓고 말았던 것이다.

둘째, 北韓에서는 經濟開放으로 인한 體制유지에 위협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

北韓의 外交部長을 지낸 바 있으며 祖國平和統一促進委員會 委員長으로 있는 政治實力者 許鏞이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에게 초청장을 보냈다는 점, 국가기관이 다름이 없는 北韓貿易會社의 高位責任者가 우리나라 경제인(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에게 合營方案을 모색하자고 제의했다는 점, 등에서 北韓도 우리나라와 經濟交流를 擴大시켜 볼 의사가 있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은 급속한 經濟開放이 몰고 올 수 있는 그들의 體制붕괴위험을 강하게 걱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經濟交流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합의도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肯定的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거래는 대부분이 間接交易이므로 北韓側의 物品이 우리나라에 搬入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政府가 그동안 너무 서둘러서 진행시켰다는 점.

1984年 10月 12日 당시 우리나라의 申秉鉉 副總理가 제의한 經濟會談에 대해 北韓側 正務院 副總理가 同年 10月 16日 수락해 옴에 따라 그동안 다섯차례에 걸쳐서 개최되어 왔었으나 北韓은 1986年 1月 20日에 第6次會談(1986年 1月 22日 개최예정)을 팀스피리트훈련을 핑계삼아 무기한 연기시켜 놓자 우리側에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이 회담의 재개를 촉구했었으나 이에 應하지 않자 1988年 10月 7日에 對北經濟開放措置를 발표하여 실질적인 接觸을 기대하는 우리나라의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에 관련된 諸般規定과 法規등을 정비시켰어야 했는데 그러하지도 못한 가운데서 政府는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을 北韓에 보내게 되자 우리나라는 당장 南北統一이 이루어지는듯 온통 들뜨게 되었고 이에 따라 民間企業들의 對北韓物資搬入이 과당경쟁적으로 신청되고, 문익환목사등의 不法入北事件으로 南北交易에 찬물을 끼얹게 되었다.

여기에서 中國, 헝가리, 유고, 폴란드 등과 交易을 트는데 많은 세월을 投資했던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國際收支黑字時代를 맞이했다고 해서 다소 자만심에 빠졌다는 점.

우리나라가 그동안 國際收支赤字를 면치 못하다가 1986년부터 黑字로 전환했다고 해서 國內外的으로 지나치게 과대선전하고 자만감에 빠지게 되어 北韓側의 同意도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게 됨에 따라 南北韓經濟指標의 비교에서 훨씬 뒤쳐지는 北韓의 자존심을(전세계에다) 상하게 했다는 것도 지적될 사항이다.

다섯째, 이상의 것들 이외에도 그동안의 交易대상물품도 1次產品에 불과했으며 工產品이나 原資材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우리나라 民間企業들의 對北韓物資輸入은 외관상 과당경쟁만을 나타낼 뿐이었으며 實제는 상징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여섯째, 北韓의 輸出對象品이 주로 1次產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國內生産業들의 강한 항의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2. 政府와 民間企業에 對한 提案

1) 政策的 次元에서의 政府에 對한 提案

첫째, 南北韓經濟交流協力を 爲한 實用的이며 合理的인 法案을 조속히 制定한다.

둘째, 南北韓經濟交流를 促進시키기 위하여 現行 輸出保險에서 카바할 수 없는 부분을 새로이 포함시키든가 아니면 이를 위한 새로운 保險制度를 設立한다.

세째, 對北韓貿易의 促進을 위하여 實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세계, 金融, 보조금 등에 의해서 資金을 지원하도록 한다.

네째, 現行 각종 規定을 재정비하여 中國·소련·北韓등 모든 共產圈國家와 의 經濟交流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法을 새로이 制定한다.

다섯째, 10.7 經濟措置는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조치이며, 또한 南北韓經濟交流推進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 北韓의 同意를 얻어내도록 努力한다. 北韓의 合營法도 마찬가지로이지만 現재와 같은 南北韓經濟交流 분위기속에서도 北韓의 기본노선에는 아직까지 變化가 없음을 直示하고 있어야 한다.

여섯째, 商品交易以外에도 合作投資나 資本·技術提供등 經濟協力を 위해서도

꾸준한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일곱째, 우리나라가 이만큼 成長할 수 있었던 것은 友邦先進國의 힘이 매우 크게 작용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이들과 緊密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우리나라의 對北韓政策과 對北方政策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협조부탁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여덟째, 北韓에 관한 과거의 폐쇄적인 태도를 과감히 탈피하고, 北韓研究에 더 많은 投資를 하도록하여 研究結果를 필요한 부문과 기관들에게 제공하여 관계부서들이 北韓의 政治·經濟·貿易등의 자세한 情報를 入手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北韓研究는 外交와 統一政策分野에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있는데 연구분야를 대폭 擴大하여 나가야 한다.

아홉째, 北方政策과 마찬가지로 北韓政策도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상대방을 의식해가면서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2) 貿易實務的 次元에서의 民間企業에 對한 提案

첫째, 對北韓貿易去來를 행하고자 하는 民間企業들간에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海外市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듯이 그리고 최근 共產圈地域에의 進出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지없이 보여주었던듯이 北韓과의 交易에서도 어떤 방법과 형태로든 이 대열에 끼어들지 못하면 경쟁대상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다는 부질없는 판단으로 조금하게 過當競爭을 서슴없이 발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한 좋지 못한 습관을 버려야 한다.

둘째, 당분간은 水平的 去來를 推進해야 한다.

北韓의 입장에서 보면 1次產品을 우리나라에게 輸出하고 2次商品을 輸入하면 스스로 工業水準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垂直的去來는 極히 꺼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2次商品에의 比較優位, 北韓의 1次產品에의 比較優位를 주장하지 말고 同一産業品끼리

의 水平去來를 추진해야 한다. 결국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日·北韓間의 去來처럼 우리나라가 工業製品을 輸出하고 北韓으로부터 天然資源을 輸入하는 형태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1次產品이 交易對象의 주종을 이루게 될 것이므로 그들의 문호개방을 促進시켜 주기 위해서 사주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셋째, 당분간은 間接貿易을 이용해야 한다.

北韓의 우리나라와의 貿易에 대한 공식적인 許容이 없기 때문에 北韓商社들은 우리나라 商社들과 直接 交渉을 할 수가 없으므로 間接貿易이 어쩔 수가 없기도 하고, 또한 1953年 이래 40年이 가까운 日本의 直接貿易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問題點들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第三者를 經유하는 間接貿易을 이용해야 한다.

넷째, 당장의 實益追求를 지양해야 한다.

北韓은 우리나라와의 交易에 있어서 對外宣傳效果와 우리나라의 資本과 技術을 活用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의 利益만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北韓은 이에 應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칼라TV 輸入에 있어서 北韓側의 高尙商標를 부착하도록 하는 OEM 방식의 要求에서처럼 우리나라의 貿易이 北韓의 體制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며 北韓은 언제든지 去來中止의 可能性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民間企業들이 당장의 자기들 實益만을 주장하다가 國益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다.

다섯째, 貿易去來初期에는 求償貿易方式을 長期에는 東西獨의 清算去來方式을 擇해야 한다.

北韓은 현재 消費財產業이 취약하고, 外貨도 絶對적으로 不足한 실정이어서 求償貿易方式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商品을 北韓에 進出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輸出代金の 確實한 回收를 위해서는 去來初期에는 그들의 求償貿易方式에 따라줘야 하나 去來經驗이 쌓인 長期에 가서는 東西獨의 清算去來

方式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시키는 것이 必要하다.

여섯째, 같은 條件이면 같은 民族의 商品을 購買하겠다는 民族的 意識을 가지고, 그리고 北韓의 反應을 보아가면서 生活必需品을 원조한다든가 外債償換에 直·間接的인 協助를 하겠다는 진정한 마음의 자세로 臨하여 우리의 盟원인 祖國統一에 一助를 하겠다는 자세로 臨해야 한다.

參 考 文 獻

○ 國內文獻

- 尹基官, 北韓貿易論小考—「10.7 對北韓經濟開放措置」에 따른 對北韓貿易 可能性
展望, 成均館大學校 貿易大學院, 1988.12.
- _____, 北韓貿易의 制度와 現況, 大韓商事仲裁院, 1989.1~5.
- 國土統一院, 南北韓部門別 經濟協力比較 및 長期豫測, 1972.
- _____, 南北韓比較, 1973.
- _____, 北韓貿易現況과 對外決濟方法, 1977.
- _____, 對外經濟協力面에서 본 北韓經濟分析, 1977.
- _____, 「統一政策」第4卷 第1號, 1978.
- _____, 南北韓産業構造와 實態比較, 1980.
- _____, 北韓概要, 1980.
- _____, 北韓經濟統計集, 1980.
- _____, 「統一政策」第6卷 第3·4號, 1980.
- _____, 南北韓經濟交流推進方案에 관한 第2次研究, 1982.
- _____, 南北韓經濟現況比較, 1983.
- _____, 東·西獨經濟交流의 現況과 展望, 1980.12.
- _____, 南北韓主要指標別變化趨勢(1982-2000), 1984.
- _____, 北韓의 輸出商品資料, 1984.12.
- _____, 南北韓經濟分野交流協力實踐方案研究, 1984.12.
- _____, 「統一問題」第17輯, 第21輯, 第22輯, 1985.
- _____, 「統一論集」第5卷 第2號, 1985.
- _____, 北韓經濟統計集, 1986.

- 國土統一院, 북한경제개관, 1988.
- KDI, 南北韓貿易競合關係, 「韓國開發研究」第6卷 第2號, 1984.
- _____, 北韓經濟總量推定에 관한 小考, 「韓國開發研究」第6卷 第3號, 1984.
- _____, 北韓經濟의 動向과 政策決定, 「韓國開發研究」第8卷 第2號, 1986.
- _____,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1986.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北韓貿易論, 1979.
- _____, 北韓의 對外政策, 1986.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北韓의 現實 (I), 1980.
- _____, 北韓經濟構造, 1972.
- 平和統一研究所, 北韓概要, 1986.
- 徐極性, 北韓의 經濟實狀, 民族統一中央協議會, 1985.7.
- 李宗夏外, 南北韓經濟交流推進方案에 관한 研究, 國土統一院, 1981.8.
- 鄭暢泳, 南北韓經濟關係進展과 政策課題. 大韓商議. 1986.
- _____, 北韓의 經濟開放與件과 그 展望, 國土統一院 세미나, 1989.8.
- 노 목, 韓國의 對北方經濟交流增進方案, 韓國國際政治學會세미나, 1989.6.
- 李泰旭, 北韓의 經濟開放政策과 그 展望, 國土統一院세미나, 1989.8.
- 이희상, 北韓의 經濟開放努力과 展望, 國土統一院세미나, 1989.8.
- 이 호, 北韓의 國民所得水準, 충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세미나, 1989.10.
- 朴聖祚, 南龍, 北方貿易戰略, 전예원, 1989.
- 張和洙, 分斷國의 經濟交流, 惠和出版社, 1989.
- 통일문제연구소, 北韓經濟資料集, 民族統一, 1989.
- 韓國貿易協會, 南北韓經濟交流促進을 위한 中長期發展計劃 (案), 1989.4.
- _____, 北韓의 合作投資制度 概觀, 1982.2.
- _____, 南北交易運營指針 및 留意事項, 1989.2.
- _____, 北韓·日本間의 貿易現況 및 展望, 1989.7.

韓國貿易協會，北韓の流通構造と價格體系，1989.7.

○ 日本文獻

民族問題研究所，ユリア評論，1984-1988.

_____，北朝鮮の第2次七個年計劃の實績と今後の見透し，
ユリア評論，1985.

_____，ソ連の對韓半島政策，ユリア評論，第270號，1984.

_____，日朝貿易の推進と展望，ユリア評論，1981.

日本朝鮮研究所，手きびしいソ連の態度，現代ユリア，第255號，1985.

_____，北朝鮮第2次七個年計劃完遂の明暗（上）（下），1985.

_____，合營法の背景 問題點，現代ユリア，第247號，1985.

日本貿易振興會，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1988.6.

_____，世界と日本の貿易，1980 - 1988.

_____，海外市場白書（貿易篇），1980 - 1988.

_____，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貿易市場シリーズ241，1984.

日朝貿易會，日朝貿易，1980 - 1988.

_____，日本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間の貿易通關統計，1985.

通商産業省，通商白書（各論），1980 - 1988.